

교육개방

Spring

2007 Vol.34, No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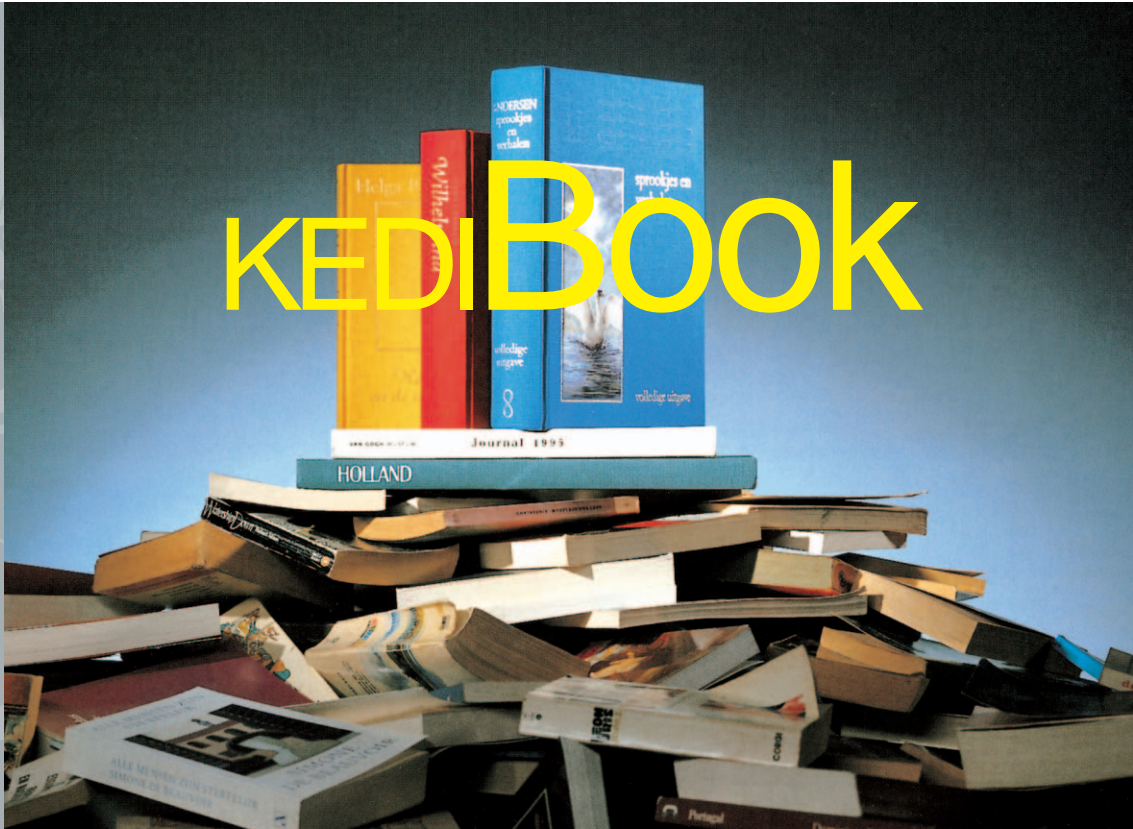
Power Interview 정홍섭 신라대 총장 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Project 특별기획 1 : 논술

Project 특별기획 2 : 세계의 논술교육

기획르포 대한민국을 강타한 논술 광풍

KEDI 도서회원이라면 당신은 이미 신지식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0년 넘는 기간동안 국가 수준의 교육목적, 방향, 정책, 전략을 연구해 온 국내 최고의 교육분야 종합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하여 '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를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께서는 가장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 회원 자격 및 특전

- (1) 회원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짐
- (2)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 『한국교육』(연4회) 우송
- (3) 기관회원: 기본연구보고서 전송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연회비 : 1계좌당 기관회원 200,000원

▣ 입금계좌 : 011916-0006202 (우체국)
070-01-0379-171 (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의처 : Tel : 02) 3460-0407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고희일
 편집장 | 구자역
 출판심의위원 | 구자역(위원장), 김미숙, 김이경, 김정원, 김태준,
 남궁지영, 박효정, 윤종혁
 편집실 | 황예진, 김일혁, 정규열, 정경아, 박희진, 강주현
 디자인 | 디자인프리즘 02) 2264-1728
 Homepage | www.kedi.re.kr
 ISSN-291X
 발행 | 2007년 3월 30일
 기간 등록번호 | 문화바 02718
 등록변경 | 2001년 4월 11일
 값 | 6,500원
 구독문의 | 02) 3460-0472
 keditor@kedi.re.kr



C O N T E N T S

발행인칼럼

05 2007년 교육계의 화두, 논술!

고형일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keditor@kedi.re.kr

Project 특별기획 1 : 논술

20 논술교육, 이대로 좋은가?

김미숙 | 한국교육개발원 입시제도연구실장, kms718@kedi.re.kr

29 논술, 공교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황영진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교사, nim@tgedu.net

34 논술의 시장, 시장의 논술

조동기 | 조동기논술학원 대표 원장, cdg0@chol.net

39 논술 교육 및 평가에서 대학의 역할과 책임

이도흠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ahurum@hanyang.ac.kr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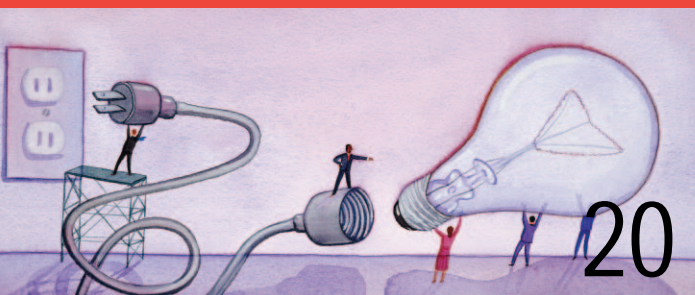
Power Interview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21세기 창조적인 교육을 구상하다

정홍섭 신라대총장 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대담 : 구자역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연구국제협력센터 본부장,
jogu@kedi.re.kr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과 신라대학교
총장을 겸임하고 있어 숨 가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정홍섭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보았다.



20



05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Project 특별기획 2 : 세계의 논술 교육

- 47 중국 - 중국의 논술시험과 논술교육
유경희 | 북경회문고등학교 교사, liujingji@hanmail.net
- 52 미국 - 미국의 논술 교육
조석희 | (前)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seokhee@kedi.re.kr
- 58 독일 - 독일의 논술교육과 독서교육
권미연 | 힐레대학교 박사과정, 삼락중학교 교사, miyun65@hanmail.net
- 64 영국 - 영국의 통합논술
최봉섭 | 비컨리서치 대표, choi@brcu.com
- 70 프랑스 - 프랑스의 논술교육과 바깥로레아
배수옥 | 경기도의회 교육전문위원, sobae67@hanafos.com

기획르포

- 78 대한민국을 강타한 논술 광풍
이경희 | 세계일보 기자, sorimoo@segye.com

현장리포트

- 83 학교 연합수업 논술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박경원 | 부산양운고등학교 교사, cutekw@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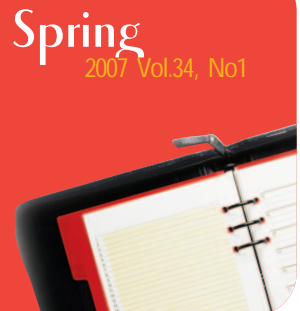
KEDI 연구보고서 소개

- 89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
강영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 kyh@kedi.re.kr



대한민국 고딩칼럼

- 98 학생의 눈으로 본 2008 대학입시제도
고대호 | 광주 대동고등학교 3학년,
zalot007@hanmail.net





2007년 교육계의 화두, **논술!**



| 글: 고희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keditor@kedi.re.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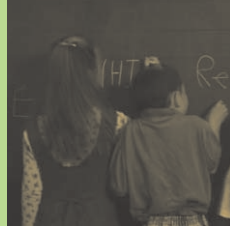
**논술이란 무엇인가.
이는 글쓰기의 한
형식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리있게 근거를
세워 설득력 있게
진술하면서 쓰는
글이다.
이런 형식의
글쓰기에 지식,
사고력, 표현력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다.**

요즘 논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8학년도부터 달라지는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이 깊다. 지금도 다양한 유형의 논술이 대입전형의 방법 중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최종 입시사정에 반영되는 점수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수능점수가 등급제로 고정되면 대학별로 실시하는 논술시험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입시경쟁이 가장 치열한 서울대에서는 논술시험을 여러 교과를 '통합한 논술'의 방식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 입시와 직접 관련되는 논술이라는 것에 교육계와 사회 일반이 전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됨은 당연한 일이다.

과연 논술고사를 실시하면 사고력과 표현력이 길러질까?

무엇 때문에 대학의 신입생 선정에서 논술에 큰 비중을 두려고 하는 걸까. 이유는 자명하다. 전통적으로 대학생을 선발할 때 필기의 '입시'를 실시해 왔는데 이제 그것을 범으로써 금하게 되었다. 다만 논술이라는 형식의 필기시험은 아직 허용 중이다. 그런데 논술이란 지적활동의 일종이어서 사고력과 표현력, 지식 등이 관련되어 있어, 책을 폭넓게 많이 읽은 자가 이러한 지적활동을 잘한다고 한다. 고등교육법에 신입생 선발방법으로 논술을 허용하는 규정은 이런 믿음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기의 입시는 나쁘니까 금하지만 폭넓

진정한 의미의 논술 교육이 가능한 곳은 다양한 교과 지식을 다루는 학교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논술교육 준비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게 책을 많이 읽은 자가 득을 보는 논술시험은 무방하고 오히려 권장할 일이라는 그런 의미이다. 그러나 과연 논술고사를 실시하면 대학에서의 학문 활동에서 필요한 사고력과 표현력이 길러질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논술이란 무엇인가. 이는 글쓰기의 한 형식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리있게 근거를 세워 설득력 있게 진술하면서 쓰는 글이다. 이런 형식의 글쓰기에 지식, 사고력, 표현력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다. 주장의 관철을 위해 근거를 세워서 조리있게 전개하는 일은 그 자체가 사고인 것이고 표현인 셈이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적어도 필요한 만큼의 지식이 개입될 것이다. 모르고서야 근거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풍부한 자가 논술문을 잘 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가령 재판에서의 송사가 걸린 경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자. 독서를 많이 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할까, 아니면 맡은 사건을 성실히 다루어서 필요한 말을 조리있게 할 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할까? 재판에서 승산을 약속하는 변호사는 후자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재판관을 (배심제도가 있는 데서는 배심원을) 설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확실한 근거를 대고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사고력과 표현

력이다.

한 번의 논술시험으로는 '논술능력'을 판별할 수 없다

대학에서 공부 잘할 사람을 뽑고 싶다면 - 대학에 들어와 미래의 학문을 잘 수행할 사람을 뽑고 싶다면 - 사고력과 표현력에서 남보다 나은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또 이런 생각에서 논술시험을 중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문 활동이란 법정에서 벌이는 변론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법정의 변론은 승부를 노리는 일인데 그 승부는 대체로 단 한 번의 대결로써 종결을 본다.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이다. 반면에 학문은 일회성의 경향보다는 한 주제를 가지고 평생을 고심하는 경향이 강한 활동이다. 남이 고심해서 구축한 학설이나 이론을 두고두고 검토하고 또 다시 검토해서 뒤집어 엮고 다시 구축하는 일이 대학의 학문 활동경향인 것이다. 그러니 대학에서 학생이나 교수가 학문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논술이란 쓰고 다시 고쳐 쓰고, 남이 쓴 것을 검토하여 비판하며, 논리와 근거의 잘못을 시정해 나아가는 활동인 것이다. 학문의 성격이 이러하다면,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의 이런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지 어떤지는 한 번의 논술시험으로써 판별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한 번의 논술시험으로써 이런 능력을 가리겠다거나, 논술의 질로 독서의 폭이나 양을 가리겠다는 생각은 학문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 하겠다. 많은 지원자가 몰려들어서 어차피 그 중에서 정원만큼 신입생을 뽑아야 하니까 요모조모로 지원자들을 살펴보던 중에 논술능력의 시험도 포함시키겠다고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무리다.

70~80%의 학부모가 논술시험 대비 과외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논술시험을 중시하고 강화한다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그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논술 시험에 대비하는 과외공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진정한 의미의 논술 교육이 가능한 곳은 다양한 교과 지식을 다루는 학교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논술교육 준비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불안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과외공부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70~80%의 학부모가 논술시험에 대비하는 과외공부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면 과외공부의 '사교육 시장'은 혼란에 빠진 일선 학교와는 달리 호황을 맞은 듯하다. 논술 학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대학의 논술고사 경향을 재빠르게 파악해서 이의 '노우하우'를 팔고 있다. 과외 공부의 다 나쁘다고 할 것은 없지만, 학원의 논술 준비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논술의 사고와 표현을 훈련시키기보다는 논술시험의 경향에 맞게 글 쓰는 기법을 반복적으로 익히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학원에서 습득한 천편일률적인 논술 기법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논술을 잘못된 시각에서 보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의 한 형식으로 이를 사용한다면 시세에 영합하는 '기법'의 매력을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

지금 주목받고 있는 논술은 명문대 입학 수단으로써의 논술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열화 된 대학 체제를 중

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입시 경쟁에 있다. 논술이 갑작스럽게 주목받게 된 것도, 과외 교육을 통하여 논술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것도, 대학 입학 경쟁 특히 명문대 입학 경쟁에서 논술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논술에 대한 높은 관심은 논술의 고유한 교육적 가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술이 중요해 졌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논술고사가 이루어진다면, 논술 교육은 다른 교과교육과 마찬가지로 왜곡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후 논술이 대학입학 전형에서 제외된다면 그 관심 또한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논술고사가 아니라 논술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초점을 논술고사보다는 논술교육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논술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이를 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은 중요하다. 구차하게 입시에 논술을 포함시켜서 간접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식으로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정식으로 본격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논술과목을 따로 설정하여 가르친다거나 논술은 글쓰기의 일종이라 국어과의 소관이나 국어교사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논술이 학문 활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는 모든 영역의 학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이다. 국어나 영어, 그 밖의 외국어, 사회, 과학이 다 그렇고 심지어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의 실기를 중시하는 교과목에서도 이론은 모두 논술로써 이루어진다. 대학의 인문사회 과학, 자연 과학, 그리고 기호를 널리 사용하는 수학도 모두 마찬가지다. 진정한 '학문'을 정식으로 본격적으로 행하면 논술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각 교과목의 탐구와 교육활동도 자연스럽게 논술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21세기 창조적인 교육을 구상하다

정홍섭 신라대 총장 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대담. 구자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연구국제협력센터 본부장 ||
jogu@kedi.re.krt |

만5~14세 학령인구수 감소율 1위

교육비 민간부담률 2.9%(OECD평균 0.7%)

대졸여성 취업률 57%(OECD평균 79%)

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이상(초등 29.1명, 중등 20.4명, 고등 15.9명)

우리 교육의 현재를 보여준 2006년 OECD 교육지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바로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요구한다. 급변하는 현재의 사회에서는 경제·교육·문화·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새로움이 요구된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은 새롭게 변하기 마련이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움에는 외형의 변화와 더불어 창의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창조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를 이끄는 주축이 된 것이다.

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비추는 교육에 있어서의 창조적인 변화는, 곧 그 나라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변화는 늘 진통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여기저기에서 혼선이 일기도 하지만, 창조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교육계 곳곳에서 부단히 시도되고 있다. 그 한 가운데에서, 대학 교육의 변화,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변화를 꿈꾸며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정홍섭 신라대 총장 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정홍섭 위원장은 중·고교 교사,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등 교육계에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교육개혁의 추진력을 갖춘 교육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재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과 신라대학교 총장을 겸임하고 있어 숨 가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정홍섭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보았다.

지속적 개혁만이 대학을 바꾼다

제3기 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무거우신 만큼 혁신위를 이끌어 나갈 포부도 크실 텐데, 올해 혁신위의 역할이나 구상을 말씀해 주시지요.

올해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임기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대학입시개편, 교원인사제도 개혁,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등 여러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면 이제부터는 2030년을 내다보는 교육의 장기비전(가칭 학습사회비전 2030)을 짜는 데 전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부서,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및 각종 연구기관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원만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교육혁신위원장직과 함께 총장직도 겸임하시는데, '실무형 개혁 총장'이라는 트레이드마크를 얻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 개혁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의미일 텐데, 신라대 총장 취임 이후 대학 개혁을 위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요?

우리 대학은 총장을 직선으로 뽑습니다. 제가 총장 선거에 나오면서 '위기의 관리자'로서 과제중심적인 총장이 될 것이란 이야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만약 그게 싫다면 표를 주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표를 많이 주었습니다. 이는 곧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획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있던 의미거든요. 그래서 총장이 되자마자, 행정·재정·교육 등 모든 부분을 효율성 중심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교수업적평가의 강화, 성과급 차등지급, 학과 편제 개편, 행정에 있어서 팀제와 목표관리제의 도입, 직원에 대한 다면평가 도입, 국제화의 과감한 추진 등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당황해했지만 이젠 제법 틀을 잡았습니다. 구성원들 모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등 생각의 전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대학 발전의 핵심은 교수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업적평가제나 성과급 차등지급 등 개혁을 단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나요?

대부분의 대학은 교수업적평가에서 연구논문의 업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교육중심



의 사립대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수업적평가에 학생들의 강의 평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가,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 인기 위주의 강의를 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점을 잘 줘서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성적을 상대평가로 전환한 후 강의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이하의 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자칫 강의평가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간 이하의 학점을 받은 학생들의 강의평가는 반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작한 첫 해에는 강의평가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평균이 3.5였습니다. 3.0미만의 평가를 받은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금년에는 3.3이하의 평가를 받은 교수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성과급 차등지급제는 전체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은 200%의 성과급을 받도록 했습니다. E등급은 성과급이 전혀 없고요. 앞으로 전체 연봉의 20%까지를 성과급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과 교수 모두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유분방하던 대학에 강도 높은 개혁을 시도하자 처음에는 무척 불편해했고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았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주도하는 혁신과제에 대해 회의적이던 구성원들도 이런 사업이 성공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총장이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가 아래로부터 올라오고, 자발적으로 혁신 활동을 하는 기관들도 많아졌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나 하는 것보다 구성원들의 긍지와 자신감 회복이 가장 큰 변화라고 봅니다.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되니까 면학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수업분위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야외활동이 많았지만 모두 주말행사로 바꾸었고, 도서관에도 학생들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취업률 향상, 입시경쟁력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킨 좋은 혁신 사례로 우리 대학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대학, 이젠 경쟁력이다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후시신라대만의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도 서울의 우수대학에 비한다면 지방대학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기금을 강조하면 할수록 부익부 빈



구자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연구국제협력센터 본부장

파격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을 당시 대학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방대학만의 블루오션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의 우수대학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영하고자 하면 결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각자의 처지에 맞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방대의 학과 체제를 지역 산업과 밀접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 잘 파악해서 그것에 맞게 교육내용이나 학과개편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대학으로서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처럼 규모가 아니라 중소규모의 대학일 경우 교수와 학생 간 밀착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교육, 진로지도 등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절이나 감성지능,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 대인관계, 리더십 능력 등 인성·감성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동시에 지도교수를 정해줍니다.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도록 합니다. 그저 허울뿐인 지도가 아니라 학점을 배정해 매주 한 번씩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교수들이 인성교육, 가치관 교육, 진로지도 등을 합니다. 3학년 때에는 학생들에게 자기생애표를 짜게 합니다. 십 년 뒤, 이십 년 뒤 자기 모습을 그려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졸업할 때 즈음에는 인생 로드맵을 짜게 합니다. 어떤 직장에서 얼마쯤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차이를 줄



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계획 등을 지도교수와 함께 고민해 보는 거죠. 이러한 것이 그 대학만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물론 학생들의 사회 진출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규모나 자기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특성 있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합니다. 전략을 잘 찾아서 그것에 집중하는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학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고민은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한국 모든 대학의 과제입니다. 2006년 세계 대학순위를 살펴보면 타임즈 평가에서 서울대만이 63위로 100위권 내에 자리했을 뿐입니다. 한국 대학의 위상이 높은 수준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대학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가 간의 '인력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미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먼저 국내대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한 평가체제 강화를 통해 대학 간 질 경쟁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대학평가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일부 언론사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교육평가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교육소비자들의 신뢰도가 객관적으로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개혁에 몰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질로는 세계 시장에 나서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싱가포르 WCU(world class universities), 호주(교육산업 마케팅), 중국(211공정/985공정) 등 인근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만 해도 이미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양적 팽창 위주의 고등교육 정책으로부터 질적 심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대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한 평가체제 강화를 통해 대학 간 질 경쟁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대학평가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일부 언론사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교육평가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교육소비자들의 신뢰도가 객관적으로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권위 있는 평가제도가 정착되어 학문분야별로 순위경쟁이 활발히 일어나면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맹목적 학벌의식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대학교육평가체제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연구력 강화를 위해 투자자원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우수 대학원 대학의 집중적 투자와 설립·운영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국내 대학의 연구력을 현 시점에서 혁신적으로 육성하지 않는 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우며 대학의 연구기능은

갈수록 현저히 저하되어 이에 따른 지적자산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우수 대학원대학의 집중적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경쟁력에서 조금 더 나아가 교육개방 문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육개방을 하게 되면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한편에서는 개방을 하면 지방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교육개방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등교육시장의 대외개방 및 교류 활성화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개방에 대한 수동적·소극적 대처보다 이를 테면 우리 대학의 '동아시아 지역의 고등교육의 허브 역할'과 같은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준비한다면 외국 의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몰려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개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육수지적자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 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학생들의 국가 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은 '동아시아 지역의 고등교육 허브 역할'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대이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 유학생이 650명, 동남아시아권 유학생이

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육도 충분히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교육개방 앞에 공격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다만 속도의 문제가 있는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이 국제화 시대에 문을 닫고는 살 수 없잖아요. 어떠한 형태로든 기간에 국제화 사회 질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폐쇄적인 온실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초중등교육이다

이제 초중등교육 현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학교가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달 학생들이 학교가 싫다는 이유로 학교에 방화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원하는,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재미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재미있는데 남과 비교해서 하라고 하고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라고 하니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가령 운동하고 싶는데 수학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 싫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면 학생에게 피아노 치라고 하면 당연히 재미를 못 느끼겠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연스러운 속도로 한다면 공부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즐거움에는 성장의 보람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육이 재미없느냐, 그것은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과 자꾸 비교해서 자기의 페이스가 아닌 남의 페이스를 따라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무색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이 전부 입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교육이 바뀔 것입니다. 일류고등학교나 일류대학으로 가기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풀어주면 충분히



재미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듭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겠죠. 매듭을 풀려면 우리 사회 전체가 협조를 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학벌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대학들도 꼭 국·영·수 몇 점 더 받은 학생을 뽑으려는 선발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예체능 과목의 교육과정 개편방안

에 대한 보도가 있는 뒤 평가 문제에 대한
답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체능 과목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시험을 통해 평
가를 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체능은 평가를
위한 과목이 아니라 학생들의 즐거움을 위한
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 체육수업을
보면 이 시간에는 달리기, 다음 시간에는 농
구 이렇게 획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테니스 하고 싶으면
테니스 가르쳐주되, 테니스 잘 하려면 체력이
따라줘야 된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달리
기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원하
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
등학교 시절 체육시간을 참 싫어했습니다. 운
동을 잘 합니다만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획일적인 체육이고, 평가를 위한 체
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이 고등학교 과정에
포함된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신 성
적에 포함시킨다거나 수능의 일부과목으로
넣거나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입시
에 지쳐 있는 아이들에게 숨통 틀 수 있는 시
간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
는 예체능 과목은 내신 성적에도 반영이 안
되고 수능에도 안 나온다 해서 고등학교 체
육시간은 시간표 상에만 존재할 뿐 그 시간
에 국·영·수 공부 시킵니다. 결국 우리 교
육의 문제가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입시제
도에 있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 현장에 또 하나 떠오른 문제가
조기유학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불만
족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조기유
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이 어떻
게 변화해야 하는지요?

조기유학이 바람직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한국의
정체성(identity)을 가지고 유학을 가는 것은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는 이유가 사교육비 많
이 드는 한국의 교육풍토 때문이라고 말씀하
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교육비 겁이 나서 조
기유학을 보낸다는 분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에서도 과외를 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
니다.

우리 교육풍토에서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키기 어렵다든가, 국제화 시
대에 외국어를 조기에 제대로 습득하게 하기
위해 조기유학을 시키는 경우는 이해가 갑니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교육이
하루 빨리 자리 잡아야 합니다. 글로벌 시
대에 영어교육에 대한 열의를 나무랄 수는 없
습니다. 비싼 돈을 주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국내 교육을 보다 튼튼하게 하는 방안이나
국내에서 국제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입, 무엇보다 학교교육의 충실도가 반영
되어야 한다**

비싼 돈을 주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얼
마든지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국내 교육을 보다 튼튼하게
하는 방안이나 국내에서 국제적 경험
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교육 현장에 제시기 때문에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대학입시제도 는 그 어떤 제도보다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신·수능·논술 이 세 가지로 인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불리 어지고 있는 2008 대입제도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입시제도는 학생들이 평소 학교 교육에 충실하고 그 학교교육의 충실도가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야 그를 통해 전인교육도 창의성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능중심의 종전의 대학입시제도가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등한히 한 채 사교육에 매달리게 해서 소위 '교실붕괴'라는 기현상을 만들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부산광역시 교육 위원으로 있을 당시 하도 교실 붕괴라는 말이 많아서 한 학교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학교를 방문해봤습니다. 학교에 가서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외부 손님으로 학교에 가서 짧은 강연을 하는 동안 학생 3분의 2가 옆드려 자더라고요. 앞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냐고 물어보니 어제 새벽 두 시까지 학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인생에 피와 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학 입시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영어·수학 시간에는 수업 열심히 들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건 학원에서 다 배워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학교가 학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

로는 안 된다고 사교육에서 보충하려고 하다 보니 사교육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능점수를 등급화해서 세부적인 변별력을 약화시키고 내신을 상대평가로 전환해서 부풀리기를 방지한 다음 내신 중심 즉 학교생활충실도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제도를 만든 것이 2008년의 대입제도입니다. 다만 대학들이 내신과 등급화 된 수능성적으로 변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불평해서 대학별 논술고사를 허용한 것입니다. 대학들은 논술대신 본고사 부활을 주장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이 왜곡되고 더욱 강력한 형태의 '교실붕괴'가 나타날 게 뻔하며 학생들과 학부모의 사교육부담은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학교마다 '내신만으로 뽑기', '수능만으로 뽑기' '특기적성으로 뽑기' 등 다양한 선발방법을 도입하고 있어 꼭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히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제도를 아무런 대안 없이 비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와 같은 입시 제도를 유지하면서 점차 고등학교의 학생부의 교과 외 기록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적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하고 대학은 수능, 논술, 교과 성적 같은 인지적 특성 뿐만 아니라 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인성적 자질까지 참조하는 입시 사정방안을 찾으려 해야 합니다. 이런 관행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대학입시를 대학의 완전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찾아야겠지요.

2008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논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논술 사교육도 붐을 이루고 있고요. 대입제도에

초중등교육 현장에 또 하나 떠오른 문제가 조기유학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불만족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조기유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요?





있어서 논술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술의 부각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이 암기된 내용지식이 아니라 창의력, 문제해결력, 평가력 및 표현능력 같은 고차적 사고능력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능력이 논술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대학입시에 논술을 치르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논술이라고 해서 논리적 표현력은 몰라도 창의성, 문제해결력, 평가력까지 측정한다고 볼 수 없고 채점의 정밀성이 떨어지므로 신뢰도도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논술을 경쟁적으로 어렵게 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논술고사는 기본적 논리력이 있는지 대학교육을 받기에 필요한 문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야 합니다. 논술 능력이 필요하다면 평소 학교 교육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수행평가 등을 통해 그것이 내신 성적에 반영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의 문제는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선 내용지식을 가져야 풀 수 있는 난해한 논술 문제를 내는 대학이 반성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수능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관적 표현 훈련 자체를 기피하는 교육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관적 표현능력은 평소 수행평가, 주관식 시험 등으로 내신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육, 희망을 바라보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현재의 교육 체제, 대학입시제도 모두 우리 사회 학벌주의

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주의가 타파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라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벌주의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답이 나와야 대학입시 문제도 답이 나오고 그제 답이 나와야 초중등 교육 체제의 답도 나옵니다. 학벌주의는 사회구조적 문제인데, 저는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이제 정보화 시대로 갑니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굉장히 빠른 변화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상당히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루트가 매우 다양하게 열리는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이것은 학벌 카르텔로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예전에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 능력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출신 성분이 그 사람의 평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가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벌 카르텔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것처럼 투명한 시대, 소통의 시대에서는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특정물이 인정되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실력과 실력이 맞서는 양방소통의 시대에 과연 학벌 카르텔이 유효할 것인가. 예전에는 논설위원이 일간지에 유명 칼럼을 쓰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학생도 그 밑에 댓글을 다는 시대입니다. 실력만 갖추었다면 초등학생과

대학교수가 맞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진출의 통로가 다양하게 열리는 시대, 아주 빠른 변화의 시대, 양방소통의 시대, 평등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학벌 카르텔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의 화두가 양극화입니다. 세계화, 글로벌화 되면서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극화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육에서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는데요,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체 방안이 있을까요?

정보화시대에서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점점 지식자본의 가치가 높아지면 지식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화 현상을 그냥 두어서 우리 사회에 별 어려움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게 곧 사회의 흐름이자 패러다임이니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양극화 사이의 간극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정보화시대의 경쟁이 서로 상생하는 경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불만세력도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 각 계 모두에서 양극화의 간극을 좁히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줘야




지금은 초등학생도 그 밑에 댓글을 다는 시대입니다. 실력만 갖추었다면 초등학생과 대학교수가 맞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진출의 통로가 다양하게 열리는 시대, 아주 빠른 변화의 시대, 양방소통의 시대, 평등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학벌 카르텔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합니다. 가령 대학 학비를 낼 처지가 못 되면 상당 부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도 안 되면 학생이 졸업한 후에 갚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학비, 등록금 부분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것이 제일 필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교육 문제인데, 소위 부모의 능력이 자식의 능력으로 전가되는 것도 사교육 문제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 교육복지 지원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본적인 학습능력, 문해능력(컴퓨터, 외국어)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국가적인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저학년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고요. 양극화의 아랫부분에 있는 학생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이 과연 21세기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21세기에 맞는 교육체제는 무엇인지요?

분명히 우리는 21세기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21세기,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의 특성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스트레스가 심한 시대잖아요. 자기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공동체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즉 감성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21세기에 필요한 창조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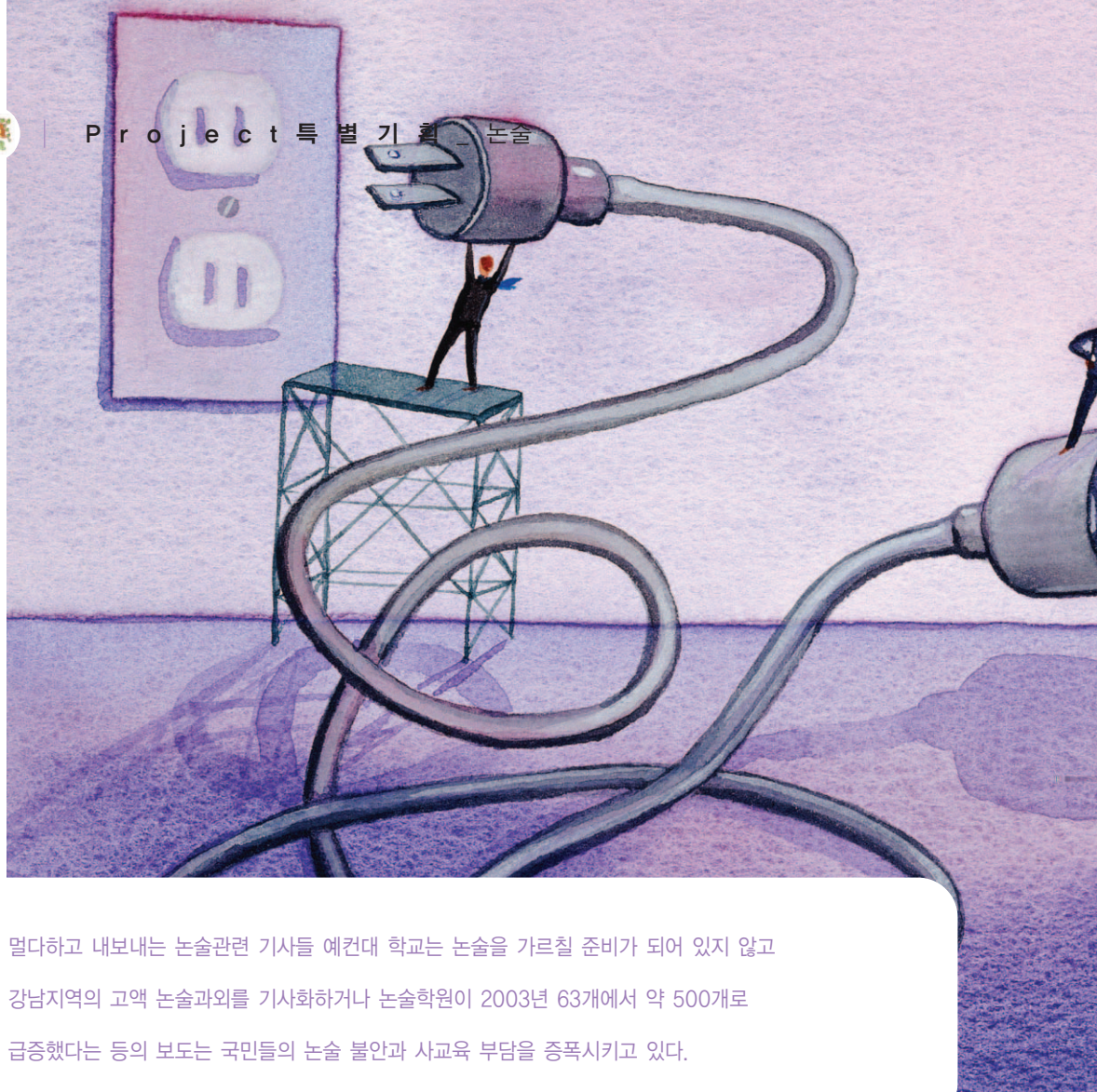
불가능합니다. 주입식 교육, 획일적 교육, 주지적 교육으로는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교육이 먼저 알아차려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상적인 교육입니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그 이상적인 교육을 위해 미래 교육을 전망할 수 있는 '교육비전 2030' 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확실히 변화해야만 하고, 미래의 교육은 확실히 변화할 것입니다. 

特別企劃

특 별 기 획 ① 논 술

- 논술교육, 이대로 좋은가? 김미숙 | 한국교육개발원 입시제도연구실장, kms718@kedi.re.kr
- 논술, 공교육에서는 어떻게 대응 할것인가? 황영진 | 대구외국어고등학교 교사, nim@tgedu.net
- 논술의 시장, 시장의 논술 조동기 | 조동기논술학원 원장, edg0@chol.net
- 논술 교육 및 평가에서 대학의 역할과 책임 이도흠 | 한양대학교, ahurum@hanyang.ac.kr



주

요 일간지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내보내는 논술관련 기사들 예컨대 학교는 논술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강남지역의 고액 논술과외를 기사화하거나 논술학원이 2003년 63개에서 약 500개로 급증했다는 등의 보도는 국민들의 논술 불안과 사교육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교육 가운데 하나는 바로 논술이다. 2008 대입제도에서 내신비중의 강화와 상대평가제 그리고 수능등급제가 도입되자, 주요 대학들은 학생 변별력 강화를 위해 논술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학의 통합논술 발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교사들의 불만을 높였다. 주요 일간지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내보내는 논술관련 기사들 예컨대 학교는 논술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강남지역의 고액 논술과외를 기사화하거나 논술학원이 2003년 63개에서 약 500개로 급증했다는 등의 보도는 국민들의 논술 불안과 사교육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은 논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으며, 실제 논술 사교육 참여율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원가의 반응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논술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논술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논술 교육 이대로 좋은가

: 논술 사교육 실태와 논술교육의 방향

| 글. 김미숙 한국교육개발원 입시제도연구실장 || kms718@kedi.re.kr |

현재 논술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23%, 중학교 12.4%, 고등학교 12.5%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보다 논술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논술사교육의 실태

가. 논술사교육 부담

2008 대입제도가 발표된 후, 논술대비 사교육을 따로 시켜야 할 부담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을 학부모에게 한 결과, 초등학생 학부모의 81.4%, 중학생 학부모 79.0%, 고등학생 학부모 72.1%가 그렇다고 답해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논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69.9%, 고졸 78.1%, 대학원졸 82.0%, 대졸 84.3%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3.4%, 강남 83.2%, 광역시 83.1% 등이 특히 높았고, 읍면지역은 74.8%로 가장 낮았다. 부담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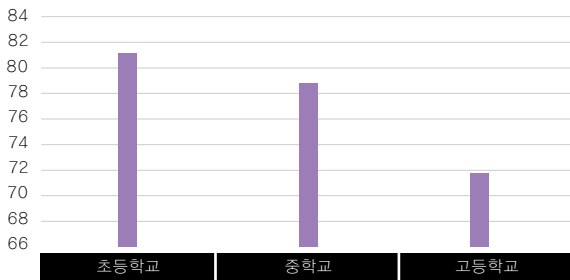


의 차이는 약 9%p로 그리 큰 편은 아니었다. 중학생 학부모의 경우에는 아버지 학력이 증가할수록 논술대비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도 정비례로 증가하여, 중졸 이하 66.05%, 고졸 77.5%, 대졸 81.8%, 대학원졸 85.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남 지역이 87.6%로 논술 대비 사교육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 83.8%, 서울 82.4%로 그 뒤를 이었다.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전체적으로 72.1%가 논술 사교육의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가운데, 아버지 학력별로는 대졸집단에서 78.7%로 가장 높았고, 중졸이하는 57.9%로 나타나 약 20%p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강남 지역이 86.7%로 가장 높았고, 서울 80.2%, 수도권 77.2% 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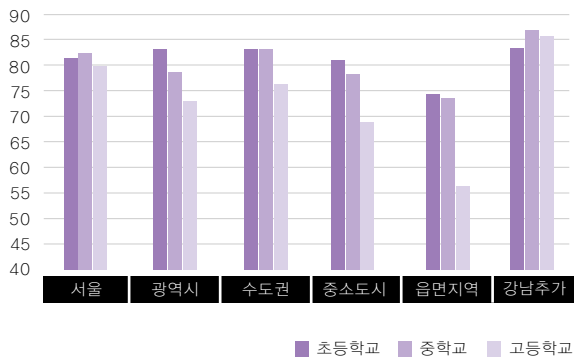
나. 논술 사교육 참여율

현재 논술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23%, 중학교 12.4%, 고등학교 12.5%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보다 논술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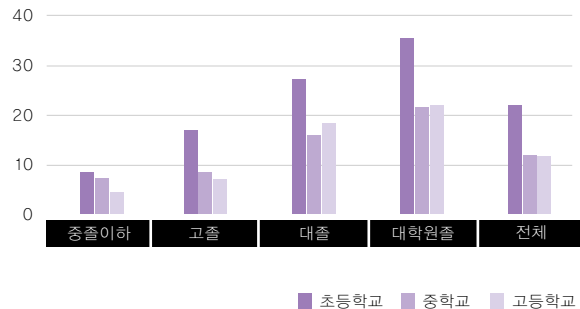
났다. 70% 이상의 초 중 고 학부모들이 논술 사교육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실제 논술사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런데 대입과 직접 연관 있는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사교육 부담을 더 크게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 사교육 참여율도 약 2배 이상 되어, 대입제도가 초등학교의 사교육 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초중고 모두 강남지역의 논술사교육 참여율(초등 29.1%, 중학 27.2%, 고등 23.4%)이 다른 지역보



[그림1] 학교급별 논술사교육에 대한 부담률



[그림2] 학교급별 지역별 논술사교육에 대한 부담률



[그림3] 학교급별 · 아버지 학력별 논술 사교육 참여율

강남의 학원관계자들에 따르면, 강남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서울대에서 논술비중을 30% 올린다는 발표가 있기 전부터 논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논술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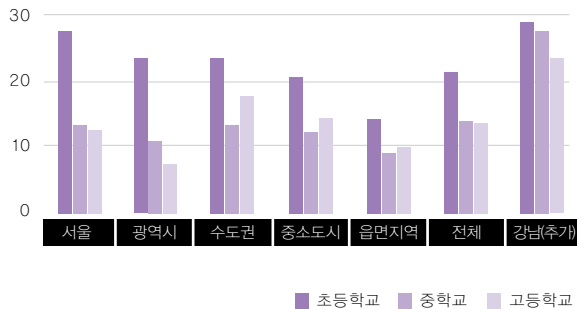
다 크게 높았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논술 사교육 참여율은 증가하였다. 읍면지역을 제외하면 지역 간 논술 사교육 참여율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참여율이 높았다.

다. 논술 사교육의 참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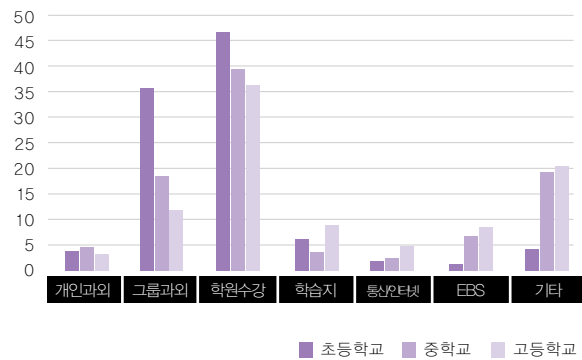
논술 사교육을 어떠한 형태로 받는가를 살펴본 결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학원을 가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학원(46.8%), 소집단과외(35.8%), 학습지(5.8%)였고, 중학교에서는 학원(39.8%), 소집단과외(18.8%), EBS(6.5%)였고 고등학교는 학원(36.2%), 소집단과외(12.5%), 학습지(8.9%), EBS(8.1%)였다.

라. 학원의 반응

논술 사교육 실태가 어떠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관계자들을 면담하였다. 강남의 학원관계자들에 따르면, 강남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서울대에서 논술비중을 30% 올린다는 발표가 있기 전부터 논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논술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다. 강남지역은 논술 반영 비중이 낮을 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논술에 신경을 쓰지만 특히



[그림4] 학교급별 · 지역별 논술사교육 참여율



[그림5] 학교급별 논술사교육 참여 유형



상위권 학생들이 논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논술학원이 급증한 것은 2008 대입제도가 발표되던 시점 즉 2004년 후반 그리고 2005년부터라고 했다. 하지만 논술학원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였다.

서울의 비강남 지역 역시 논술은 주로 성적이 우수한 애들 즉 3등급 이내의 관심사항이며, 4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논술을 보지 않는 대학에 간다면서 자포자기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이는 2008 대입이 적용되는 고2 학생만이 아니라 고1 학생에게도 해당된다고 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은 개별지도가 가능한 형태로 논술준비를 받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종합반을 다닌다고 했다.

지방의 경우엔 서울에 비해 논술에 대한 관심이나 대응이 약한 편이었다. 서울의 학원 관계자들이나 지방의 관계자들 모두 논술학원이 급증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지방의 관계자들이 강조하는 정도는 약했다.

현재 논술 강사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학원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논술강사는 고시준비생, 철학 석사 및 박사, 국문과 석사 및 박사, 대학 강사, 과거 운동권에서 사회서적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 대학신문사나 일반신문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강사 세대들이 학교에서 논술을 배우거나 글을 많이 쓰면서 학습한 세대가 아니라서 새로운 시험방식인 논술고사를 대비하고 지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재수종합학원의 강사들도 객관식 수능을 가르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2005년 10

학원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술은 오랫동안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해 형성된 사고력의 표현으로써 짧은 기간에 반복, 암기와 같은 훈련을 통해 점수를 크게 올리는 어렵다고 하였다.



월부터 연구비를 주면서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일은 학원이 세워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학원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술은 오랫동안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해 형성된 사고력의 표현으로써 짧은 기간에 반복, 암기와 같은 훈련을 통해 점수를 크게 올리는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원을 다니면서 반복하여 글쓰기를 하고 첨삭지도를 받으면 일정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가 글쓰기를 지도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정기적으로 글쓰기를 하는데 나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특히 대학교수들의 강조사항 즉 제시문을 제대로 읽되 베끼지 말고,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쓰게 하거나, 서론 본문 결론의 형식을 갖추고, 주술 관계가 분명한 문장으로 쓰게 하는 등의 첨삭지도를 하면 향상된다고 했다. 전혀 과외지도를 받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은 교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논술을 쓰기 어렵다고 했다.

요약하자면, 실제 논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23%이며 중고등학생은 13%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70%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논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논술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논술 교육의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 논술을 제대로 가르칠 만한 사람은 매우 적고, 설령 논술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논술은 내신이나 수능과 달리 일반 사교육처럼 반복이나 암기 또는 문제풀이를 통해 단기간에 높은 성적을 내기 어렵다고 학원 관계자들은 말한다. 대학 논술 채점자들 역시 학원에서 주입식으로 훈련되어 봉어빵 식으로 작성된 논술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말한다. 논술능력은 오랜 기간 동안 책을 읽고 사고하고 글로 표현하는 등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는 것임에 대학 논술 관계자와 학원 관계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 관계자들은 동의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 관계자들은 논술 교육이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에도 동의한다. 다만 현행 대입제도 아래 시행되고 있는 논술고사 시행에 대



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절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술고사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들과 그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학교교사들은 논술의 교육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지만 어떻게 논술을 가르칠지 교원연수과정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논술지도할 자신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논술지도 교사 연수 강화, 논술 자료 개발 및 제공, EBS 논술강좌 및 첨삭지도, 논술 동아리 지원,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한 논술 강화 확대 등 학교에서 논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가는 좀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논술고사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크다. 이는 논술고사가 대학교수에 의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수준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은 외국의 예처럼 고등학교 교사가 논술문제

를 출제하는 것이다. 평가의 원칙이 가르친 자가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때 대학교수가 논술고사를 출제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다. 물론 현재 대학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하면서 고교교사의 검토를 받고 있다고 하나, 실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협의체 등에서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학에서 교과서의 지문을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나, 학생들의 폭넓은 독서와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교과서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 번째, 학교에서 논술을 일부 상위권 학생들의 문제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다. 논술은 우수 학생들만 함양해야 할 것인가?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에 의하면, 논술고사는 단순히 우수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지식전수자에서 지식창출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종합적

창의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이다. 종합적 창의력 또는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이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면,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지식의 창조자를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성적 상위권 또는 특정계층의 자녀들만 해당되는 것인가? 분명 논술을 잘 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논술을 빨리 익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으나, 비판적, 창의적, 논리적 사고와 표현은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에게 강조되어야 할 능력이며 이는 국가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는 바다. 따라서 논술은 소수 상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양되어야 하며 그 과정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결과를 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포함되어 평가되거나 최소한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서울의 고등학교에서는 논술교과가 별도로 설치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논술능력의 함양을 위해 반드시 논술교과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각 교과 내에서 서술형 문제 또는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특정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경험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하고, 또 그 결과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도록 하여 평가에 반영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은 교수학습방법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탐색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육당국은 적절한 교육지원을 하고 그 과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의 함양은 학생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 삶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생활 속에서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수업시간은 물론 다른 학교생활에서도 격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각과 정서 그리고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적극 격려되어야 한다. 학교의 다양한 규율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기보다 규율을 수립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해 나가게 해야 한다.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학교에서는 논술에서 중요한 논리적 사고력 또는 창의적 사고


논술능력은 오랜 기간 동안 책을 읽고 사고하고 글로 표현하는 등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는 것임에 대학 논술 관계자와 학원 관계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 관계자들은 동의한다.



력과 표현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여섯째, 학부모들은 어떤 논술사교육 강사가 좋은가에 치중하기보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현재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습관이라고 응답했지만, 자기주도적 학습습관에서 중요한 학생들의 내재적 학습동기는 5점 척도에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PISA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학업성취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교과흥미도, 동기,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협동학습 선호도 등에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모순(박현정, 2004)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또는 학원에 있는 것만으로 부모들이 마음을 놓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사고하고, 경험의 폭을 넓히고, 부모와 토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와 생각을 표현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논술능력은 단순히 인지적 능력만이 아닌 삶에 대한 통찰력과 태도가 포함되어야 자기만의 논리로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을 위해서 방과후 교육활동, EBS,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이나 교육활동에서 취약계층에게 책을 가까이 하게 하고, 글쓰기를 지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다.

논술은 특정 우수학생들만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부가적이고 한시적인 공부라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든 계층과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둘러싼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익혀나가는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공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논술, 공교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글. 황영진 대구외국어고등학교 국어교사 || nim@tgedu.net |

과연 현실은 논술에 미쳤는가? 서울대학교가 2008학년도 논술 강화 입시안을 발표하는 그 날부터 전국에는 논술 광풍이 불었고 지금은 아예 휘몰아치고 있는 형편이다.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태교로까지 논술 바람은 넓고도 깊게 그야말로 구조적 광풍으로 불고 있다.



논술 광풍

“논술은 미친 짓이다.”라는 판단의 주제는 무엇일까? 이 판단을 전제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결론은 논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술은 왜 미친 짓인가? 논술에 미쳐서인가, 요즘에는 모든 일이 논술적 분석의 대상이 된다. 한 번 더 미쳐(?) 보자. 논술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비논리의 시대, 억박지름과 고크만인 이 시대에 논리적 서술로 차분히 이야기해서 상대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논술이 왜 문제인가? 논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논술 자체에 매인다. 즉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여 이겨야만 하고, 이 이겨야만 한다는 사실 자체조차도 반성하는 척 논리적 기교를 부리느라, 덕성 있는 지혜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참된 의미의 논술은 도태된다. 즉,



입시 논술에 얽매어 참된 논술의 능력은 기교로 전락한다. 본말이 전도된다. 논술의 기교가 지혜를 좀먹고, 그 지혜가 식어 지식으로, 지식이 식어 가식으로, 가식이 가식을 더해 마침내 열정적인 사기로 바뀐다. 지혜가 사기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입시 논술이라는 입시 정책적 제약이다. 논술이, 지혜를 사기로 바꾸므로 미친 짓이다. 그러니 이 미친 논술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 놓고 말기에는 현실은 너무나 속화되어 있다. 현실은,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담론에 대해서는 꽤나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그 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논술은 미친 짓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론의 자격조차 주지 않으려 한다. 여기에 더해 논리적 근거를 댈 것도 없이 “논술은 미친 짓이다.”라는 주장 자체를 아예 미친 짓으로 간주한다. 마침내 현실은 다음과 같은 광기적 논술의 결론을 이끌어 낸다. “논술은 미친 짓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논술을 위해서는 논술에 미쳐야 한다.”

과연 현실은 논술에 미쳤다. 서울대학교가 2008학년도 논술 강화 입시안을 발표하는 그 날부터 전국에는 논술 광풍이 불었고 지금은 아예 휘몰아치고 있는 형편이다.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태교로까지 논술 바람은 넓고도 깊게 그야말로 구조적 광풍으로 불고 있다.

논술의 반 공교육적 성격

논술이 입시의 당락을 결정한다.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논술은 사교육을 더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유리하다. 서울대학교는 사교육을 통해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논술 문제라 주장하지만 이 말은 그야말로 입시 논술적이다. 즉, 알팍한 논리적 사기이다. 서울대가 사교

육을 통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논술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전처럼 암기 위주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다는 말과 똑같다. 그렇다면 예전과 달리, 학원에서 암기 위주로 가르치지 않고 창의적 사고의 비법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고 이것을 정보 자원으로 삼아 고액 과외를 한다면 그것도 장기간의 고액 과외로 확실한 논술 합격을 보장해 준다면 어떻게 사교육을 통해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겠는가. 물론 첫해는 학원가에 노하우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노하우는 축적될 것이고 그 방법을 배운 학생과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한 학생이 시험을 치른다면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주장과 실제 현실이 다르다면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공교육에는 통합교과적 논술이라는 커리큘럼이 없다. 그럼 커리큘럼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통합교과적 논술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 것이냐. 가령, 인문계 열이라고 하자. 사회, 국사, 윤리, 국어 과목을 통합교과적 논술의 커리큘럼 안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말이 좋아 학제 간 수업이지 국내에 있는 유수의 대학조차도 학제 간 수업의 모형을 보여 주지 못한다. 커리큘럼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공교육이란 공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한다. 그런데 통합 논술, 입시 논술은 서울대나 연고대 등에 진학하려는 소수 학생만을 대상으로만 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논술인데 이것을 위해 전체 학생이 들리리를 서야 하는 것은 단지, 입시 교육의 효율성만으로 보아도 문제가 많다. 또 다른 방법으로, 네다섯 명의 교사가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 다른 학생들의 보충 수업을 제쳐 놓고 논술에 매달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공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은 뻔하게 내려진다. 통합 논술은 사교육에서만 가능하고 공교육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성격 자체가 이미 반 공교육적임에도 이것을 공교육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은 물을 퍼부어

공간적 제약과 경제적 제약을 동시에 뛰어 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되 모든 사고 비법이나 논술 강좌를 공유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불을 어떻게 지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선문답이라면 수십 년 동안 도 닦으면 풀릴 수 있는 화두겠지만 지금 당장 올해 그 방법을 생각하라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방안을 물을 수 있겠는가?

반 공교육적 통합논술에 공교육적 공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과 통합논술이라는 화두를 두고 교사는 화두가 아닌 현실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뒤집어 보자. 사교육적 방식으로 통합 논술을 풀어갈 수 있다고 했다. 즉, 소수 정예의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강사가 자신이 개발한 사고비법 내지는 배경 이론을 강의하고 마지막에 이를 통합하는 논술 연습을 시키고 첨삭지도도 한다. 물론 이런 수고 뒤에는 엄청난 수강료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공교육으로 전이시켜 보자. 먼저 공간적 제약이 따른다. 여러 교사가 한 교실에 들어가 통합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또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공간을 확보하고 소수의 아이들을 선별하여 여러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한 뒤, 이른바 강의료라는 것을 지불해야 하는데 소수의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 이 공간적 제약과 경제적 제약을 동시에 뛰어 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되 모든 사고 비법이나 논술 강좌를 공유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모든 자료를 공짜로 배포하고 자료와 관련된 사전 지식들은 전문 교과의 교사가 텍스트 형태의 해설서를 올리는 방법으로 공유한다. 학교 단위의 논술 사이트를 만들고 여러 선생님이 연대하여 이 사이트를 꾸려가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등재하게 하는 방법이다. 현재

EBS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고 있지만 인력의 부족 등으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교 단위의 논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련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조직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피드백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교육청 단위에서는 학교별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및 해당 교사의 교수 학습비 등을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데 공교육적 방식으로는 자꾸 통합논술 교육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교육적 방식은 무조건 된다는 믿음을 갖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사교육적 방식이 공교육적 방식보다는 통합 논술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런 노하우도 없이 무조건 학원이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가령, 첨삭지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첨삭지도의 경우 아직까지 띄어쓰기나 문장 구조 지도의 한계를 대부분 벗어나지 못한다. 다년간 학생들의 첨삭을 실제로 지도해 본 결과 첨삭 지도의 핵심은 사고력 지도에 있었다. 그렇다면 사고력 지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학생이 쓴 글의 구상을 역추적하고 구상메모를 추출한 다음, 그 구상 메모의 어디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해 주고 그것을 고쳐 쓰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할 때만 학생이, 논술에서 중요한 것이 사고력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부터 좀 더 오래 생각하고 그것을 구상으로 옮긴 다음 집필로 가져가는 능력을 보였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내용 창출을 위한 방법, 즉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을 창출하는 방법을 그 어떤 사교육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험에 나올 만한 배경지식이야 프린트로 대신하면 된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경지식을 강의하는 데 그치고 만다.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창출의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침삭지도(그것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로 동원해서 이룬 양적 침삭지도)나 배경 지식 강의만을 무기로 내세워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사교육의 현실이다. 말하자면 사교육이 통합 논술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지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로 사고의 비법이다. 논리적 사고를 넘어서서 자료를 통합해 내고 분석해 내고 대안을 창출해 내는 사고의 비법을 가르치는 자료가 정말로 통합교과적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공교육은 바로 이런 자료를 개발하는 데서 논술 교육의 출발점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한 사람의 천재성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나간 사람이 사고 비법에 대한 자료를 만든다. 이것을 공유한다. (이것을 쫄쫄 숨겨 교원 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학원에



사교육만 그런 것이 아니다. 현재 EBS 논술 교재, [사고와 논술]조차 철학과 교수들이 급조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논리 형식을 가르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참신한 내용 창출을 위한 사고의 비법은 말만큼 보여주지 못한다. 물론 연역 추리적 사고가 창의적 사고 창출을 위한 한 방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주제문이 연역추리적 사고로 그 근거를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말한 바, 인터넷 공간 활용 및 자료의 공유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공유할 자료의 질이다. 막연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공유하지 않음만 못하다. 정보의 쓰레기 더미를 하나 덧붙이는 자료라면 차라리 공유하지 않는 것이 낫다. 논술을 위한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

가서 돈 버는 것이 욱 털 얻어먹고 더 빨리 출세하는 방법이다.) 부족한 부분을 깎고 보태고 하는 일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한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좀 더 정교한 논술 사고 비법이 만들어진다. 즉 통합교과적 논술의 사고 비법을 리눅스적으로 축적한 자료가 날이 갈수록 세련되게 다듬어진다. 이런 자료를 논술이 필요한 학생이 공짜로 내려 받을 수 있게 할 때 공교육에서의 논술은 가능해진다. 반 공교육적인 논술이 공교육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 가장 공교육적 방식이며 가장 반 사교육적 방식인 쓸만한 자료의 공유에 있다는 사실은 또 다시 미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미쳐야[狂] 미치는가?[至]

광풍 잡기의 기본 원리

제갈공명이 현명했던 것은 바람을 잘 다스렸기 때문이었다. 적벽대전을 이긴 것은 북서풍만 불 때도 가깝씩 동남풍이 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논술은 북서풍도 아니고 동남풍도 아닌 광풍이다. 모두가 미쳐 날뛰니 광풍이요,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광풍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무리 광풍이라도 그 근원에는 기압차라는 것이 있고 기압차이라는 원리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광풍도 기압 차이를 해소해 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술이라는 광풍이 지닌 원리는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이다. 제 아무리 단독 과제형이니 자료 제시형이니 통합 논술형이니 해도 그것이 논술인 이상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근본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고 작용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논술을 지도하면서 발견한 창의적 비판적 사고의 비법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비교대조였다. 분석이나 정의, 역발상 등 창의적 비판적 사고의 근원에는 비교 대조라는 원리가 있었다. 물론 연역추리나 귀납추리의 규칙들이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생성해 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결정적 기여는 비교와 대조에 의한 창의적 사고의 생성이다.

가령, '밤 모기가 왜 불빛을 향해 오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연역추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곤충은 밤에 불빛을 향해 모여 든다. 모기는 곤충이다. 그러므로 밤 모기가 불빛을 향해 모여 든다.'는 동어반복식 형식 논리뿐이다. 그러나 비교 대조적 사고를 진행해 보자. '왜 곤충은 낮에 태양빛을 향해서는 오르지 않는가? 똑같은 빛인데 태양빛은 멀고 불빛은 가깝다. 태양빛은 평행으로 오고 불빛은 평행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에 곤충이 날개를 빛과 평행되게 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접한

다. 이제 밤 모기가 왜 불빛을 향해 오르는가에 대한 답변은 창의적으로 생성된다. 가까운 데서 오는 빛은 평행되지 않기 때문에 평행을 만들기 위해서 모기는 빙빙 나선형으로 돌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빛을 향해 모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답을 찾을 수 있다.

'거름'이 좋은 점을 세 가지 이상 분석하라는 질문을 받을 때 암기하지 않고 그것을 생성해내는 방법 역시 거름과 대조되는 '비료'를 가지고 와서야만 가능하다. '시의 특성'은 '소설'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 드러나고 '좋은 선생님'의 조건은 '나쁜 선생님'을 들고 와야 구체적으로 분석된다. '토론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토의'를 가지고 와야 하고 '여자의 신체적 특징'은 '남자의 신체적 특징'을 대조해야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8학년도부터 그렇게 중시된다는 통합교과적 논술도,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자료들을 통합하는 것을 원리로 하는 논술이다. 이 통합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비교와 대조, 그리고 확장된 비교인 유추에 다름 아니다. 비교 대조는 통합교과적 논술의 본질을 꿰뚫는 원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논리적 사고를 첨가하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을 형식적으로 타당성 있게 제시하는 논술능력은 저절로 완성된다. 비교와 대조와 유추력을 동원해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을 생성하고 이를 논리적 사고로 이어가는 것이 통합교과적 논술의 실체이다.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창의적 비판적 사고 생성의 사고 비법을 더 많이 마련하고, 마련된 사고 비법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이것을 공유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적인 사교육적 독점에 대응하여 리눅스적인 공교육적 공유를 이루어 낼 때만이 입시 논술에 편향적으로 미친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미친 현실을 넘어 보편적인 이성과 개성적인 감성이 꿈꾸는 그야말로 통합적인 현실에 가 닿을 수 있다. 



논술의 시장, 시장의 논술

| 글. 조동기 조동기논술학원 대표 원장 || cdg0@chol.net |

우리나라의 논술역사도 이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논술시험의 방식도 여러 번 바뀌었고 대학별 논술문제의 패턴 또한 다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학이 출제하고 대학이 평가하는 이상 논술시험에 대한 엄정한 관리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공교육 단체들은 지나치게 논술문제의 난이도를 놓고서만 티격태격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논술은 '불안산업'

소설가 김영하는 요가,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처럼 프로그램의 내용보다도 소비자의 결심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분야를 '결심산업'으로 분류한 바 있다. 김영하의 분류기준을 따르자면 한국의 사교육시장 또한 당연히 '결심산업'의 영역으로 분류됨이 마땅해보인다. 어찌되었거나 성적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본인의 결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렇지만 한국의 사교육 시장을 직장인의 어학공부와 유사한 '결심산업'으로 분류하기에는 약간의 주저가 따른다. 그 이유의 하나는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결심인구의 비중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지독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결심의 강도와 그 결과가 직

접적인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결심과 결과의 불일치는 불안 심리를 가중시킨다. 요가와 다이어트, 그리고 직장인의 어학공부가 진정한 결심산업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결심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쩌면 '자신의 결심' 보다도 '남들의 결심' 일 가능성이 더 높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남들이 더 모질게 결심한다면 결과는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결심의 강도'에 대한 경쟁은 당연히 불안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강화시킨다. 결국 남들이 결심하면 나도 결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이 불안한 심리 덕분에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사교육 시장의 불안심리가 낳은 대표적인 분야가 이른바 '논술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논술이 대입의 당락을 좌우한다는 경쟁적인 보도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사교육의 논술 시장은 이미 후끈 달아오른 상태였다. 표면적으로는 논술시장에 대한 우려와 논술학원에 대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던 언론사들도 대부분 논술공부와 관련한 지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태였고 대입논술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중등논술, 초등논술이라는 신종 용어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지 오래였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교육은 이상하리만치 논술을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논술은 2008년도도 통합논술 시행 이전에도 대입합격의 상당히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교육은 여전히 논술의 시행여부에 대한 입씨름과 논술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불평만을 늘어놓았을 뿐, 환경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공교육의 이러한 태도는 '남들의 결심'이 중요한 '불안산업'에서 논술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는 데 일조를 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결국, 불안한 소비자들이 경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사교육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교육은 논술의 강자가 아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교육은 생각만큼 논술의 '고수'가 아니다. 시장은 이미 흥분상태에 돌입했지만 사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전통적인 주제중심의 강의 위주로 짜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기 위해서 학원들은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대부분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우가 많다. 논술시행의 역사가 열추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학원 쪽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사실상의 질적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논술이라는 상품의 피드백 문제와 관련이 있다. 논술은 현재 정규과목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의 논술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는 대학입시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초등부터 고등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논술학원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A라는 학생의 논술실력은 대학입시를 보는 시점에 가서야 가까스로 밝혀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최종 승부가 최초의 검증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느슨한 피드백의 압력은 프로그램의 강화보다는 불안 심리의 자극을 통해서 시장을 유지시키려는 전략의 선택을 강화시킨다. 시장의 구조가 사교육을 논술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개선이나 학생들의 능력성장에 따른 단계별 지도를 강제하기보다는 그저 강의하고, 독서를 강제하고, 쓰게한 후 침묵하는 동일한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논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기대할 수 없는 학부모들 또한 질적 부분보다는 양적 결과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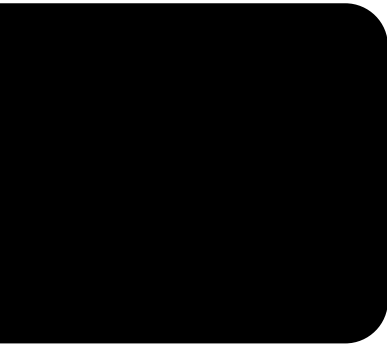
공교육은 여전히 논술의 시행여부에 대한 입씨름과 논술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불평만을 늘어놓았을 뿐, 환경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비자들의 양적 결과물에 대한 요구는 역설적으로 사교육의 안이한 시장대응과 공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의미에서 논술은 '미심쩍은'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쉬운 말로 하자면 논술학원을 보내기는 보내야겠는데 - 불안 심리의 출발점 - 내 자식이 논술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논술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러한 미심쩍음에 대해서 상당수의 논술전문 학원들은 실전논술의 강화라는 안이한 방어책으로 일관해온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최종승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편견과 학원형 논술에 대한 오해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누가 뭐래도 논술은 시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백일장의 경우, 수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은 모두 평등하게 취급된다. 그렇지만 논술시험은 참가자 전원의 점수와 석차가 매겨지고 결과에 따라 대입당락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출제자이자 채점자인 대학 측에서도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혹은 "결국은 최종승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도 지금부터 실전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만 합니다." 물론 사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논술학원들끼리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논술이 다른 분야나 과목에 비해서 피드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주로 수시 1,2학기나 수능 이후에 반짝했던 논술수요의 폭증은 학원들의 프로그램 또한 단기적인 형태로 운용하도록 부채질했다. 결국 상당수의 학원은 최소한 고교 1학년에서 고교 3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의 논술능력의 발전단계에 맞는 단계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말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논술능력이 하루아침에 향상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원에 맡겨주신다면 단기간에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논술시장에서 사교육은 생각만큼 강자는 아니다.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평가도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평가도 객관적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평가자 간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창의력'이라는 논술시험의 엄연한 평가항목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이해력', '분석력', '비판력', '표현력'이라는 여타 항목과는 달리 유독 '창의력'이라는 항목만큼은 평가자 간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평가의 과정에서 '창의력'은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최근 모 대학에서 '창의성'을 '수렴적 창의성'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진정한 독창성'이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전혀 일토당토하지도 않은 발상을 시도할 때 나온다. 그러나 이러

한 '진정한 독창성'을 수험생에게 기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게다가 시험이라는 구조상 자칫하면 '논리적 비약' 등을 이유로 치명적인 감점을 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흔히 창의적인 논술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학입시의 관점에서 볼 때, 논술로 대역전을 기대해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지나치게 독창적인 논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이 분명 논술의 강자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존립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대학입시의 평가시스템을 요령 있게 터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언론이나 세간에서 선정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논술학원에서 이른바 '학원형 글쓰기'만을 강제한다는 생각은 '학원 다녀와야 논술실력 늘지 않는다.' 혹은 '학원 다니면 오히려 논술점수를 깎아먹는다.'는 식의 억지논리를 퍼뜨리기 위한 '불편한 선동'에 불과하다. 선동가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일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것보다는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논술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열 번 쓰는 사람이 아무래도 실력이 나은 것은 자명한 이치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논술실력이란 막연하고 추상적인 실력이 아니라 명백하게 대입논술의 채점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다. 설사 선정적인 발언의 내용처럼 일부 학원에서 획일적 글쓰기나 암기형 글쓰기를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시장의 자정기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방출되고 말 것이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바보처럼 자신들의 지갑을 함부로 열지 않는다. 따라서 2006년 서울대에서 발표한 '학원형 논술'에 대한 감점방침이나 혹은 학원의 논술교재에서는 절대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는 식의 정치적 발언은 현실적으로 사교육 논술시장의 이상 비대증세를 줄이는 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다. 대학은 근본적으로 정의 자체도 모호할 수밖에 없는 '학원형 논술'이라는 수사를 사용하고 게다가 학원교재에서는 절대로 출제하지 않겠다는 식의 무리한 엄포를 남발하기보다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교육의 논술시스템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논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논술역사도 이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논술시험의 방식도 여러 번 바뀌었고 대학별 논술문제의 패턴 또한 다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학이 출제하고 대학이 평가하는 이상 논술시험에 대한 엄정한 관리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공교육 단체들은 지나치게 논술문제의 난이도를 놓고서만 티격태격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문제의 난이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문제의 정합성이다. 수능시험의 복수정답에 대한 인정발표는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만 논술문제의 정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물론, 논술이라는 시험의 특성상 명확한 답안이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렇지만 문제 자체의 정합성 여부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지금도 대학별로 자체적인 출제의도 및 평가기준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대단히 추상적인 입장정리의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게다가 채점 이후의 과정에 대한 피드백은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출제의도와 평가기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답변은 어떠한 경향성을 띠고 있었는지, 학생들의 표현력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특히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성의 있게 밝혀주는 것이 논술교육을 발전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대학에서는 논술시험의 채점 이후에 최우수답안 등의 공개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현재 논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요인은 어쩌면 대학에 있을지도 모른다.

공교육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아마도 공교육이 논술과 관련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이상과열증세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공교육에서는 논술을 전담하는 선생이 없다는 푸념을 자주 한다. 따라서 논술교육을 하기도 어렵고 설사 어렵사리 논술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

으로 논술만 연구하는 학원 강사들을 당해내기 어렵다고도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전담교사의 문제는 교육부의 발표내용처럼 논술을 정규과목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전문성 여부 또한 개인의 성실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교사들 간의 협조체제 구축, 대학과의 연계강화, 그리고 사교육의 노하우 습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일들이 말처럼 쉽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이른바 논술시장의 이상과 열현상에 대해서 그동안 공교육 쪽의 무관심한 태도가 일조한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논술 또한 갑작스레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학생들의 논술패턴을 분석해보면 사고력과 표현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처음에는 따로 놀다가 논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결합되어가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쉽게 말하자면 처음에는 ‘머리 따로 손 따로’ 놀다가 나중에는 머리와 손이 결합한다는 것이다. 물론 속도의 차이나 결합의 수준 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는 일정 수준의 훈련을 통해서 사고력과 표현력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훈련은 가급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사고력과 표현력의 결합수준의 개인별 편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논술수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첫째는 연속적인 논술수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교육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둘째는 수준별 반구성과 소규모 수업이 유리한 사교육 쪽에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교육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당분간 사고력과 표현력을 일치시키는 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볼 때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은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공교육이 잘할 수 있는 지점에 주력하면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른다.

논술시장의 과대팽창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그에 걸맞는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불안 심리의 수혜자로 만족한 것이 사실이다. 공교육은 논술이 이미 대입시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면 아닌 외면을 해온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출제자와 채점자의 위치에 있는 대학 또한 잦은 문제패턴의 변경과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의 문제 출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및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논술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부추겨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른바 ‘주인 없는 기표’만 떠돌아다니고 이 기표를 선점하기 위한 서로의 혼란스러운 목소리들만이 난무할 때 시장은 과열되게 된다. 애당초 과열을 부추길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논술’이라는 용어야말로 이러한 ‘주인 없는 기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태생적으로 불안이라는 시장상황에 민감한 사교육은 너도나도 통합논술의 강자임을 자처했다. 공교육은 기존의 논술도 힘든 판에 통합논술을 무슨 재주로 하나며 볼멘 목소리를 냈다.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통합논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분주히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고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통합논술의 가이드라인을 고수하기 위해서 오히려 분위기를 들뜨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결국 통합논술은 실체도 없는 상태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 심리만을 잔뜩 자극한 채 마침내 올해 그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제시문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된다고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통합논술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논술은 시험이고 제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해서 ‘남들과의 경쟁’이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통합논술의 시행 첫 해를 맞이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교육의 논술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도 태도를 바꾸어서 사교육과의 부분적 제휴 등을 비롯한 논술역량 강화에 매진하여야 한다. 공교육 쪽에서 논술수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사교육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교육 또한 소비자들의 눈길이 머무는 한, 불안이라는 동력원의 펌프질을 멈추지는 못할 것이다. Y



논술 교육 및 평가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

| 글. 이도흠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ahurum@hanyang.ac.kr |

논술을 통해 형성하고자 하는 인간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을 성찰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자기 앞의 세계와 현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에 담긴 모순을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 타당한 대응이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논술의 목표다.



1.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술의 의미

논술은 작문도 철학도 아니다. 논술은 간단히 말하여 자신의 의견, 또는 진리라 생각한 것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언어기호를 빌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것을 “나와 세계, 또는 그 관계에 대하여 객관과 주관을 종합하여 창의적·합리적·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자 그렇게 사유하여 형성한 나의 세계를 일정한 형식에 담아 언어기호로 올바르게 표현하고 전달하여 타자가 나의 세계를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자 소통을 통하여 상대방의 세계 또한 수용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말과 글을 매개로 한 실천적 소통행위”라고 정의한다.

논술을 크게 읽기와 쓰기로 나눌 수 있다. 나, 나의 앞의 세계를 읽고 사고하는 것과 이것을 글로 표현하는 두 분야를 결합한 것이 논술이다. 논술은 나와 세계, 그 관계에 대하여 객관과

주관을 종합하여 창의적·합리적·비판적으로 읽는 것이다. 논술은 우선 나를 읽는 데서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탐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나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기에 나에게 대한 질문은 곧 우리로 확대되고 이는 소속 집단, 한국인, 인류로 다시 확대된다. 진리는 허위와 관계 속에서 진리이기에,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로 이어진다. 나의 행동은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기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지금의 맥락에서 내가 한 행동은 올바른 것인가?”로 전이한다.

내 앞의 세계는 의미의 덩어리다. 아니, 내 앞의 세계는 읽으려 하면 읽을수록 의미를 드러낸다. 내 바로 앞의 책상과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에서 매일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의문의 대상이고 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메시지를 던진다. “왜 하늘은 푸르고 꽃은 저리도 아름다울까?”에서부터 “왜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일까?”, “왜 세상은 평등하지 못하여 가난한 자와 굶주리는 자가 있는가?”에 이르기까지 의문은 끝이 없다.

내 앞의 세계와 나는 깊은 연관에 있기에 양자는 결합한다. 그래서 “나는 왜 부자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을 하며 공부하는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는 나의 사고와 정서에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형성하고 있는가?”, “사학개정법은 내가 지망할 대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한미 FTA협상은 나와 한국인의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질문을 낳는다.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할 때 주관과 객관이 섞인다. 때로 주관적인 감정에 휩싸여 선부르게 읽고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차분하게 논술을 할 경우, 대개 객관적인 논거와 사실을 모은 다음 이에 주관을 투여하여 충분히 분석한 다음,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종합하여 읽고 결론을 내린다.

주관적인 판단에는 그가 살아온 삶과 성향과 성격, 사상과 이념, 지향성, 무의식 등이 관계한다. 이것은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에만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와 경험, 읽은 책이나 교육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지혜, 시행착오를 통한 정신적, 육체적 각성이 주관을 형성한다. 우리는 이 주관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종합하여 인식하고 판단한다. 전지를 잘하려면 주변의 사소한 문제나 대상, 일상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에 대해 평소 진지하게 사색하고, 모자라다 느끼면 그에 관련된 책을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거꾸로 책을 읽고서 그에서 느낀 바나 읽은 메시지를 자신의 삶이나 주변 대상에 대입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후자를 잘하려면 사실 가운데 진리와 허위, 그 주제에 필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고 진리와 주제에 관련된 것만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훈련, 같은 사실을 놓고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고 토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읽고 판단한 것과 이를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늘 좋은 필자는 아니다. 먼저 대상에 비추어 글의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형식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이 형식에 맞게 논리적인 구성을 해야 하고, 논거를 통해 조리 있게 논증하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넘치지도 남지 않게 기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다분히 기술과 훈련이 필요하다.

논술을 통해 형성하고자 하는 인간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을 성찰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자기 앞의 세계와 현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에 담긴 모순을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 타당한 대응이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논술의 목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아직 비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교육이 인격의 도야나 지혜의 습득과는 별 관련이 없이 행해지기에 더욱 논술, 혹은 논술을 통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인간 형성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멀쩡한 다리와 백화점이 무너질 정도로 비합리적이다. 왜 멀쩡한 다리와 백화점이 무너졌을까? 건설회사와 관료들의 부조리, 정경유착, 권

현재 한국 사회는 아직 비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교육이 인격의 도야나 지혜의 습득과는 별 관련이 없이 행해지기에 더욱 논술, 혹은 논술을 통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인간 형성이 필요하다.

위적인 정부의 유산 등도 작용하였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합리성'이란 것이 한국사회에 보편적인 원리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직경 몇 밀리미터의 철근을 깔아야 건물이 유지된다." 라는 합리성보다 더 지배하는 것은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일을 앞당기자는 억지거나 적당히 눈속임하고 거기서 나오는 떡고물을 먹자는 더러운 탐욕이다. 이를 감시해야 하는 관료나 기관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 곳만 합리성의 잣대를 유지했어도 삼풍백화점은 무너지지 않았다. 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갑'이나 '통밥'에 더 의존하여 '대충' 처리하고,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인다. 회사, 관공서, 학교에서 논리보다 목소리 큰 사람의 말, 사람의 능력보다 연줄과 권력이 더 힘을 얻는다.

합리적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고부간, 사제간, 선후배간, 상하 직원간, 장교와 졸병간, 관료와 서민간, 심지어 언론을 통해서도 합리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권위만 하달되거나 강요되고 있다. 심지어 수평구조라 할 부부나 연인, 친구 사이에서조차 소통보다 권력이 앞선다. 이 사이에서도 여자보다 남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보다 높은 자, 나이가 적은 자보다 많은 자가 권력을 갖기에 전자가 후자에게 우정이나 사랑어린 비판을 하자면 관계 악화를 각오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안은 교육이지만 현재 한국 교육은 파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 모두가 입시 경쟁의 전사들이자 희생자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교육을 통하여 인격을 함양하고 삶의 지혜를 습득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대응 능력을 기르지 않는다. 타자나 자연과 공존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한다. 오로지 명문대나 자기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몸과 정신을 불사르고 이 대열에서 낙오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증오심과 소외감, 좌절감만 키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저당 잡힌 채 학교와 학원과 독서실을 오간다. 학교는 더 이상 배움의 터전이 아니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내신 점수를 따고 졸업장을 받기 위해 다니는 정거장이다. 선행학습은 마약,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사전에 봉쇄한다. 그러니 더 배우면 배울수록 아이들의 학력은 저하하고 인격은 상실되는 악순환이 심화한다. 교수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요즘 대학생들의 학력이 점점 떨어져서 예전의 강의를 진행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문사회계 대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세상을 산 탓에' 개념적 사고를 거의 하지 못하여 이론 강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자연과학계 대학생들은 수학의 기초가 튼실하지 않고 자율적인 문제풀이 능력이 없어 그것부터 다시 가르친 다음에 진도를 나가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이는 명문대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창의력, 자율적인 문제 해결능력, 지혜 습득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인격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데 수조원의 사교육비를 낭비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진정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 바깥에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한국이 학력이나 연줄보다 능력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몇몇 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의 입사시험이나 승진 시험에서 학력을 철폐하고 능력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사회를 만들어 대학을 가지 않고도 성공하고 상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서울대를 대학원만 남기고 해체하여 파리 1대학, 2대학 식으로 분화하여 지방의 거점 대학이 되게

하고 그 밖의 대학은 단계적으로 특성화하여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의 제안과 실천과정에서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수행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대안도 미봉책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손을 놓을 수는 없다. 미봉책의 대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거창 '21세기 교육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21세기에 부합하는 창의력, 소통능력, 인문정신과 예술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혁신을 가하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교과서 개편, 학원을 공

고3이고 논술이 중급 이하라면 할 수 없이 학원에 보내라고 권한다. 하지만 아이가 고 1, 2 학년이거나 고 3학년이라도 논술을 잘할 경우 절대 학원에 보내지 말라고 한다. 선생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수준에 맞는 교양서적 목록을 정한 후 친한 아이들 대여섯 명이 그룹을 만들어 읽고 쓰고 서로의 생각과 글에 대해 토론하면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 스스로 읽고 책에 담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한다. 처음엔 어렵다고 생각한 책들, 아무런 의미가 떠오르지 않던 책들도 한 번 더 읽거나 책을 덮고 잠시



교육의 보조 기관으로 국한하는 다양한 제도의 입법화도 필요하며, 아울러 지방 토호들이나 특정 종교집단에 의해 설립된 대학 중 비리의 온상인 대학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술 교육 또한 이 과정에서 주입식,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이다.

2. 논술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

그럼 어떻게 논술을 교육할 것이고 대학은 이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입시 설명회에 가서 학부모들로부터 논술을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받으면 아이가 몇 학년이고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냐고 되묻는다.

생각하면 누구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약간의 수준 차이가 있어 제대로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 학생들도 친구와 토론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의미를 깨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각자 글을 써선, 어휘, 문장, 논리, 구성 등의 면으로 나누어 상대방 글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거의 적절성, 논리의 오류, 비판의 타당성, 대안의 창의성 등에 대하여 말하다 보면 저절로 모두가 좋은 글을 쓰게 된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은 논술에도 통한다. 모든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세계를 제대로 읽고 이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한다. 나는 학교에서 이런 독서 모임만 활성화하고 선생이 정기적으로 약간의 지도나 중간점검만 해주어도 한국 교육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본다.

그럼 대학은 논술에 대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현재 대학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논술을 실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내신과 수능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창의력, 비판력, 논리력을 평가하여 이 분야에서 수월성을 보이는 인재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믿을 수 없어 논술을 통해 한 번 더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덧붙여,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여 각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학생들 스스로 읽고 책에 담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한다. 처음엔 어렵다고 생각한 책들, 아무런 의미가 떠오르지 않던 책들도 한 번 더 읽거나 책을 덮고 잠시 생각하면 누구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부합하는 수험생을 선정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여기서 논술을 대학의 기능과 관련시켜 해석해보자. 20세기 대학의 기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리의 탐구와 전달의 기능이다. 대학은 진리욕의 실천 도량이다. 대학은 직업훈련소나 기업의 연수원이 아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은, 그 구성원들이 순수한 영혼과 뜨거운 열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이를 통시적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공시적으로는 대학 바깥의 사회에 전달하여 사회와 조국의 발전,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진보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중세 절대 왕정의 시대에서도 대학만큼은 왕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없는 치외법권의 지대였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거의 모든 이들이

한 국가의 대학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논술이 이런 대학의 기능과 부합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논술은 지식보다 지혜를 알려주고 허위와 치열한 논쟁을 통해 진리를 판별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기능과 부합한다. 지금처럼 신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한국 대학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시장화하는 상황에서 논술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논술교육마저 거치지 않아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주입식으로 암기한 지식 너머의 진리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미적분을 모르는 학생에게 대학수학을 교육하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논술은 21세기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사회봉사의 기능과도 부합한다. 학생들은 논술을 통해 진리와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배움은 물론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과 모순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더구나 이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회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비전을 품을 수 있다. 7, 80년대의 많은 대학생들이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책을 읽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직시하였고, 이에서 그치지 않고 몸을 던져 조국의 민주화와 정의로운 발전을 꾀하였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논술 시간을 통해, 대학에서는 이와 연계된 교양교육을 통해 인격의 도야,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의 함양,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수성의 혁신 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3. 대학 논술의 올바른 지표

그럼 대학 논술은 위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다. 논술의 취지나 의의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조차 논술 축소론이나 폐지론에 동조하는 이유는 대개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논술 채점을 담당하는 교수조차 대략 과

반수 가량이 채점의 공정성에 회의적이고, 심지어 “글씨를 잘 쓰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논술을 100% 객관화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크로체는 예술이란 복잡하고 심오한 것이기에 이를 어떤 일정한 범주나 틀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예술을 부정하는 행위라 하였다. 우리는 크로체를 이해하면서도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미학이나 예술이론 등을 만들어 예술에 대해 뭐라 말하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평가한다. 논술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대학의 언론고시반의 논술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잘한 점을 알려주고, 내 관점에서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면 하는 점만 알려주었지 점수를 매기지는 않았다. 논술에 객관화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으며 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논술의 의의를 살리는 길이다. 답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교수 또한 다양한 가치관과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차이는 어느 정도 유용하다. 답안지에서 주관적인 영역마저 100% 객관화하지 않는다고, 채점 교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논거로 채점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논술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주관과 객관을 종합할 것인가. 주관적인 영역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점수로 환산하며, 채점 교수들의 평가기준을 객관화하면서도 그들의 차이를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한양대의 예로 설명하겠다. 한양대의 경우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출제교수들이 출제장에서 퇴소하기 전에 모범답안과 출제의도, 채점기준 등의 초안을 작성한다. 입시 다음 날 출제 교수들은 모여 학생들의 답안 중 일부를 뽑아 가채점을 한다. 가채점을 통해 출제 교수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모범답안, 출제의도, 채점 기준 등을 수정한다. 가채점 후 90점대에서 60점대에 이르기까지 약 20여종의 답안지를 채점교수 숫자대로 복사한다. 채점교수는 문제에 대한 이해력, 집중력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만 45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교수층에서 인력풀을 만든다. 출제 둘째 날 출제 교수들이 채점교수를 대상으로 논술 문제의 의미, 지문에 담긴 사상, 출제 의도, 채점 기준 등에 대하여 오전 내내 강의를 하여 채점교수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게 한다. 그리고 그 전 날 복사한 답안지 복사본을 5종씩 나누어 주고 각 교수별로 채점을 하게 한다. 그런 후 출제위원장이 각 답안지에 대해 이 답안지가 왜 90점이고 저 답안지는 왜 70점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렇게 채점교수들이 어느 정도 ‘영점 조준’을 하게 한 후 다시 5종의 답안지 복사본을 주고 다시 채점한 후 설명을 한다. 이런 후 나머지 10종을 나누어 주고 각 조별로 다시 채점을 하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교수들의 평가기준이 상당한 수준에서 객관화한다. 설사 평가기준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 장치를 두어 다시 객관화한다. 하나는 한 답안지에 대해 세 사람이 채점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그 수험생의 최종 점수로 하되,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 차이가 7 내지 10점 이상일 경우 그 답안지에 대해서는 다시 채점한다. 이렇게 하면 교수들의 가치관, 글을 보는 관점 등의 차이를 7 내지 10점 차이에서 인정하는 선에서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다. 또 수험생의 답안지를 모집단위별로 묶어 한 조가 끝까지 같은 모집단위의 수험생을 채점하게 한다. 특정 교수의 채점 기준이 상대적으로 후하거나 박하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없게 하려는 의도다. 마지막으로 출제교수들이 각 조의 조장이 되어 각 조의 답안 중 채점교수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며, 이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출제위원장이 조정한다. 더불어 집중력을 유지하고 글씨의 호오(好惡)에 따라 점수가 좌우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하루에 채점 할 수 있는 양을 200장으로 한정한다. 채점 후 문제와 모범답안, 채점기준을 인터넷 상에 공개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할 경우 채점을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의 기능과 논술을 결합하면서도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각 대학이 인재를 선점하



답안지에서 주관적인 영역마저 100% 객관화하지 않는다고, 채점교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논거로 채점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논술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일정 수준의 학생을 뽑아 각 대학의 이념과 인재상에 맞게 잘 교육시키겠다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발상의 전환을 하면 모든 대학이 공동으로 한국 고등학생들을 전반적으로 똑똑하게 만들고 이들 학생들을 대학에서 받아 더욱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지금의 상황은 논술마저 학원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입식으로 외우고 반복학습으로 쓰기 훈련을 하게 만들어 고등학생 전반의 학력 수준을 떨어뜨리고 난 후 그 중에서 똑똑한 몇몇을 자기 대학이 뽑겠다고 난리를 치는 형국이다.

전에 서울 시내 중요 7개 대학의 논술 출제 교수 대표끼리 만났을 때 필자가 제안한 대안을 여기서 다시 제안한다. 각 대학이 공동으로 고등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단계별로 그 책을 읽고 토론하도록 하고 문제 또한 그 책에서 공동으로 여러 문제를 출제하고 각 대학이 대학의 이념과 인재상에 맞게 문제를 선택하여 입시를 치르자는 것이었다. 이런 방안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고등학생들이 주입식 입시 교육에서 떠나 좋은 책을 읽으며 인격을 도야하고 세계와 타자를 보는 눈을 길게 하리라 본다. 대학끼리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일부 대학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대안은 대학의 교양강좌를 논술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논술을 통해서 얻을 지식과 대학생이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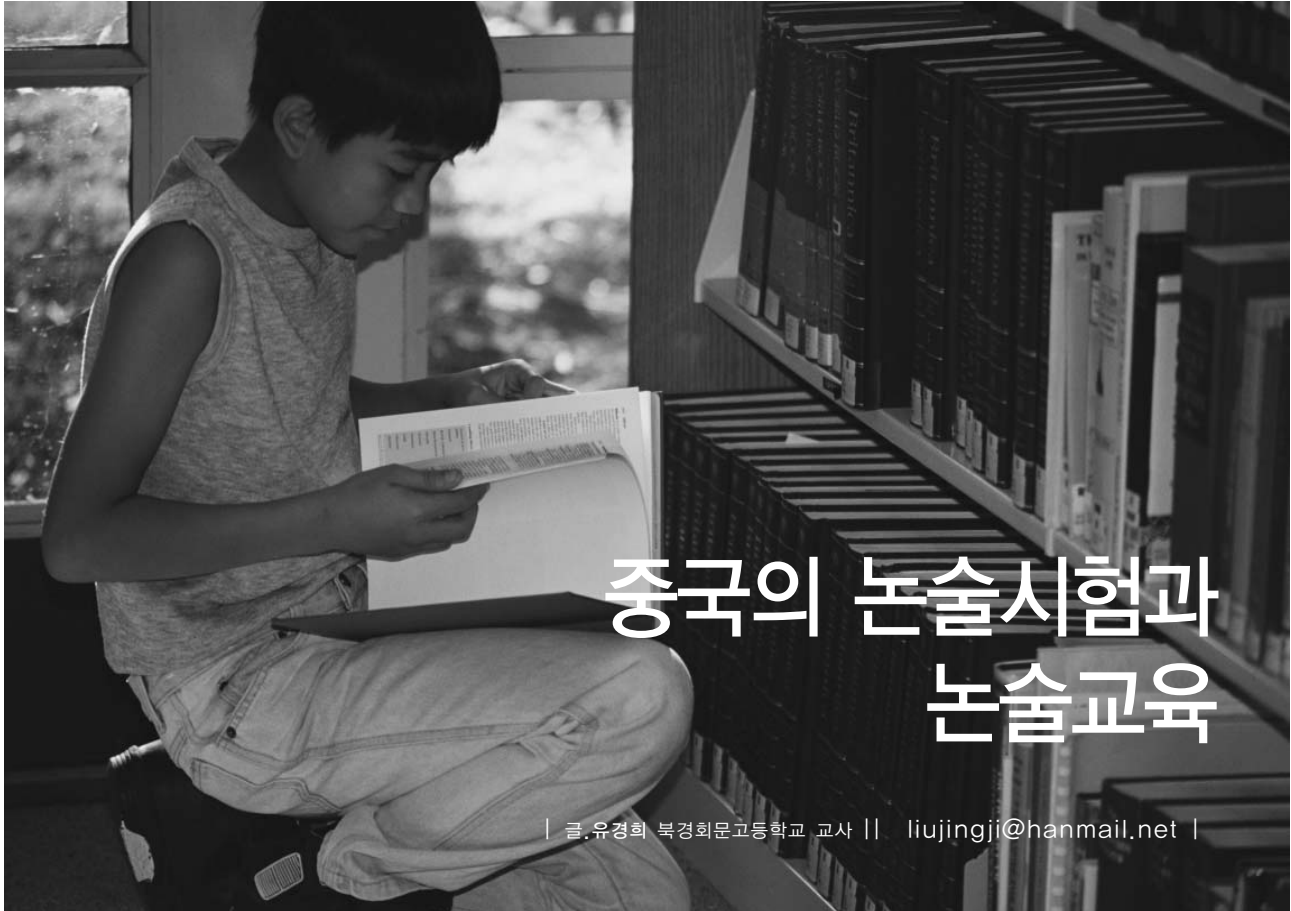
학의 교양교육을 통해서 습득해야 할 것 사이에 수준 차이는 있을지라도 내용의 차이는 크지 않다. 대개 자신의 인격을 함양하는 것, 우리 역사와 문화, 사상에 대한 것, 인류의 역사와 사상의 흐름을 아는 것, 다양한 예술을 보는 눈,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것, 21세기 새로운 문화와 학문의 흐름을 아는 것,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적 사고, 첨단 과학의 양상, 환경과 생태, 21세기 디지털 사회의 양상, 인류의 미래' 등일 것이다. 이런 주제들은 논술의 중요 주제이자 대학 교양 강좌의 주요 강의 요목이다. 또 이들 강좌를 강의하는 교수들이 대개 출제교수들이다. 대학이 논술과 관련되는 교양강좌 중 일정 부분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고등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대학의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길이자 대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필자가 다른 지면에서 언급한 글을 다시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교육이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내재한 부처, 곧 다른 이들과 자연을 비롯하여 내 밖의 수많은 타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교육은 나 혼자만의 깨달음도, 내가 피교육자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것을 전해주는 것도, 상대방을 의식화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로 가 그의 시선과 눈높이에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를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해 다시 나를 깨닫는 행위이다.” 논술 또한 마찬가지다. Y

特別企劃

특별기획 ② 세계의 논술교육

- 중국 - 중국의 논술시험과 논술교육 유경희 | 북경회문고등학교 교사, liujingji@hanmail.net
- 미국 - 미국의 논술 교육 조석희 | (前)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seokhee@kedi.re.kr
- 독일 - 독일의 논술교육과 독서교육 권미연 | 힐레대학교 박사과정, 삼락중학교 교사,
miyun65@hanmail.net
- 영국 - 영국의 통합논술 최봉섭 | 비컨리서치 대표, choi@brcu.com
- 프랑스 - 프랑스의 논술교육과 바칼로레아 배수옥 | 경기도의회 교육전문위원, sobae67@hanafos.com



중국의 논술시험과 논술교육

| 글. 유경희 북경회문고등학교 교사 || liujingji@hanmail.net |

중국은 1977년 대학입학 통일고사를 회복한 후, 10여 년간 수험생들이 전국 전역에 걸쳐 똑같은 시험지로 대학시험을 치르는 시험 제도를 실시해왔다. 1987년 상하이에서 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자주적으로 출제를 한 후를 이어 2002년에는 북경지역에서, 2004년에는 9개 성 지역에서, 2005년에는 11개 성 지역에서, 2006년에 이르러 16개 성의 전국 2/3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본 지역에서 출제된 시험지로 시험을 치렀다. 대학학생모집 지역할당제의 실시는 전국적인 지역범위에서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중국의 경제발전과 교육발전의 지역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균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지역별 자주적인 출제제도를 추진하여, 각 지역의 교육이 자주성과 다양성을 띠게 하였다.

CHINA

중국의 대학입학 통일고사 과목은 다수지역이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이 각 각 150점을 차지하고, 종합과목(문과종합: 역사, 지리, 정치, 이과종합: 물리, 화학, 생물)이 300점을 차지하여 총점 750점이 만점이었다. 종합과목 점수 비중은 교육과정에 규정된 수업시수를 근거로 정해진다. 통일고사에 별도의 논술시험이 없지만 종합과목 시험지에 논술문제의 비중이 160점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입 논술문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간단히 물음에 답하기와 주관식 논술이다.

문제 예시

〈간단히 물음에 답하기〉

문제1 (상해시 2006년 추계 역사부분 기출문제)

1776년 7월 4일에 통과된 미국의 독립을 선포하는 “독립선언”에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평등하며, 조물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중에는 생명,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를 설립하는데, 정부의 합법적인 권리는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온다. 어떤 형식의 정부이든지 이러한 목적을 무시하면, 국민은 이러한 정부를 바꾸고, 폐지하여, 신정부를 설립할 수 있다. 신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다른 권력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독립선언을 인류역사상의 첫 번째 인권선언으로 일컬었다.

물음 1: 자료분석에 근거하여 영국이 북아메리카에 대한 통치는 합법적인지 여부를 대답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라.

물음 2: 문제에서 정부의 합법적인 권리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독립 후, 미국 “정부의 합법적인 권리”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물음 3: 독립 후의 1세기동안, 미국정부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평등하다는” 것을 보장하였는가? 그 이유는?

물음 4: 독립선언에서 제출한 기본원칙은 미국이 현대화 국가로 되는데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문제2 (2004년 산둥, 산서지역 정치부분 기출문제)

우리 나라는 300만 평방키로미터의 국토를 갖고 있는바, 이는 중화민족이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며,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자료1: 2003년 전국해양산업 총 생산액은 처음으로 만억 원 (10077.7억 원의 인민폐에 해당)이라는 대관을 돌파하였는데, 비교가격으로 산정하면 전년도보다 9.4% 성장한 것이다. 동기 국민경제 성장속도보다 높은 성장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한 것이다. 이미 배운 경제학 상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의의를 분석하라.

〈주관식 논술 - 자료분석 논증문제〉

문제 1. (2006년 추계 상해 지역 역사부분 기출문제)

이미 배운 지식과 자료에 근거하여 “문명시야 하의 국가 부강의 길”이라는 주제로 역사논문 한편을 쓰라. 정치, 경제, 사상문화 등 다양한 시각으로, 일개 국가 또는 어느 역사단계, 어떤 사건 등에 대한 논술을 하라.

요구: 1. 문장은 반드시 주제를 둘러싸고 전개해야 하되, 소재목을 추가한다.

2. 논점은 자료 실증이 있어야 하며, 본인의 결론이 있어야 한다.

3. 논술이 분명하고, 문장이 순통해야 한다.

4. 참고문헌을 나열해야 한다.



문제 2 (2006년 북경지역 정치부분 기출문제)

“중공중앙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관련 제11개 5개년 계획”에서는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평을 더욱 중시하여 모든 국민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물음 (1) 공평은 “기회의 공평”과 “결과의 공평” 등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기회공평”은 시장 주체간의 평등한 경쟁지위를 강조하는바, 이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인다. “결과의 공평”은 국민에 대한 수입분배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시킨다. 아래 도표 속의

평성 축구에 기반을 마련 한다. 공평은 사회안정에 유리하며, 이는 또한 효율 제고에 기반을 마련한다. 중등발전 수준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생산력을 적극 발전시키면서, 효율 성을 간과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빈부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빠르고도 좋은 경제사회의 발전을 실현한다.

물음 (2) 자료 1과 자료 2를 결부하여 모순에 관한 분석 방법으로 효율과 공평의 관계를 어떻게 정확히 인식하고 처리할 것인지를 설명하라.

물음 (3) 어떤 사람이 “공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조 치	기회공평	결과공평	이 유
예: 무단복사 등 불법경영행위 단속			지식저작권을 보호하고, 시장경제의 법제성을 유지하여, 공평한 시장환경을 마련함.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 기준			
비공유제 기업이 항공, 은행 등 독점성 업종으로 진출			
빈곤지역에 차등혜택의 산업정책 조치를 취하여, 외자투자를 유치하는 것.			
취업정보 시스템을 마련하여, 채용기관과 구직자 쌍방이 서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조치가 “기회의 공평” 을 촉구하는데 편중하는지 아니면 “결과의 공평”을 촉구하는데 편중하는지를 판단한 후, 대응한 칸에 체크한 후, 경제상식을 운용하여 이유를 설명하라.

자료1: 개혁개방 전의 평균주의 분배체제는 효율제고를 저해하였다. 당의 제14차 3중전회 에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효율을 우선으로 하고, 공평을 겸하여 돌볼” 것을 제기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 속도를 추진하였다. 근년에 빈부격차가 커지는 추세 에 비추어 당의 제16차 5중전회에서는 다시 “사회적인 공평”을 더욱 중시할 것 을 요구하였다.

자료2: 효율은 사회에 더욱 많은 재부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공

책임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설법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라.

기초성과 응용성, 종합성이 반영되는 중국의 대입논술문제

중국 통일고사의 “간단히 물음에 답하기” 문제를 살펴보면 지식의 기초성, 내용의 단일성과 답안 요약성의 특징을 볼 수 있으며, 기초지식에 대한 평가에 치중한 것을 볼 수 있다. 일개 원리를 이용하여 질문에 답하게 하여, 사고방식

CHINA

수험생이 이미 배운 지식을 종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구비할 것을 필요로 한다. 과거에 비하여 2006년도 출제내용은 자료 식의 논술비중이 커지고, 탐구식의 논술 비중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의 변통성, 종합성과 응용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표준 답안은 교재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요구에 따라 교재의 기초지식을 통합하고, 여러 개의 관점을 조합할 것이 요구된다.

시대적인 쟁점 부각, 현실생활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출제 내용

상기 문제예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출제된 논술문제에는 시대적인 쟁점과, 현실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내용이 많이 선택되며, 수험생이 이미 배운 지식을 종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구비할 것을 필요로 한다. 과거에 비하여 2006년도 출제내용은 자료 식의 논술비중이 커지고, 탐구식의 논술 비중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양성과 자주성이 겸비되는 중국의 대입논술문제

현재 중국 전역에 걸쳐 자주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성 중, 일부지역은 본 도시 또는 본성에서 자주적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인접한 몇 개성에서 공동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각 지역에서 기출된 문제를 살펴보면 현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주제와 시대적으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문제

해결능력과 탐구능력, 창의력 측정을 하고자 하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북경과 상해, 광둥지역의 기출 문제들이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각 지역의 대입고사 출제경향이 획일적인 아닌 다양화와 자주성의 특징을 구비한 것을 할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지역의 발전수준과 문화적인 교육 분위기에 따라 본 지역의 교육발전목표를 설정하여 본 지역의 교육개혁실천과 지방실정에 부합되는 체제개혁과 시험개혁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대입고사 출제로 신교육과정 개혁 추진

중국의 신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방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3개 수준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중국의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주성을 반영한다. 16개 성에서 자주적으로 대입고사문제를 출제할 수 있게 되어 각 지방에서는 출제 시 지방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

신교육과정에서는 과거 수동적인 기계식의 암기위주의 교수학습으로부터 벗어나 학생들의 지식에 대한 종합 응용 능력, 분석 해결 능력 및 창의력 신장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대입논술 기출문제에서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신교육과정에서는 과거 학교라는 폐쇄된 환경을 위주로 실시되던 교육을 학교와 사회 간의 밀접한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사회경험과 사회적인 책임감을 육성하는 방향



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대입논술 문제에서 이러한 목표가 반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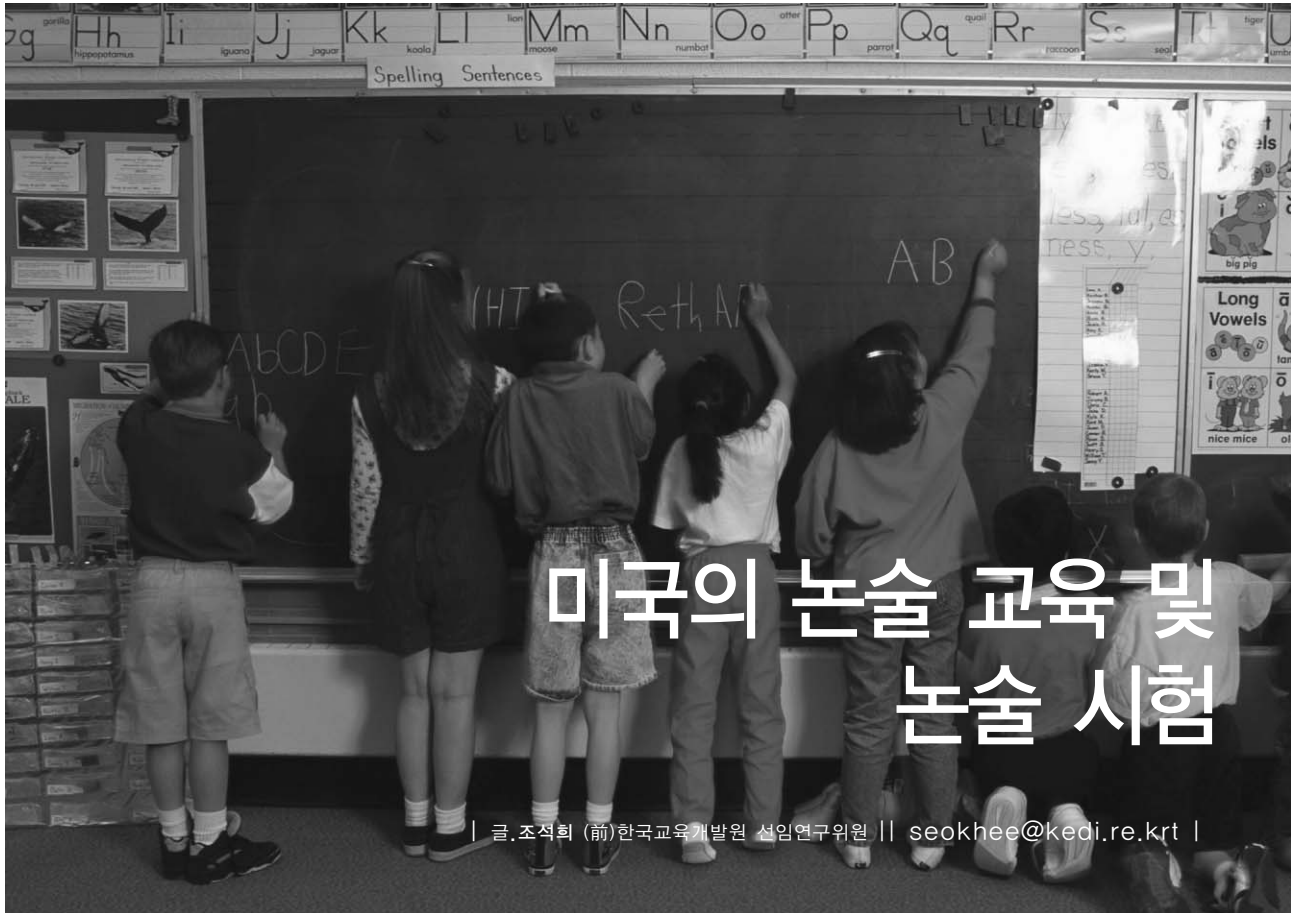
고등학교에 개설된 연구형 학습이라는 과목은 학생들의 탐구력과 협동심 및 창의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설한 과목인데 대입논술문제에 이러한 능력양성목표가 반영되고 있다. 특히 상해지역 주관식 논술문제에서 현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교육격차가 보이는 중국의 논술교육, 주관식 논술교육 강화 필요

각 지역의 대입고사 논술문제에서 지방교육발전 수준과 지방교육 과정의 격차를 볼 수 있다. 전국용 시험지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의 기출된 논술문제를 살펴보면 객관식의 문제가 많고, 표준답안이 있어, 학생들이 표준답안과 비슷하게 써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획일적인 표준답안을 맞추기에 신경을 쓰게 된다. 이는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방식과 창의력 측정, 양성에 걸림돌로 된다. 전국용 시험지를 포함해서 완전 주관식의 논술문제는 상해 등 1-2개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상해지역의 논술문제만 주관식 논술문 점수 비중이 컸다. 주관식 논술이 야말로 학생들의 실력차이를 확인하고, 비판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내는 좋은 교수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

다. 향후 중국의 논술교육 방향은 주관식 논술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비중을 늘리어 학교교육이 진정으로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소질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논술 교육 및 논술 시험

| 글. 조석희 (前)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 seokhee@kedi.re.kr |

같은 주장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에 따라 그 설득력의 강도가 다르다. 최근 논술이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항목으로 부각되면서 논술 전형의 방식과 이에 대한 교육이 우리 학원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갈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적 기반 능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논술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각종 잡지와 책에서 논술을 어떻게 해야 잘 쓰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제시가 되어 있다.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논술 교육을 하고 어떤 논술 시험을 보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 제시된 내용의 일반적인 내용은 미국 전역에 해당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양적 데이터와 사례는 뉴욕 주 그레이트넥시 소재의 그레이트넥 사우스 고등학교 (Great Neck South High School)에서 수집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이 학교는 10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공립학교로서 학교평가 결과 미 전역에서 40위 내에 드는 성적을 꾸준히 받아온 우수한 학교이다.



1. 논술 시험의 종류와 성격

미국의 논술 시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입학 지원서의 일부로 자신의 품격, 잠재가능성, 특성에 대해서 쓰는 논술(Personal Essay)이다. 둘째, 수학능력 검사(Scholastic Aptitude Test)의 에세이 작성 시험, 셋째 주정부 단위 학업성취도 검사(Regent Test), AP 시험에서 요구하는 표준화된 검사다. 넷째, 연구 보고 형태의 논술이다.

■ 개인 에세이(Personal Essay)

대학 지원을 위한 개인 에세이는 작성자의 진솔한 면모를 보여주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 학생 자신의 신념, 철학,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는 것으로 써 글을 읽는 사람이 작성자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일반적인 글이 되어서는 안된다. 허황되거나,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대학은 지원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 등을 통해서 학생의 잠재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주로 요구하는 논술 주제는 다음과 같다.

“본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나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었고, 어떤 영향을 미쳤나?”

“본인이 대학에서 특정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분야를 전공하고자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를 설명하십시오.”

“본인, 국가,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그것이 본인에게 중요한 이슈 인지를 설명하라.”

U.S.A

“역사적 인물, 소설 속의 인물, 예술 작품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 표준화 검사의 논술 시험 (SAT 검사의 논술 문제)

미국 수학능력 검사 (SAT)의 논술 시험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그 중 하나는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 설득하려는 논술문이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만한 사례, 경험, 관찰 등을 인용한다. 지식기반의 논술문(Document-Based Essay)은 특정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논술문이다.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논술 시험은 표준화된 검사로서 대부분 특정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시험으로 한 문제에 대해서 논술하는데 25분이 허용된다. 채점은 경험이 많고 충분히 훈련을 받은 고교교사나 대학 교수가 담당한다. 각 에세이는 서로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채점한다. 채점자는 학생의 재학 학교나 이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채점한다. 각 채점자는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1부터 6(가장 우수)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한다.

문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다음에 제시된 문제를 주의해서 읽고 그 아래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시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고, 억압하고, 단념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와 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다. 오래된 기억은 과거를 고려하여 현재와 과거를 통합하는 기

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출처: 사라 로렌스-라이트풋 (Sara Lawrence-Lightfoot)의 “나는 강을 알고 있었다: 상실과 자유의 삶”
과제: 기억은 과거로부터 배워서 현재 성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방해가 되는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가? 이 이슈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정하고 에세이를 쓰시오. 추론과 독서, 학습, 경험, 관찰에서 얻어진 사례들로 당신의 입장을 지지하시오.

채점 기준은 여러 가지이나, 그 중에서도 주어진 이슈에 대한 통찰의 깊이, 입장의 선명한 정도, 비판적 사고 능력,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인용한 사례, 이유 및 증거의 적절한 정도가 비중있게 고려된다. 그 다음으로 글의 구조화된 정도, 초점의 명료도와 일관성, 아이디어 전개가 자연스러운 정도, 적절한 언어의 선택과 문장구조의 다양한 정도, 문법과 용법에서의 오류 등을 고려하여 채점한다. 가장 우수한 논술문은 6점, 가장 나쁜 논술문은 0점을 준다.

통합형 SAT 논술 시험은 본인이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적절한 근거 자료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상식, 역사적 사건,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사건, 인물, 스토리, 최근의 시사 정보 등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풍부한 자료 없이 개인 자신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게 되면 그 논거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폭 넓은 독서와 깊이있는 이해, 지식은 설득력있는 논술문 작성에 필수적이다. 또한 남은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논지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창의력이 필요하다.



■ 교과 영역별 논술 시험 (AP나 주정부 단위 학업성취도 검사)

지식기반 논술문의 대표적인 형태는 각 과목별 AP (Advanced Placement) 시험과 NCLB 정책에 따른 주 정부 단위의 학업성취도 검사 (Regent Test)에 주로 나온다. AP 시험은 고등학생으로서 대학 과목을 수강하고 그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치르는 전국적인 시험이다. 주로 영어, 철학, 경제, 과학, 사회 영역에서 논술 형태의 문제 (Free response questions)가 전체 시험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그 중 일부는 주어진 이슈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 문제, 일부는 비교, 대조, 설명하는 문제, 또 다른 일부는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주정부 단위 학업 성취도 검사 (Regent Test) 역시 전체 문제의 30% 정도를 논술 문제가 차지한다.

찬반을 논해야 하는 문제의 주제는 매우 구체적일 수도 있고, 매우 일반적일 수도 있다. 찬반을 논해야 하는 문제는 모든 교과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지만 영어, 역사, 철학 등의 교과목에서 더 자주 출제된다. 영어 과목의 경우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진실을 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죄와 벌“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역사 영역에서는 “게티스버그 연설이 남북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라.” 또는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와 같은 것이 있다. 철학 분야에서는 “우리 속담 중에는 “쥐구멍에도 벌들 날 있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시오.” 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교 및 대조를 통하여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 역시 어느 교과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될 수 있으나, 과

학 분야에서 좀 더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생물 분야의 문제를 예로 들면, “식물들 중에는 C3, C4 류의 식물이 있다. 이 두 부류의 광합성과정을 비교 대조하라.” “박테리아와 포유류의 DNA 복사과정을 비교 대조하여 설명하라.” 등이 있다.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문제로는 다음과 같다. “어떤 나라의 통화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이 주식과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채점 기준은 여러 가지이나, 그 중에서도 주어진 이슈와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자신의 입장이 명료한 정도, 비판적 사고를 표현한 정도,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인용한 사례, 이유 및 증거의 적절한 정도가 비중 있게 고려된다. 그 다음으로 글의 구조화된 정도, 초점의 명료한 정도와 일관성, 아이디어 전개가 자연스러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채점한다. 교과별로 가능한 최고 점수는 교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제, 생물 교과에서는 논술문이라고 해도 SAT 에세이의 경우와는 평가 기준이 약간 다르다. SAT 논술문 작성 시에는 논리의 전개 방식, 전체 글의 구조, 일관성, 초점, 비판적 창의적 사고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각 교과에서의 논술문 작성 시에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정확한 지식이 더욱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아무리 사고능력이 탁월해도 그 분야의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논리적이 전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글의 구조는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명쾌한 글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연구 보고서 작성

이상의 세 가지 논술이 길이가 짧고 내용적 지식과 사고력을 통합하는 것이라면, 연구 보고서는 계획 수립, 자료 수집 및 분석,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치는 등 훨씬 더 복잡하고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요하는 논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보통 2-3 달이 걸리며 한 쿼터가 시작될 때 연구과제를 정하고, 끝날 때 즈음 평가를 받는다.

미국 학생들의 대부분이 두 달에 2-3 개 정도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연구 보고서는 사회, 과학, 언어 등의 교과영역에서 주로 부과된다.

이상 4종류의 시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작한 논술은 주로 세 번째 시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Document-Based Essay 로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식, 사실, 개념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글이다. 특정 교과와 내용만을 바탕으로 논술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교과에서의 지식을 통합하여 논지를 전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다.

2. 논술 교육

미국의 논술 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에 이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술문을 작성하는 기본 방법에 대해 충분히 배웠다고 본다. 다만 그 기술을 활용할 때 교과지식이나 전문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특정 주제, 개념, 이슈와 기본적인 논술문 작성 방법을 씨줄과 날실처럼 엮어 내는 활동을 반복하게 된다. 고등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논술 과제의 분량은 각 교과목 지도 교사들이 크고 작은 논술 과제를 교대로 부과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주당 2-3개 정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작성해야 하는 보

고서는 두 달에 2-3 개 정도가 된다. 이외에 창작 교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그 교과목 내에서 논술문 작성을 배우고 연습한다.

SAT에서의 논술 검사 및 대학이 요구하는 개인 에세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지도하는 교과목은 없다. 그야말로 특정 교과와 지식이 바탕이 되기는 하지만, 지식 자체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며 일관성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각 교과에서의 논술 교육 역시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 경제, 영어, 철학, 물리, 생물 등 각 교과에서 부과하는 과제를 작성 제출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논술 능력이 계발되어 간다. 예를 들어 DNA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DNA 구조에 대한 교사의 개념 설명과 실험, 이에 대한 토론이 있는 후, 교사가 과제를 부과한다. “포유류와 박테리아의 DNA 구조를 비교, 대조하여 설명하라.”

논술 과제를 부과하면서 교사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글 중에서 한 페이지의 지문을 제공한 뒤, “마크 트웨인이 자신의 시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문학적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이 과제에 대해서 교사는 어떻게 논술문을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략적인 지침을 준다.

- 마크 트웨인의 글을 문단마다 분석하라.
- 각 문학 요소에 대해서는 문단별로 논하지 말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따라서 논하라.
- 예를 들면, 어떤 은유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각 문단 마다에 대해 쓸 수 있다.

연구 보고서 작성의 경우 교과목 개설 초기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일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



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간다. 예를 들면 “아시아 역사” 과목에서 모든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자신 나름대로의 주제를 정하여 연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교사가 이 계획서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면, 그에 따라 수정한다. 그 이후 수정된 계획서대로 잘 추진이 되어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교사는 안내와 보조를 한다. 계획을 엉터리로 수립한 경우는 그 이후 많은 변경이 있을 것이고,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혹 외부 인사나 기관을 접촉해야하는 경우에 교사들이 연결을 해준다. 아시아의 역사에 관한 진도를 따라가면서 학생은 자신의 연구 계획서에 적었던 일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간다.

3. 우리의 논술지도에 주는 시사점

훌륭한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능 및 비판적 사고, 창의적인 사고, 일반 상식이 풍부해야 한다. 이상에서 미국에서의 논술 시험과 교육에 대해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영어 교과는 물론이고 예?체능과 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에서 실질적인 논술지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하지 않은 논술은 상상하기 어렵다. 지식이 부족하면 비판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학생처럼 교과 지식은 풍부하나 남과는 다른 사고나 주장을 잘 하지 못해도 훌륭한 논술문이 나올 수 없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논술을 각 교과지도

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최근 논술지도를 하기 시작한 학교조차도 논술 지도 시간을 주당 몇 시간 더 보충하는 데 그쳤다. 각 교과 담당 교사들은 기존의 교수-학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교과 지식이 부족한 논술교사의 논술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방식은 논술문 작성법 지도 초기 단계에서 준비운동(warming up)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논

술교사가 지도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논술문 작성으로 까지 이끌어가기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각 교과 교사들이 논술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각 교과에서의 내용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등 주어진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단편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이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이 없이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이 작성한 논술문을 외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인다. ㄹ



1. 들어가면서

독일의 학교에서는 논술이라는 제목의 과목이 교과과정으로 따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한국에서 논술이 중요한 교육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은 무엇보다 한국의 중등교육이 대학입시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한국의 문제는 독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또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첫째 독일에서



는 제도적으로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대학별 시험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둘째 독일의 모든 학교에서의 시험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주관식 서술형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즉 독일의 학교시험에서는 보통의 경우 사지 선다형 또는 오지 선다형의 객관식 시험 문제는 주어지지 않는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과목에 따라 이른바 객관식 시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비율은 아주 미미하여 독일 학교의 시험형태의 일반적 유형으로서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하겠다.

그러한 상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아비투어(Abitur) 시험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하다. 아울러 아비투어의 시험문제는 그 자체가 한국의 논술고사 수준의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따라서 독일의 학교 교육에서 이른바 논술교육 및 글쓰기 교육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논술시험과 그것을 위한 별도의 논술교육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논술교육을 주제로 삼아 독일의 사례를 우리와 비추어서 어떤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인다.

2. 독일 대학입학의 간략한 개괄과 대학별 입학시험으로서의 논술의 부재

독일 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주관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생물학과, 의학과, 제약학과, 심리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2007년 여름학기 현재 — 수의학과는 겨울학기에만 입학허가가 된다. 그리고 경영학과가 포함되기도 하였다)는 전국적으로 입학허가제한(Numerus

GERMANY

clausus, 입학정원)이 실시되는 과이며, 입학허가중앙청(ZVS: Zentralstelle für die Vergabe von Studienplätzen)에서 총괄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아비투어 합격자들이 이들 과에 진학하고자 하면, 그들은 개별 대학교가 아니라, 이 중앙청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을 명기하여 지원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각 대학교는 이와 별도로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특정과에 입학정원을 설정할 수 있다. 입학정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학생은 아비투어 성적표와 증명서 및 소정의 양식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다른 선발 절차 없이 학교의 규정에 따라 입학허가를 받는다.

입학정원이 있는 학과 가운데 위에서 언급된, 중앙청에서 관리를 하는 학과의 경우 학생들의 선발비율은 이전까지 아비투어 성적순위 51%, 대기기간 25%, 선발면담 24% 이었다. 그런데 2007년 여름학기(학교에 따라 2007년/2008년 겨울학기부터)부터 그 비율이 아비투어 성적순위 20%, 대기기간 20%, 각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선발면담 60%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선발면담은 본래 아비투어와 대기기간으로 입학허가를 받기 불가능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선발면담에서 선발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국의 예전 대학본고사나 또는 현재의 논술고사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2007년 여름학기부터 선발정원의 60%가 중앙청으로부터 개별대학교의 선발면담으로 이관되면서 대학의 선발자율권이 더 확장되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의학과와 대학교 주관 선발절차를 살펴보면 아비투어 평균성적만을 참조하는 학교(에어랑엔/뉘른베르크, 기센, 쾰른, 뮌스터, 튀빙겐)가 있고, 괴팅겐 의대는 그것에다 선발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베를린 사리테 의대(베를린자유대학교와 훔볼트대학교 통합)와 괴팅겐 의대는 선발면담과 아울러 개별과

목 성적까지 추가로 참조한다. 그리고 튀빙겐 의대는 직업 경력과 또 다른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바뀐 절차의 특징은 간단히 말해 예전에 중앙청에서 아비투어 성적으로 선발하던 비율(51%)을 줄이고 그것을 각 대학의 선발 절차에 더 많은 비율(60%)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기기간을 통한 선발비율이 줄어들고 결국 아비투어의 성적(과 그 중 학과 관련과목의 성적)이 더 중요시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학생들의 선발권을 개별대학교의 자율에 더욱 많이 넘겨주는 형태로 선발방식이 변하고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은 아비투어(와 내신성적)의 틀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주관식 서술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앞에서도 잠깐 밝혔듯이 독일의 모든 학교에서 시험은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식 서술형이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에도 모든 학년에서 시험이 주관식 서술형이며, 구술발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윤리, 정치학 등 모든 일반 교과에서도 구술시험, 필기시험, 발표, 그룹작업 등을 통해 종합적 사고 및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한국처럼 수행평가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이 주관식 서술형과 수행평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수행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평가방식(구술시험-발표, 및 수업참여-, 독서노트작성, 탐방보고서작성, 그룹작업)도 기본점수라는 것이 없으며, 정해진 채점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된다. 그리고 아비투어 시험은 모든 문제가 종합적 사고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문제로 제출된다. 이 아비투어 시험 자체가 한국의 어려운 논술 시험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필자가 보기에 초·중등학교와 아비투어의 이러한 시험의 형태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글쓰기 및 종합적 사고를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식 서술형의 문제가 아비투어나 초·중등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시험문제 형태라면 한국의 학교현장과 연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은 어떻게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아비투어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중앙아비투어를 치르는 주이든, 아비투어가 개별학교 단위로 치러지는 주이든 아비투어의 모든 필기답안은 1차적으로 과목 담당교사에 의해 평가되고 점수가 매겨진다. 그리고 모든 답안은 제2채점관에 의해서 다시 평가되고 채점된다. 제2채점관은 제1채점관의 평가와 점수를 검토하고 그것을 확정하거나 그와 다르게 자신의 평가와 점수를 따로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제2채점관은 해당학교 해당과목의 다른 교사이거나, 예외적인 경우 다른 과목의 교사 또는 다른 학교의 해당과목 교사로서 시험위원장에 의해 정해진다. 제1채점관과 제2채점관의 점수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회가 점수를 확정한다. 그때 시험감독위원회는 해당 과목에 대해 다른 교사에게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점수에 대해 다수의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매겨진 점수와 제시된 채점근거를 토대로 시험위원장이 점수를 확정한다. 그리고 필기시험답안 및 채점결과는 교육청의 요구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교육청은 채점결과를 폐기하고 새로 채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비투어가 주관식 서술형으로 제출되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주관식 서술형의 문제로 인해 평가 및 채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관성의 오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출제규정에는 문제의 명확성과 구

체성을 적시하는 조항이 들어있고, 또 교과내용에서 다루어지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도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수업의 내용과 평가에서 교사의 자율적 권위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과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제기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교장 및 상급교육청의 감독권이 교사의 자율권과 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4. 독일 학교의 글쓰기 교육과 독서 교육

독일어 수업의 경우 대개 교과서 이외에 해당 학년을 위한 독서 교재로 추천되어 있는 책을 선정하여, 수업시간에 읽고 각 개인은 그것에 관해 독서일기를 쓴다. 독일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일기로 써서 선생님에게 검사를 맡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가 읽은 책을 일기로 작성하거나, 읽은 책에 대해 요약문을 작성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이때에 주인공에 대해 편지 쓰기, 주인공과 가상대화 나누기, 독일의 현실 문제에 대해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토론하기, 독서교재에서 다루어지는 현실문제에 대한 자료 모아서 정리 발표하기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유대인 문제, 에이즈 문제, 제3세계 문제, 학교폭력 등을 다룬 소설책을 독서교재로 삼아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며, 독서노트를 만들어 정리하고 발표하고 토론한다.

여기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독일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참고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어떤 수업이든 발표를 준비하거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학교수업의 운영과 교과 운영의 측면에서 한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 보인다. 따라서

GERMANY

학생들은 한국처럼 참고서에 의존할 수 없고, 혼자서 또는 그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독일어 뿐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단순한 교과서 위주의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가 교과서 외의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며, 오히려 교과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과서를 넘어서 다양한 자료와 읽을 거리를 접하게 되며, 이것이 시험에도 그대로 이용된다.

독일어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 교육이 수업시간에 이루어진다. 편지쓰기(저학년), 에세이 쓰기, 시쓰기(고학년이 되면 시 분석 및 해석), 보고서 쓰기, 다양한 내용의 논술문 쓰기, 텍스트 분석, 텍스트 해석, 텍스트 재현하기 등의 다양한 글쓰기 및 읽기 교육이 이루어진다. 한편 독일어 나 영어의 경우 계속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이 성적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독일어의 경우 받아쓰기(받아쓰기는 김나지움 고학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말하기, 읽기(낭독), 작문, 말하기 등의 다양한 것을 평가하며, 그 모든 것은 책읽기 및 글쓰기와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저자를 초청하여 저자가 자신의 책을 읽어주는 행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수많은 지역 도서관에서는 언제나 무료로(학생이거나 18세까지) 손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고(개인당 50권, 한달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른 신청자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도서관에서는 학교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아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하며, 책을 상시적으로 읽어준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각 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도서관 이용법, 자료찾기 등을 가르쳐주며 아직 도서대출증이 없는 학생에게는 도서대출

증도 발급해준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읽기 교육과 글쓰기 교육이 학교(와 도서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수업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통해 평가됨으로써 글쓰기 교육 또는 논술교육이 자연스럽게 수업 전반에 녹아들어 있다.

아비투어 독일어과목 필기시험 예시문제 2005년

(함부르크 주, 교육부 2003년)

시험시간: 기본과정 270분, 심화과정 330분

기본과정(Grundkurs) 중 일부 번역

과제 1 : 로테의 편지

- 과제유형 : 혼합형태: 창의적 부분과제(기존해석)를 포함한 문학적 텍스트의 연구
- 가능한 중점테마 : 질풍노도/젊은 괴테
- 텍스트 : 요한 볼프강 괴테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1787)

예시문

이 무렵 로테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오가고 있었으며, 남편에 대한 배려와 그녀의 불행한 친구에 대한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것을 말로 감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로테의 성격을 대강 짐작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닌 여성이라면 로테의 심정이 되어 생각하고, 로테와 더불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로테는 베르테르를



멀리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려고 굳게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로케가 그 실행을 망설였다면, 그것은 친구에 대한 진정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중략)

“이 넓은 세상에 당신의 마음 속 소망을 채워 줄 아가씨가 없을까요? 마음먹고 한번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벌써 오래 전부터, 당신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당신이 지금 좁은 곳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행을 하면 틀림없이 기분이 풀릴 거예요. 당신의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참된 우정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요.”

(출전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Stuttgart, Reclam, 2001. 125쪽 이하)

-문제

- 1) 로테와 베르테르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상황을 이 서간문학의 줄거리를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해 보시오.
- 2) 로테가 어떤 사람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 생긴 그녀의 내면상태를 묘사하는 상황을 기술하는 편지를 써보시오.
- 3) 그 편지쓰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과제 2 : 문학 텍스트의 채택

- 과제유형 : 혼합형 : 문학텍스트의 연구(해석), 텍스트에 근거한 설명

- 가능한 중점테마 : 사실주의의 산문 (폰타네: 에피 브리스트, 라베: 참새거리의 연대기, 켈러: 마을의 로미오와

울리아)

- 텍스트: 크리스티네 브뤼크너 : “너는 마냥 주문만 외우니. 병어리게 톨로를 만난 에피 브리스트”(1983)

(예시문 생략)

(출전: 크리스티네 브뤼크너: “데스테모나. 네가 말을 했더라면”, 프랑크푸르트/베를린, 1989, 75-91쪽.)

-문제

1. 저자 크리스티네 브뤼크너가 어떻게 문학적 전범 “에피 브리스트”를 그녀의 독백 속에서 현대 독자들에게 소개하는가를 분석하시오.
2. 당신이 분석한 것을 폰타네의 소설 속의 에피 브리스트라는 인물과 비교해보시오.
3. 문학을 그러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의 정당성과 문제점을 설명해보시오. Y



영국의 통합논술

| 글. 최봉섭 런던, 비컨리서치 대표 || choi@brcu.com |

영국에서 인기 대학이나 학과의 지원자 선별과 관련된 고민은 한국의 그것과 아주 흡사하다. 대입학력고사 (수능, A-level) 의 고득점자가 몰리는 인기대학이나 학과에서는 대입학력고사 하나만으로 적성에 맞는 지원자를 변별해 낼 수 없으며, 추가적인 변별 수단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별로 '본고사' 형태의 추가 시험은 규제를 하고 있다. 한국과 영국은 이와 같이 '상황의 유사점' 은 가지고 있으나, 영국의 인기 대학들은 한국의 인기대학에 비해, 정밀한 추가적인 선별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다르다.



논술의 유형

영국의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논술’의 범위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코스웍, 필지시험의 서술형 문제, 전문 분야의 통합능력 시험에서의 서술형 문제, 그리고 일부 유명대학이 실시하는 ‘에세이’가 있다.

우선 ‘코스웍(course work)’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시험으로 측정할 수 없는 지원자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일종의 ‘리서치 프로젝트’의 형태이다. 코스웍에는 실기(행위예술)나 작품(페인팅, 디자인)을 보여주는 형태도 있으나 여기서는 필지 서술만 논하기로 한다.

코스웍은 과목이나 시험실시 기관에 따라 그 비중이 전체 시험의 0%에서 100%까지 선택의 옵션이 있고, 학교에 따라(주로 학과장이 결정하지만) 어느 정도의 코스웍을 선택할지 달라진다. 코스웍의 비중이 불어나면 교사의 업무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체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공립학교의 경우, 단 한 번으로 평가가 끝나는 필지시험을 선호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사립학교의 경우는 코스웍을 선호한다. 코스웍을 선택하면, 필지 시험과는 달리, 학생이 시험 보는 날의 컨디션에 따라 실패할 확률이 낮아진다.

코스웍을 50%로 선택을 하면, 필지시험에서는 그 과목 전체 시험의 절반만 보게 된다.

이 코스웍은 통상 몇 주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며, 그 동안에 학생이 혼자서 문헌을 읽고 리서치를 하여 일종의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태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부정행위가 늘어나고 이것을 통제하는 어려움이 있어, 교육부에서는 코스웍의 비중을 줄이라고 시험 실시기관에 압력을 넣고 있고, 대학 측은 한 번의 필지시험으로 지원자의 학력을 평가하기에

ENGLAND

는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코스웍을 유지해 달라는 압력을 시험 실시기관에 넣고 있다.

필지 시험에는 통상 30분 정도에서 A4 한 장 정도 분량을 쓰도록 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 된다. 한 개의 시험이 통상 한 시간 정도이기에 절반의 시간은 사지 선다형에, 절반은 서술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배분도 25%, 50% 또는 75% 정도로 할 것인지는 과목에 따라 다르다.

여기까지의 논술(코스웍, 서술형 필지시험)은 일반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모두 거치는 과정이며, 인기대학이나 학과에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이 이외에 추가의 시험을 보아야 한다.

논술 시험의 예제

〈A level 시험 (수능) 경제학 논술 예제〉

다음의 예제는 경제학 과목의 45 분

- * 개념, 이론, 테크닉은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 *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점을 명료하게 집어내는가
- * 경제학의 지식은 충분히 피력되고 있는가
- * 경제학의 지식을 도구로 활용하여 제시된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 * 제시된 문제와 관련된 논쟁들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 * 논리의 증거는 제시되고 있는가

- 주의 사항 1) 답안지의 구성의 알맞은 배열. 관련 정보의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서술
- 2) 특정한 개념의 용어
- 3) 읽기 쉬운 필체
- 4) 철자, 띄어쓰기, 문법

Total for this question: 25 marks

2 Study Extracts C and D, and then answer all parts of Question 2 which follows.

Extract C: The predicted effects on car ownership and car use of toll charges for road use and a higher fuel tax

Type of pricing	Effect on car ownership (%)	Effect on car use (%)
Toll charge of 6.2 euros (£4.36) a kilometre	-9.4	-19.6
50% increase in fuel tax	-0.8	-5.9

Source: adapted from J BOOT, P BOOT and E VERHOEF, *The long road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road pricing: the Dutch experience, 1999*

Question 2

(a) Using **Extract C**, compare the predicted effects of toll charges and higher fuel taxation on car ownership and car use. (4 marks)

(b) Lines 6–7 of **Extract D** state that ‘The choice facing motorists is simple: queue or pay for scarce road space’. Using a supply and demand diagram, explain how road pricing may ration scarce road space. (6 marks)

(c) Using the data and your economic knowledge, evaluat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lternative policies for reducing road congestion. (15 marks)

A level-economics

전문 영역별 시험의 예제

영국의 대입시험 집행과 관련하여 한국과 다른 점은, 민간기구의 시험관장 기관이 세 개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괄 통제하지만, 영국의 경우는 OCR, Edexcel, AQA 라는 세 개의 기관이 있다. 이들의 전신은 각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이 부설로 만들어 그것이 시험을 출제하고 학력을 평가했다. 이러한 기관들은 96년



이전에는 상당히 많았으며, 96년에 대대적인 통합을 하게 된다. OCR 은 Oxford, Cambridge, Royal society of Art 세 개의 기관이 통합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가령 한국의 경우, 대학들은 본고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부는 본고사의 폐단을 막고자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기대학들은 추가적인 선별 (변별)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무조건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럴 경우, 하나의 제 3 영역이 (가령 한국의 평가원) 본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성판별용' 추가 시험을 만들어 낸다면, 수험생은, 서울대 본고사용, 고려대 본고사용, 연세대 본고사용, 이렇게 별도의 수험준비를 하지 않고, 한가지의 추가시험을 준비한다면, 그 추가 성적으로 서울대든, 고려대든, 연세대든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대학들도 이러한 추가 시험의 성적으로써 변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 관계없이, 의과라든가 법과의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고 수능 이외의 또 다른 변별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렇다고, 지방대 의과대는 의과대용 본고사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준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시험기관이 '공통 추가시험' 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한 시험이 의과대용으로 BMAT 가 있고, 법대용으로는 NATL 있다. 이러한 시험은 특별한 학과의 지식을 요구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사고력, 창의력, 의사전달력, 표기력 등을 보고 있다. BMAT 의 서술형 문제의 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질문 중 하나를 골라서 서술하십시오.
 시간: 30분, 답안지 (A4) 한 장.
 다음 질문은 당신의 다음과 같은 능력을 보기 위함입니다.

-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조직하는 능력.
-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서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답안지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답안지의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서술을 하면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먼저 충분히 생각을 하십시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주어진 시간' 과 '한정된 지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전달하는 능력 또한 채점을 할 때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질문 1. "조금만 배운 것은 위험하다" (Alexander Pope)

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십시오. '조금만 배운 것이라도 위험하지 않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쌍방의 주장을 발전시켜 보십시오. '배운다는 것' 이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 왜 그러한지, 당신의 생각을 서술하십시오.

질문 2. "우리의 자연법에 대한 믿음은 [자연법] 그것에 대해 반박에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 (Karl Popper)

이 문장이 의미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과학적 실험은 위의 반박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와 함께 설명하십시오. 자연과학의 방법상의 한계는 위 명제를 어떻게 반증하는지 증명하십시오.

(http://www.bmat.org.uk/downloads/Specimen_Section_3.pdf 2005년 예제문 중 일부 번역)

ENGLAND

위의 예문 번역에서 보듯이, 질문의 내용은 특별한 지식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며, 찬반의 여지가 많은 명제를 던져 두고, 이것을 수험생 나름대로 찬성이나 반대, 또는 찬반의 논리들을 엮어가면서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해 가는 과정을 보고 있다.

BMAT 시험의 채점은 두 사람의 채점관이 제각기 채점을 하여 합산 평균을 내며, 두 채점자간의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경우, 세 번째의 채점관이 채점을 하여, 가까운 두 사람의 점수를 합산 평균으로 한다.

이 시험의 답안지에는 응시자의 이름이 적히지 않고, 수험자 고유기호만 적게 한다. 따라서 채점자는 누구의 답안지 인지 알 수 없다.

인터뷰

캠브릿지 대학의 부설, 시험문제 출제 연구소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로버트 하딩 박사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여기에 옮겨 본다.

Q 논술 시험 문제 출제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

A 돈으로 사서 넣은 지식이 아닌, 아이들의 잠재성을 어떻게 읽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이다. 논술 시험과 관련한 영국의 문제는, (연간 수업료가 2천 만 원이 넘는) 사립학교 아이들은 대체로 최고 등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립학교에서는 탁월한 '가르치기' 기술을 가진 교사와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유층 학부모들은 이것을 '구매한다'. 구매를 해서 소유한 것 (지식)과,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구분해 내고자 하는 것이 논술이

다. 다시 말해, '가르치지 않는 것 (가르칠 수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논술이다.

일류대학이나 학과의 지원자는 대부분 'A 레벨 시험' 최고 등급을 받아온다. 이 시험은 변별력이 없다. 그리고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은 비슷하다. 이제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들 중에서 얼마나 학과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Basil Bernstein 교수는 이것을 '학과에의 충성' 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얼마나 잠재성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대학은 끌고 가는 교육이 아니고 밀어주는 교육이다. 따라서 학생 자신이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대학은 밀어 줄 수가 없다. 따라서 학생이 공부에 대한 목적의식이나 동기가 부족하면, 중도에서 탈락한다. 우리는 학생 한 명 한 명에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가 지원자를 잘 못 고르면, 우리의 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영똥한 사람이 차지하게 되면, 정녕 그 자리가 필요한 사람 (적격자)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적격자는 사회적으로 사장된다.

- 하딩 박사에게 한국의 사정과 학원, 사교육비 문제를 설명을 했다. 하딩 박사는 이전에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으며, 한국의 입시사정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기에 포괄적인 문제점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

Q 그럼 학교의 교사가 학원의 강사와 달리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학교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을 인스파이어 (삶의 가치관 확립) 하고, 모티베이션 (동기 부여) 하며 스스로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학원 강사의 보수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계산되어 지불된다. 따라서 학원의 강사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식의 양에 집중하게 된다. 학교의 교



사는 학원의 강사에 비해, 시간이 넉넉하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인스파이어를 할 수 있고, 모티베이션도 줄 수 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논술 시험의 목적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구분하는가이다.

Q 영국의 경우, 만약, AAA 등급과 ABB의 등급을 가진 두 지원자가 있을 때, ABB의 지원자가 학습 동기나 잠재성이 더 많이 보인다고 해서 ABB의 지원자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는가?

A 우리 캠브릿지에도 있고 다른 우수 대학들도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만약 AAA 등급을 받은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나중에 자신의 자녀가 떨어지고 ABB 등급의 지원자가 합격된 것을 알았다고 할 경우, 이것을 법원에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는가?

A 아직 학부모가 제소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사립학교 학교장들이 - 이것도 개인적인 클레임이 아니고, 퍼블릭 클레임의 형태를 취하지만- 그런 경우는 종종 있다. 이런 트러블을 회피하기 위해, 캠브릿지 대학은 입학기준을 일정하게 (standard) 공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격조건을 제시한다.

Q 교육부가 2년 전에 만든, 슈왈츠 리포트에서, 그러한 입학기준이 모호하다고, 그것을 보다 명료하게 표준화해서 사전에 지원자들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명시를 하라고 권고하지 않았는가?

A 그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배후의 요소들이 깔려있다. 캠브릿지 같이 지원자가 많이 모이는 대학이 그런 식으로 공표를 하면, 사립학교들이 그 기준을 먼저 읽어내고 맞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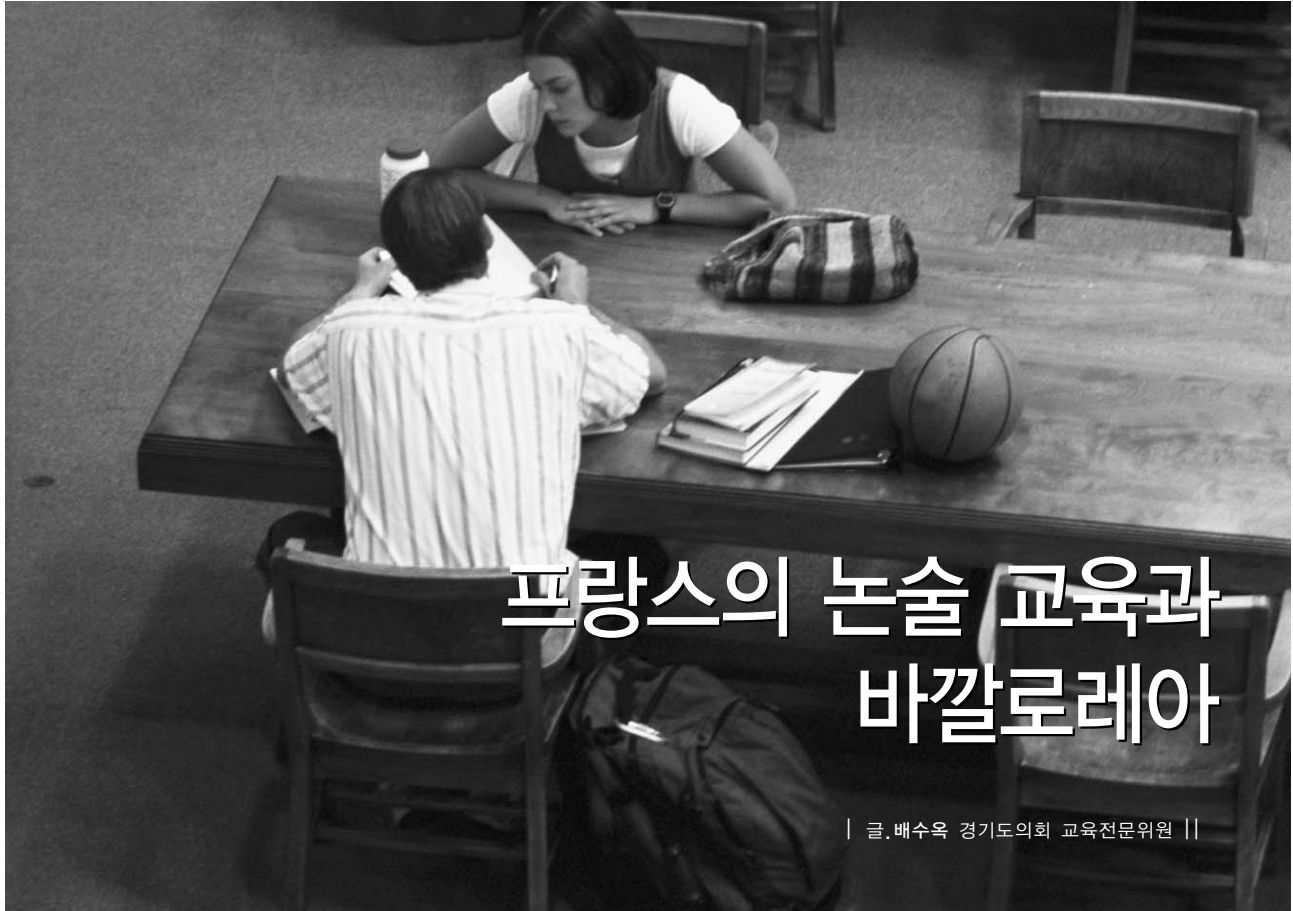
기에 사립학교 졸업자들의 입학율이 많이 늘어난다. 물론 내가 하는 말은 사립학교 졸업생이 공립학교 졸업생 보다 못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옥석을 가려내기가 한층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 유명대학의 입시정책에 대한 비판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 한층 강도가 세어진다)

(* 사립학교는 전국 학생의 약 7% 이지만 옥스포드나 캠브릿지 입학생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사립학교 졸업생의 비율은 약 4% 정도 줄어들었다)

Q 한국의 상황에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A 감기증상처럼 중산층의 노력 (바이러스)과 대학의 입시정책 수정(백신)은 영국이나 한국뿐 만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며, 그 처방전은 각 나라가 가진 고유한 제도적 특징이 있기에, 한국의 상황에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바이러스는 진화하기에 '치료제' 는 없다는 것, 이것 하나 만은 말할 수 있다. ✎



프랑스의 논술 교육과 바깥로레아

| 글. 배수옥 경기도의회 교육전문위원 ||

1. '토론' 중심의 프랑스 사회

“아무리 사소한 주제라도 일단 제기되기만 하면, 문제가 확대되고 모든 힘을 다해 수고할 필요가 있는 수준까지 대화가 진행되기 마련이다”라는 몽테뉴의 말은 ‘토론’ 중심의

프랑스 사회와 프랑스인들을 잘 대변해 준다. 또, 그 해 바깥로레아의 철학 문제가 사람들의 중요한 대화의 소재가 될 정도로 프랑스 사회는 토론을 추구한다.

특히 “참을 수 없는 것은 참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같이 특별한 반향을 일으킨 주제도 있다. 93년에는 “사실은



언제나 사실처럼 보이는가?”, “진리는 인간을 구속하는가, 자유롭게 하는가?” 등의 문제가, 95년에는 “미래는 근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경험은 인식의 유일한 원천인가?”, “모든 이념에 대해 관용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출시되었다. 바로 바깥로레아 철학 과목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토론과 논쟁이 습관화된 프랑스인들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프랑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이 ‘왜’ 라고 반문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모두 토론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인은 대화 중에 “당신의 의견은 어떠세요?”라고 질문받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들은 논쟁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상대에 대한 불쾌한 공격으로 인식하면 안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쉬 찾아볼 수 있다. 대화를 하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경우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지만, 프랑스인들은 이것을 싸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토론과 논쟁으로 여긴다. 그 과정에서 서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동양인, 한국인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데카르트의 후예답게 “나는 토론하고 논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에 별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

개인적 견해와 사고를 중시하는 프랑스의 사회문화적 특성은 말 잘하고 똑똑한 인간을 길러내는 토양이 된다. 게다가 모국어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학교와 연구소를 설립하는 프랑스인들의 열의가 학교교육에도 반영되어 우수한 국어교육 체제와 연합하여 논술과 토론은 프랑스인들에게 일상적이고 몸에 잘 맞는 옷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화문화가 발달한 프랑스 사회에서 어른은 물론 아동들조차 자신의 명확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구받고 그 기회를 부여받는다. 프랑스인들이 자신의 친구나 배우자를 소개할 때, ‘똑똑한’, ‘현명한’ 등의 형용사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풍토도 프랑스 사회의 이상적 인간상에 대

FRANCE

한 일면을 엿보게 해 준다.

이러한 프랑스인들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이성적 사고능력은 학교 교육을 통해 문학작품과 철학 수업을 통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모든 대학입학생들이 치루어야 하는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에서도 수학과 철학에는 가산점을 주고 있다. 고등학교 국어 수업에서도 시험 대신 레포트를 요청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고2학생에게 앞으로 한 달간 에밀줄라의 작품을 세 권 이상 읽고 그 작품세계에 나타나 있는 시대 상황과 사회?경제?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분석하라는 식이다. 이 때 표절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수준에 상관없이 자신의 견해, 독창적인 생각을 쓸 것을 요구받는다.

프랑스 중?고등학교에서 치루어지는 프랑스어나 역사?지리 시험은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이 아닌 논술형식을 취한다. 시험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이고 학생들은 2개 내지 3개의 문제 중에서 하나를 택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정리해서 답안을 작성한다. 모든 학생의 답안은 다르다. 학생들은 이미 이런 류의 논술형 시험에 익숙하게 대처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의 답안을 작성한다. 파리 펠릭스포르 초등학교 교사 카트린 루는 “프랑스에서 예술과 더불어 수학, 화학 등 기초 과학이 발달한 것은 창의력과 논리성을 키우는 교육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2. 구술고사와 논술고사가 주를 이루는 ‘바칼로레아’

바칼로레아는 1803년 3월 17일 법령에 의해 나폴레옹 황제 때 제정된 대학입학자격시험이다. 바칼로레아는 중등 교육을 마치는 졸업장이면서 동시에 대학의 첫 번째 학위에 진출하는 관문인 셈이다. 최초 바칼로레아 합격자는 31명이

었고, 1945년에는 3%, 1975년에는 25%에서 2004년에는 62%, 2006년에는 81.9%로 합격율이 증가했다. 제3공화국 시대까지 학생들은 라틴어로 된 작문을 제출해야 했다. 결국 바칼로레아의 핵심에는 논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교육과정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것은 국어 수업인 프랑스 수업시간의 말하기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유치원 교육의 최고학년인 그랑반에서부터 프랑스어 쓰기와 말하기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의 4,5학년에 해당하는 CM1과 CM2에서 시를 짓거나 읽고 쓰는 불어교육과 사회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람 간의 윤리와 도덕 등을 중시해서 가르친다. 중학교(5학년, 4학년)에서는 주 23-24시간의 교육을 9과목(불어, 수학, 외국어, 역사와 지리, 윤리, 과학, 기술, 체육, 미술)에 할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토론 능력과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파리 13구에 있는 마시옹 리세 문과계열 3학년 철학시간의 10월 한 달 동안 공부할 주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철학교사인 아니에스드 칼론은 27명의 학생들에게 예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한 뒤, 칸트, 헤겔, 니체, 베르그송 등이 예술에 대해 쓴 텍스트를 발췌해 집에서 읽어오도록 과제를 내 준다. 다음시간에는 학생들이 텍스트를 분석하여 철학자들의 예술관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 학생들이 자신의 예술관을 정립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정의 학습목표이다.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의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 학생(최영주)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프랑스 논술교육의 특징이 더욱 잘 드러난다.

그렇게 학문에의 의욕을 잃어가던 상황에서 나는 프랑스의 교육제도와 마주했다. 우선적으로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체계화된 독서 시스템이었다. 불어수업의 경우



교과서가 아닌 문학책들을 돌아가며 읽고 요약, 비판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이 수업과 관련해 추천된 책은 족히 100권이 넘었는데, 이를 마스터하지 못한 채 바칼로레아에 임할 경우 적절한 인용구 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령 “소설에 있어 상상과 진실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전개하라”,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인간을 연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조르주 상드는 말했다. 이 문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술하라” 등의 질문에 A4 4~5장 분량의 글을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문학으로 시작된 인문학에의 관심은 곧 대학에서 내 전공이 될 철학으로 이어졌다. 철학은 문학과 함께 인문계의 주요 과목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된다. 그런데 몽테뉴, 파스칼, 루소 등의 에세이 문학이 보여주듯, 프랑스에서는 문학과 철학의 구분이 그리 크지 않기에 문학실력이 좋은 학생이 철학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다. 인문계 A의 경우, 철학 수업이 일주일에 9시간이나 되며 바칼로레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결정적이다. 불어 과목과 마찬가지로 주요 철학자들의 발췌문을 비판하고 주제별 질문에 따라 장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 과목에서 독서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인생관의 정립이다. 당시 기말, 중간고사에 출제되었던 여러 문제들, 가령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종교는 약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환상인가?”,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의무가 있는가?” 등은 그 종교적·윤리적 함축이 지닌 과감성으로 나를 상당히 당황시켰고, “역사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가?”, “권리는 권력 질서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한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들은 나를 한 때 회의론자로 몰고 갔다.

9월에 새학기를 시작하는 프랑스 학제의 특성상 모든 바칼로레아 시험은 6월 전후로 치루어진다. 계열에 상관없이 불어, 외국어 한 과목, 역사 및 지리, 수학, 철학은 공통필수 과목이다. 모든 계열에 공통인 국어(불어)는 1학년(우리의 고2) 말에 시행되며 외국어, 수학, 철학, 역사지리는 공통 필수로 고교 졸업반 마지막 학기인 6월에 시행된다. 시험은 2주에 걸쳐 시행되는데 먼저 주에 모든 계열 공통인 철학을 치루고 난 후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과목씩 시행한다.

일반계열뿐 아니라, 예능·기술 계열 모두 철학과목은 의무적으로 치루어야 한다.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의 경계선을 규정할 수 있는가”와 같이 정답이 없는 철학 문제들에 대해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채점 위원들은 학생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견해를 개진했는가를 기준으로 채점한다. 그렇지만, 고교생들이 철학자들을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서 바칼로레아를 앞두고 철학 과외를 받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라고 해서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어는 고2말에 바칼로레아를 치르기 때문에 고3이 되면 철학 시간으로 배정된다. 바칼로레아에서 철학의 배점은 프랑스어와 함께 비중이 가장 높다. 문과외의 경우 전체 점수의 20%, 경제사회계열이나 이과계열의 경우 전체 배점의 10%를 넘는다.

구술시험은 국어, 사회경제, 외국어, 고어 등이 대상이 되며 계열당 2-3개 과목이 대상이 된다. 구술시험은 25개에서 30개 정도의 도서 목록 중 시험관이 문제를 선택하고 내면 학생은 20여 분의 정리시간을 가진 후 심사위원들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 학생들은 사전에 구술시험 범위로 선택된 교재를 공지 받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이 구술시험은 단순한 암기력의 측정이 아닌 지식의 활용과 학생의 사고력과 논리력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FRANCE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열에 따라 과목별로 필기시험, 구술시험, 또는 두 종류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구술시험은 20분, 필기시험은 4시간이다. 시험 결과는 7월 초에 나오며 평균이 20점 만점에 8점 이하면 낙제이므로 유급을 해야 한다. 과목당 20점 만점에 16점 이상이면 트레 비엥(매우 우수), 14점-16점이 비엥(우수), 12-14점은 아세 비엥(제법 잘함), 10-12점은 빠사블(합격)이라는 평점을 받게 된다. 8점미만은 물론 낙제다. 평균이 8점에서 10점 사이인 사람은 7월 초에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다음 구체적으로 프랑스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준비과정을 살펴보면 논술교육의 모습이 더 잘 그려질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의 공립 고교인 '리세 프레넬'의 대입(大入)을 앞둔 졸업반 자연계 학생 14명이 교장으로부터 입시준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내년 6월 고교졸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eat)를 치를 학생들이다. "이제 테르미날(Terminal · 고교 졸업반)이라니 긴장되지? 바칼로레아까지 10개월밖에 안 남았어. 선생님들이 좋은 문제를 연구해 제공할 테니 매일 실전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 철학적이고 난해한 논술고사로 유명한 바칼로레아. 프랑스 고등학교에선 이 시험을 어떻게 가르치고 준비할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프랑스의 모든 공교육은 바칼로레아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보면 맞다. 수업의 3분의 2는 쓰기, 3분의 1은 말하기에 할애할 정도다. 고교 졸업반이 되면 1년 내내 바칼로레아에 출제될 만한 예제 중심으로 수업을 듣고 답안 쓰는 연습을 반복한다. 학생들은 예제와 모범답안이 가득 담긴 참고서들을 끼고 산다. 줄리앙 바로프(17)군은 "글 쓰는 숙제는 어릴 때부터 늘 해왔지만 막상 바칼로레아 문제를 받아들면 당황할 것 같다"며 "1년간 예제를 갖고 답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www.chosun.com>

3. 바칼로레아 논술 시험의 사례들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이 있는 날은 프랑스 지식인들에게 또 하나의 국경일, '생각하는 날'이다. 2주 이상 계속되는 바칼로레아는 항상 철학시험으로 시작한다. 철학시험이 있던 날 저녁 제출된 시험문제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학생이지만, 그 날만은 인문사회과학에 적을 둔 프랑스인 모두가 바칼로레아의 수험생이 된다. 이같은 국민적 관심은 당일 저녁 열리는 흥미로운 토론회를 통해 방영된다. 아침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계, 문화계, 언론계의 유명인사들과 시민들이 대강당에 모여 적당히 진지하고 적당히 유머스러운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 방송을 청취했던 한국인 최영주씨는 그 진지함과 재치에 놀랐다고 자신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그 해에 출제된 철학 문제는 일반인들도 화제로 삼는다. 아래 정리한 문제들은 바칼로레아 논술고사의 예리한 질문들을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구분은 최병권, 이정옥의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에 근거한 것이다.

인간(Human)

- ◎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 ◎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 ◎ 관용의 정신에도 비관용이 내포되어 있는가?
- ◎ 타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일체의 열정을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 ◎ 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체의 존재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



인문학(Humanities)

- ◎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 ◎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 ◎ 재화만이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 인문학은 인간을 예견 가능한 존재로 파악하는가?
- ◎ 인류가 한 가지 언어만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예술(Arts)

- ◎ 예술없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가?
- ◎ 예술 작품의 복제는 그 작품에 해를 끼치는 일인가?
- ◎ 예술 작품은 모두 인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가?
- ◎ 예술이 인간과 현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과학(Sciences)

- ◎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 ◎ 계산, 그것은 사유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 ◎ 오류는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 이론의 가치는 실제적 효용가치에 따라 가능되는가?
- ◎ 현실이 수학적 법칙에 따른다고 할 수 있는가?
- ◎ 지식은 종교적인 것이든 비종교적인 것이든 일체의 믿음을 배제하는가?

정치와 권리(Politics&Rights)

- ◎ 법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도 이성적인 행동일 수 있을까?
- ◎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 ◎ 노동은 욕구 충족의 수단에 불과한가?
- ◎ 정의의 요구와 자유의 요구는 구별될 수 있는가?
- ◎ 유토피아는 한낱 꿈일 뿐인가?
- ◎ 다름은 곧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인가?

윤리(Ethics)

- ◎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욕망과 싸운다는 것을 뜻하는가?
- ◎ 무엇을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하는가?
- ◎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도 가치가 존재하는가?
- ◎ 무엇이 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지를 말해 주는가?
- ◎ 종교적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성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 ◎ 정열은 우리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가?
- ◎ 진리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진리 대신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환상을 좇아도 좋은가?

참고로 2005년 각 계열별 바칼로레아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통 계열〉

“정의와 부정은 관습일 뿐인가”

“언어는 의사 소통에만 쓸모가 있나”

〈어문학 계열〉

“자연에 관한 존 스튜어트 밀의 텍스트에 대해 설명하라”,

“인간은 어떻게 자연을 길들이고 변화시키고 거기에 굴복하는가”

FRANCE

〈경제 계열〉

“미학과 도덕률에 관한 칸트의 텍스트를 설명하라”

〈과학 계열〉

“자유롭다는 것은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는 것인가”

응시생들은 3개의 논제 중 하나를 선택해 4시간 동안 답안을 써야 하고 바깥로레아는 전국의 고교 교사가 문제는행 방식으로 출제한다. 바깥로레아는 구체적인 교과지식을 기본적인 기초로 하되 “자기 의견이나 감정부터 앞세우면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영어는 영문소설 일부를 주고 자기 의견을 영어로 서술하고 불어로 해석하는 형식이다. 수학은 한 문제를 서론부터 결론까지 수식과 글로 풀어 써야 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 모든 과목이 문법과 구성 등 글의 기본기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는 따로 보지 않는다.

여기에서 채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논리성과 이해력이고 논술 문제의 채점에서 객관성의 보장은 프랑스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바깥로레아 시험이 온통 주관식인데다가 1회 채점이 원칙이어서 채점과정에서 시험관의 주관성 개입에 의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듯 하나 실제 프랑스에서 채점의 주관성 문제는 전혀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채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채점이 이루어지고 출제교사에 의해 과학적으로 작성된 채점 기준표가 있고 학생들은 시험결과가 발표되면 자신의 시험답안 채점을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또, 1회 채점 원칙이라 당락이 결정되는 선인 10점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다른 채점자가 한 번 더 채점하여 공정성을 보완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질 드 로비앙 교육장관은 파리 교외 크레테유

한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하며 “바깥로레아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모두에게 시련이지만 나라 전체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으뜸 기준이다”고 말했다는 기사에서 프랑스 국민들 역시 논술이 주가 되는 바깥로레아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알 수 있다.

4. 한국 논술 교육에 주는 시사점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논술 교육과 그 평가 방식은 “논술 시장의 사교육화”를 이루고 있는 한국 논술 교육에 많은 반성을 촉구한다고 본다. 그러나 논술이란 결코 학교나 학원에서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학생들이 그 난해한 바깥로레아 철학 문제의 답안을 써내는 것은 고3때 배운 철학교과와 힘의 차이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체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는 가정과 사회, 학교 모두 말하고 글 쓰는 방식의 논술교육이 가능한 학습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논술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논술은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의 과정으로 말하기와 쓰기의 조화가 요구되며 학교교육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깥로레아의 특징은 필기시험 외에 구술시험을 치른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쓰기 논술과 말하기 논술교육은 토론을 중시하고 국어를 사랑하는 프랑스의 풍토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특히, 가부장적 사회문화 분위기, 유교적 산물이 잔존하는 우리 사회와는 상반되는 교육방식일 수 있다.

우리는 자녀나 학생들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명령하는 ‘고전적인’ 방식의 교육관에 익숙하다. 다행히, 젊은 세대 부



모들에 의해 가정문화가 변화하고, 평생학습론의 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관이 형성되고 파급됨에 따라 이제 새로운 교수-학습 관계가 형성되어가는 과도기라고 볼 때, 우리도 이제 생활 속의 논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어가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는 교육현실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일명 수행평가에 의해 국어와 영어 과목의 경우, 일종의 말하기 과정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아직 모든 논술이 '쓰는' 논술에 치중하여 체계화된 구술교사가 국가교사는 고사하고 학교 평가 과정에서도 체자리잡지 못한 점은 프랑스의 교육 평가 방식과 비교할 때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기와 글쓰기가 동시에 학습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둘째, 논술은 단일 교과가 아닌 통합 교과 형태로 교사들의 팀티칭(협동학습)에 의해 가르쳐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중등 교육과정에서 논술은 국어와 철학, 문학 등 다양한 교과를 소재로 하여 학습된다는 특징이 있다.

형식적 기법과 철자법, 맞춤법을 배우는 시간은 국어시간이지만, 그 내용에 해당하는 문학의 고전들을 배우는 시간은 문학, 시민윤리, 철학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논술은 단순한 하나의 교과라기보다는 사회나 정치, 경제, 역사, 과학, 철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교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내용을 국어과 교사 혼자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한국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과 간 교사들의 합동연수 및 세미나와 분야별 팀티칭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결과 “논술은 곧 사교육”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각 학교별로 논술팀

을 구성하되 국어과 교사 1명, 사회과 교사 1명, 과학과 교사 1명, 미술과 교사 1명 등을 한 팀으로 하여 논술의 내용에 해당하는 세미나를 공유하고, 그 구체적인 커리큘럼도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양 미술사가 논술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서양의 고전음악사가 주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교과로서 논술 교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서울의 일부 고교에서 논술을 정규 교과로 편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를 얼마 전 접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논술을 배우고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지, 단순한 고전 암기 능력을 시험하고자 함이 아니다.

또 현재 각급 학교의 선택교과로 되어 있는 철학을 윤리의 일부로 포함시키지 않고, 독립과목으로 가르치되 석사 학위 이상의 교사를 선발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논술교사 선발과 재교육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도 요구된다. 현재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발상을 하지 않고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기는 어려운 것 같다. ✎



대한민국을 강타한 논술 광풍

| 글.이경희 세계일보 기자 || sorimoo@segye.com |



대한민국에 논술 광풍이 불고 있다. 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무서운 기세로 퍼지고 있는 이 바람은 초·중·고교를 가리지 않고 수도권을 넘어 지방에까지 닿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가,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선 각종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과 목동 등 학원 밀집지역에는 논술 전문학원 간판을 내건 학원들이 급증했다. 최근 몇 년 새 우후죽순 생겨난 논술 전문 학원은 벌써 포화상태에 도달했고, 하다못해 동네 보습학원조차도 논술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 논술이 이제 학원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서울의 입시·보습학원은 6216개,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서초 지역은 총 476개로 매달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논술강의를 실시하는 학원이 급격히 늘어나 90%이상의 학원에서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대학들이 대입 논술시험에서 주제나 제시문에 과학, 수학, 사회 등 과목간 내용을 통합 출제하면서 논술 학원 뿐 아니라 과학, 수학 전문학원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사고력을 키워준다는 철학, 창의력 학원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다녀야 할 학원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논술 학원이 늘어나면서 유능한 강사 모시기에도 비상이 걸렸다. 영어 수학 등 일반적인 교과목과 달리 강사풀이 좁은 상황에서 학원 수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강의를 맡길 만한 실력 있는 강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



논술 학원 뿐 아니라 과학, 수학 전문학원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사고력을 키워준다는 철학, 창의력 학원도 복세풍을 이루고 있다.



실상 일부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한 논술 전문학원을 제외한 대다수 학원의 논술 강사들은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교생들의 본격적인 논술 준비시기도 부쩍 앞당겨졌다. 과거에는 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끝내고 나서야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시작하는 게 보통이었다면 지난해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준비 시기가 1년 이상 빨라졌다.

학원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 겨울방학 논술 전문학원을 찾은 예비 고3이 부쩍 늘어 예년 같은 시기보다 50%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지방 학생들 사이에서 방학이나 혹은 주말마다 KTX를 타고 상경, 수업을 듣고 다시 내려가는 '논술 원정'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논술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간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젊은 교사들이 주축이 돼 과목별로 팀을 꾸려 논술특강을 개설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읽고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비논술 세대' 교사들에게 눈높이 논술 교육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가 글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시작하고 '논술의 달인'이 되기를 열망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의 비중을 2007학년도 입시보다 대폭 확대할 방침을 밝힌 이후부터 나타난



변화이기 때문이다.

2년 전 서울대는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논술고사의 비중을 높이고 수능 성적 일정 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탈락 시키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수능을 자격고사로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알려진 바대로 내신의 실질반영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논술이 대입 당락의 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의 주요대학들도 내신과 수능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논술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정시 뿐 아니라 수시모집과 자연계 전형에도 논술고사를 도입할 방침을 잇달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가 대입에서 내신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학부모와 교원단체, 일선 고교 등 교육계 전반에 걸쳐 반발이 빚발쳤다. 결국 교육부가 대학들을 상대로 회유와 설득을 거듭해 지난해 서울대 등 주요대학들은 내신 반영률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논술고사의 비중도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주요대학 입시에서 논술 비중은 2007학년도 기준 3~10%에서 내년부터는 10%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나고 문제도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된다. 또 인문계에서만 실시하던 논술고사를 자연계, 예·체능계까지 확대 실시된다.

그러나 유명 입시기관들의 예상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도 내신의 실질 반영률은 4~9% 정도에 머물러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논술이 될 전망이다. 결국 내신과 수능, 논술 삼박자를 고루 갖춰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더 견고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이 때문에 강남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등 '치맛바람'이 거센 학원 밀집가를 중심으로 논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사교육비 증가, 경쟁 과열 등 또 다른 교육 문제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떠올랐다.

초등학생부터 논술관련 학습지를 정기구독하고 강의를 수강했고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쪽집게 고액 논술 강의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언론이 우려

했던 사교육비 부담 증가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교육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김교홍 의원실에서 전국의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논술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를 두고 있는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교과 사교육 이외에 논술 사교육을 별도로 시킨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중 20%는 논술 사교육에만 월 1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수정예 강의, 침삭 등 차별화를 강조하는 이들 논술 전문학원의 수강료는 갈수록 비싸져 이미 교과 보습학원의 수준을 넘어섰다. 실제로 강남 유명강사의 강의는 2~3일에 100만원, 2주에 300만원에 달하는 등 일반 보습학원비의 몇 배를 훌쩍 넘는다. 일부 학원에서는 방학을 활용해 아예 학원 주변 호텔 등에서 자고 아침부터 밤까지 논술에만 집중 대비하는 이른바 '명품 캠프'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 캠프에 참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하루 10만원이 넘는 숙박비까지 포함하면 2박3일에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들 고액 강의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1달 945분에 10만원으로 규정한 학원비 책정 기준을 훨씬 넘어서 모두 불법이지만 학원이 워낙 많고 수강료 책정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보니 제보가 없는 한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값비싼 학원 논술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대입 논술의 출제와 채점을 맡고 있는 주요대학 교수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학원에서의 논술 교육이 아이의 특성이나 개성과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져 제대로 된 글쓰기가 아닌 글쓰기 요령만 가르치는 '허울뿐인 교육'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에서 논술 출제와 채점을 담당한 교수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논술답안에서 사용한 인용문이나 실례, 주장 전개 과정 등이 너무 비슷해 강남 어느 학원 출신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겠더라"며 개탄을 한 적이 있다.

실제로 유명학원들은 수시 모집 전형이 시작될 2학기 중 반쯤부터 각 학원들은 대학별, 전형별로 그에 맞는 맞춤형 강의를 개설해놓고 대학이 요구하는 답안에 최대한 가깝게 작성하는 '기술적인' 훈련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특정학원 같은 반에서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 답안의 구성이나 내용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논술은 독창성 보다는 보편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무리 소수정예라고 하지만 강사가 한 학생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창의력과 개성을 향상 보다는 침삭 등을 통해 글의 구조 짜는 법과 정확한 맞춤법 등을 가르치는데 치중한다.

또 학생들이 대부분 똑같은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기 때문에 학원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경우 수업시간에 배운 강박관념에서 얽매이게 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결론은 반드시 공리적이거나 교훈적으로 내세워야 한다거나 서론 본론 결론 중 한부분에서는 반드시 명언이나 문학작품을 인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 제시는 오히려 독창적인 논술을 쓰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고득점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무난하고 평범한 내용의 답안은 평균점수 이상은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경쟁률이 셀 경우엔 평균점수를 받아서는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 강의에 충실한 답안이 오히려 낙제 답안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영수 서강대 입학관리처장은 "학생들의 논술 답안을 보면 학원에서 알려준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자기의 논거와 맞지 않는데도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것은 바로 감점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원 논술의 문제점은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논술 준비 시간만 되면 학생들은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며칠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고액의 수강료를 갖다 바친다. 턱없이 비싼 수강료가 부담이 되지만 대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학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아이들의 사고력 신장에 초점을 맞춘 능동적인 교육을 위해 논술 교육의 활성화는 분명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대입이라는 제도에 얽매어 국어, 영어, 수학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위한 교과 과목처럼 여겨진다는 것에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정부와 일



선 고교, 대학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 고교 교사들이 논술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가 충분한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 읍면 단위 시골학교 등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 강원도의 한 고교에서는 교사 수가 부족해 국어 교사 한 명이 20여명의 학생에게 논술수업을 하는데 입시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골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팀을 꾸려 자료를 모으고 수업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교사들의 소양 향상을 위한 논술연수도 보다 확대돼야 한다. 현재 서울대와 각 시·도 교육청 등에서 교사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논술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기간도 짧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토론식 수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업 내용을 고전이나 시사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가르치는 방향으로 수업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교사들이 할 일이다.

대학들의 입시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 사실 그동안 대학

들이 출제했던 논술 주제들은 고교생이 풀기엔 과도하게 어려웠다. 마치 대학들은 논술고사를 어렵게 낼수록 대학의 위신이 서는 것인 양 철학적이고 높은 수준의 배경지식을 요하는 문제들을 경쟁적으로 출제했다. 제시문은 외국 대학의 원서, 고전 등을 불사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의 문제들은 교사들이 풀기에도 버거울 정도였다.

그러나 어려운 논술 문제와 수많은 제시문은 수험생의 사고의 틀을 제한, 자기의 주장을 창의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사교육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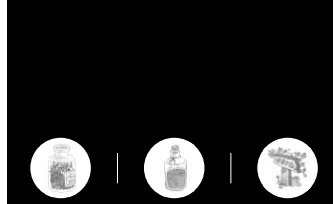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의 논술 문제도 쉽고 단순해져야 한다. 여러 개의 제시문을 통해 논제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의 대입 논술고사인 '바칼로레아'처럼 논제만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 안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최근 공개한 서울대와 연세대의 2008학년도 통합논술 예시문항은 예전에 비해 한결 쉬워진 느낌이다. 논술 전문가들도 학교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춘 학생이라면 문제 이해와 답안 작성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학들은 진작에 왜 이런 식으로 출제하지 않았을까? 대학이 애초부터 고교생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내줬다면 논술 비중 확대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도 훨씬 덜했을 텐데 말이다.

근원이 어찌됐든 모든 지식활동의 기본이 되는 논술 교육은 꼭 필요하다.

'논술'이 사회적인 화두로 급부상한 지금이 논술교육 보편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관심이 순간적인 신드롬에 그치지 않고 한글처럼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논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공교육 속 논술 교육의 희망찾기



학교 연합수업 논술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 글. 박경원 부산양운고등학교 교사 || cutekw@hanmail.net |

1. 학교 연합 논술지도 교육의 필요성

첫째, 본교와 인근 2개 학교는 공간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어 시간적 공간적 연계 활동이 매우 수월하다. 즉 본교를 중심으로 2개 학교는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 또는 교사의 이동이 매우 수월하다.

둘째, 세 학교 재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와 환경이 동일하여 학생의 특성이 유사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일한 지역 내에 있는 6개 중학교 출신이어서 초·중·고교에서 한번쯤 같이 수학하였거나, 심지어 동일한 학원 수강생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각 학교마다 논술 지도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각 학교가 독립적으로 지도하는 것보다 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강사 확보에 유리하다.

2. 강의 프로그램의 개발

가. 우수 강사의 확보

〈참여 학교 교사로만 구성〉

장점

- 학생 이해도와 친밀도가 높다.
- 강사 협의와 운영이 용이하다.
- 학교 연합 연계 운영에 수월하다.
- 학교 논술 프로그램의 저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단점

- 논술 지도 경험이 적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 적절한 강의 주제별 강사 확보가 힘들다.

〈외부 강사 적극 활용〉

장점

- 우수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외부효과가 있다.
- 강의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다.

단점

- 강사 확보에 많은 노력이 든다.
- 강사 협의회 운영이 힘들다.

효율성 분석의 결과 외부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학교 내 교사로만 한정할 경우 장차 학교 논술 교육의 저변화를 꾀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비용 조건에서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학원 강사를 배제한 외부강사(타 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 강사) 활용은 학교 논술 교육을 일반화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참여 교사들에게 자극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기출문제 분석수업 후 실제 글쓰기의 모습



나. 학교 연합 논술 지도 방법의 장단점 분석

<p>〈강사이동형〉</p>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어 이동의 불편함이 없다. • 중심학교의 관리업무가 줄어든다. • 학생 관리가 용이하다.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수업을 3회 반복해야 하므로 1인당 수강료가 비싸다. • 여 학교마다 담당자 업무가 부여된다. 	
<p>〈학생이동형〉</p>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관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 1인당 수강료가 싸다. • 우리 지역은 학생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다. • 특정학교의 희망자가 적더라도 다른 학교에서 충원할 수 있다.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학교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 학생 출결 관리가 힘들다. 	

위와 같은 장단점 분석의 결과 비록 중심학교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학생이동형’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본교의 위치가 나머지 두 학교의 사이에 위치하여 학생이 이동하는 평균거리가 짧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3. 논술 지도 프로그램의 적용

가. 프로그램 운영 방법

1) 강의 주제와 편성 시기

1학기 중 한 회의 운영 기간은 8주에 걸쳐 진행되며, 1·2회는 학기 주에 실시하고 3회는 여름 방학에 2주 만에 종료할 수 있도록 주중 오후에 편성하였다. 1학기 중에 두 번 실시할 수 있도록 학기 초에 서둘러 준비하여 4월 1일에 첫 회를 개강하였다.

1학기에 편성된 강의 주제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강의 주제는 모두 7가지이며 주제 당 2~4 시간을 배정하였다. 연계학교 학생들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토요일 오후에 수업 시간을 편성하였으며 토요일 휴무일에는 오전에 편성하였다.

2학기에는 2회로 나누어 수능 전 프로그램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편성하고, 수능 후 프로그램은 주중에 편성하여 실전 연습 위주로 강의를 하였다.

효율성 분석의 결과 외부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학교 내 교사만 한정할 경우 장차 학교 논술 교육의 저변화를 꾀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비용 조건에서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 세 학교 연합 강의 모습

2) 수강 인원

회당 수강 인원은 45명 내외로 제한하고 3회에 걸쳐 135명 내외 학생이 수강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회당 수강인원을 45명 내외로 한 것은 강의식 수업을 할 경우 일반 교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침식지도는 4명의 강사가 분담함으로써 다인수 수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수강생 모집 결과, 첫 회와 2회 차의 수강 인원은 48 명으로 본교가 18 명, A와 B고교가 각각 15 명이었다. 3회 차는 여름 방학 중에 개별 학습 계획을 세우거나 회차가 반복하여 계속됨으로 인하여 수강 수요의 감소로 35명만 신청하였다.

2학기 수강인원은 각 수업별로 달랐다. 그 이유는 2학기 수업 구성이 대학별 실전 연습 중심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수시전형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지원한 대학별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강좌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여러 강좌를 수강한 학생도 다수 있었다.

나. 기출 문제 분석 및 주제 강의

교과 지식을 중심으로 한 주제 강의에서 논술 고사 출제 내용을 전부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몇 개 분야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논술 고사와 관련하여 심화 학습을 시킨 후 기출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정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주요 대학들의 논술고사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강사협의회를 통하여 강사별 강의 주제를 선정하게 하였다. 주제 중심의 배경 지식 학습을 본 교육과정 속에 약 45% 반영하였다. 배경 지식에 관한 강의를 굳이 절반 가까이 편성한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

의 정상적인 교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논술 시험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경 지식에 대한 강의는 단순히 지식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사회 현실 문제를 주체적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적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몇 가지(6가지) 주제에 한정하여 배경 지식 강의를 편성하였다.

다. 모의 문제 풀이와 첨삭지도

논술 준비에 있어서 기출 문제나 모의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6번의 배경 지식 수업을 반복하는 과정 중에 모의문제를 제시하여 한 편의 글을 작성해 오게 과제를 부과하였다. 답안지 작성은 집에서 해오도록 과제 형식으로 부여하였는데, 토요일 수업 후 부과하여 월요일에 제출하도록 하여 즉시성을 유지하였다.

수합된 답안지는 A, B교 강사 각 1명과 본교 강사 2명 합계 5명의 강사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첨삭을 하도록 하였다. 답안지 수합은 각 학교의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해진 분량 이상의 것은 중심학교 담당자가 연계학교로 직접 가지러 갔다. 분배 과정의 방법은 가까이 있는 연계 학교의 강사는 일정량을 학생들로부터 직접 받고 바로 첨삭 활동에 들어 갈수 있도록 하고, 초과 분량의 답안지만 수합하여 멀리 있는 강사(모의 문제 출제 강사)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첨삭된 답안지는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수작과 예시 답안을 나누어 주고 전체 강평 및 우수작 강평을 실시하여 답안 작성의 오류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라. 대학별 고사 대비 지도

2학기에는 수시전형에 대비한 실전연습을 지도하였으며, 2학기 수시전형이 끝난 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논술 고사를 실시하는 부산대학교 정시 논술 고사 대비 강좌를 개설하고 첨삭지도를 병행하였다.

4. 결과 분석

가. 수강 만족도 설문 분석(학생)

1.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만족(18.4%), 만족(58.6%), 보통(19.5%), 불만(3.42%)
2. '수업 시수'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10.3%), 만족(55.1%), 보통(27.6%), 불만(6.93%)
3. '강사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8.0%), 만족(72.4%), 보통(19.5%), 불만(0%)
4. 연합수업이 '논술 시험 준비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만족(10.3%), 만족(48.3%), 보통(41.4%)

논술 지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논술 수업 준비와 지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의 노력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교직이라는 사명감만으로 무작정 요구하기도 어렵다.

나. 수강료 만족도 설문 분석(학부모)

1. '수강료'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37.9%), 만족(58.6%), 보통(3.4%), 불만(0%)
2. 연합수업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만족(24.1%), 만족(27.6%), 보통(41.4%), 불만(6.9%)

다. 교사

2차례의 운영 평가회를 통한 강사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수강생 수가 조금 많다. ②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강생수는 최대 적정인원이다. ③ 논술고사를 대비한 교육이므로 1학기부터 실전 연습 중심의 수업이 더 강화되는 게 낫다. ④ 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업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비교적 우수 학생들이므로 수강 태도가 좋다. ⑤ 연계학교의 수강생들은 출석율이 비교적 낮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겠다. ⑥ 자연이공과정 학생들을 위한 강의 주제 개발이 필요하다.

5. 제언

본 프로그램의 운영은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대입 논술고사에 대비한 단위학교의 논술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희망으로 시작하였다. '학교 연합 논술 지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이동해야 한다는 면에서 운영이 힘들기도 하지만 우수 강사를 확보하고 역할 분담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교사들의 논술 지도 능력을 신장시키고 주위의 교사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학교 연합 지도를 통하여 단위 학교의 논술 지도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실제로 본 프로그램을 알게 된 주위의 많은 학교들이 논술 특강을 속속 개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논술 지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논술 수업 준비와 지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의 노력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교직이라는 사명감만으로 무작정 요구하기도 어렵다. 본 프로그램의 실천 과정도 교육청 예산의 지원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학부모의 수강료 부담은 사교육기관 못지않게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입시에서 논술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현실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인 논술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술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과정의 확대가 논술지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처럼 단위학교에 대한 논술지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여 지원할 때 그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다. Y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정책 연구

| 글.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 || kyh@kedi.re.kr |





1. 서문

대학입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도는 매우 높으며, 입시 경쟁으로 인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고등학교 학생의 입장에서 많은 사교육비와 과도한 시간을 입시준비에 투입하고서도 정작 자신들의 소질과 적성이 무엇인지 충분히 경험하지도, 대학 교육에 필요한 선수학습 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식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대학입학 후에 학습의욕이 떨어지고 기본 수학능력이 떨어져 휴학, 편입학, 재수, 반수를 하는 등 개개인의 진로개발 측면에서 낭비적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선수학습이 미비한 채 당장의 입시관문을 통과하는 데 치중해 온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심화, 전문공부를 시키는 데 한계를 느껴 대학교육의 수준을 낮추거나 보충학습을 시켜야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낮아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특히 학부제 위주의 학생선발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선수과목을 듣지 않고도 대학에 입학하는 데서 비롯되는 학력저하 지적은 이런 사정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도록 매개할 수 있는 대입전형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입시준비과정이 초래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부실화를 해결하고자 본원에서는 2004년부터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전형 연구’를 8년 계획으로 시작하였다. 이때 ‘연계’란 고등학교의 다음 단계인 대학으로 이어지는 연속의 개념과,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두 교육이라는 단절의 개념을 포함한다. 연속과 단절의 관계를 갖는 고교-대학의 연계란 단순히 두 교육기관 간의 협력(partnership)관계라기보다는 유기적으로 다른 것들 간의 결합(articulation)의 의미가 강한데(정광희, 2005; 김남두, 2006), 지난 2년간 수행된 KEDI 8년 연구¹⁾의 1, 2년차 연구의 모형은 ‘단절된 두 기관의 접속 혹은 결합’이라는 의미의 연계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연계의 의미를 단절된 두 교육기관의 접속으로 규정할 경우 연구기관인 본원이 주도하여 특정 교육기관을 인위적으로 연계하는 일에 한계가 있고, 연계 대상 사례도 제한적이어서 이 같은 개념적 모델에 수정이 필요하였다. 제 3년차에 해당하는 2006년도 연구에서는 학제 상 이어져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이 각각의 교육에 충실하면서도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연결 고리로서 대입정책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06년도 연구에서는 고교와 대학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입정책의 원칙과 방향 탐색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고교 교육의 목적과 기능, 대학교육의 이념에

1) 정광희 외(2004, 2005) 연구 참조.

비취 본 우수학생의 의미, 공정한 학생선발을 둘러싼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입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탐색하며, 현행 대입제도 및 2008 대입제도를 둘러싼 여러 논의와 문제점들을 확인하여 보완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대입제도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물들을 분석하고,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담회 운영하였으며, 고교관계자(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대입전형제도의 원칙과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실제

가. 대입제도의 원칙

바람직한 대입전형제도는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면서 공정성의 원칙을 만족시켜야 한다.

먼저 고교교육의 기능과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국가교육과정에서 따르며,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있다. 후기 중등교육에 속하는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혹은 직업세계)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고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진로개척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가 기간학제에서 차지하는 교량적(bridge) 위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 단계, 특히 국민공통교육과정 이후의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구성과 제공이 이루어질 때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대학교육의 적격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대입제도는 본질적으로 대학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며, 이는 "누가 대학교육 적격자인가"라는 질문을 수반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 대학교육 적격자인가 하는 판단은 대학의 이념과 특성, 대학이 수행해야 할 교육적 기능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입제도는 대학교육의 이념과 특성 및 전공 특성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하여,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격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이 그 핵심 기능이며, 선발의 타당도는 전형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앞서 대입전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칙이다.



셋째, 공정한 대입제도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 부합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공정한 대입제도는 전형기준의 타당성을 전제로, 선발과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나아가 대입제도의 공정성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자원 배분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불평등을 감안하여²⁾, 지역의 차이, 가정환경의 차이, 학교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대학진학의 기회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의 취약 지역 및 취약 계층에게 예외적인 배려를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확보될 수도 있다.

공정한 입시제도에 대한 전통적 인식은 표준화된 성취도 성적과 같은 정량적 평가 요소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예외 없이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의 성격과 기능이 다원화되면서 대학 나름의 이념 및 특성에 상응하는 수학적적자의 선발,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 대학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등을 염두에 둔 다면적 평가로 옮겨가고 있다. 즉, 평가의 객관성이라는 형식적 측면보다 평가의 타당도, 신뢰도, 현실적합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 공정성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나.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지속적 진보보다 즉흥적 대응요법식 처방의 일관에 따른 시계추 운동을 보였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대입제도를 규정하는 일반적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평가 본연의 타당성이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를 통해 무엇을 측정할 것이냐 하는 타당성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면서 단지 그 점수 차이만을 무섭게 따짐³⁾으로써,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및 대학의 경쟁력 확보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왔다.

둘째,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변천과정에서는 고교와 대학 교육의 연속성과 협력의 중요성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대학입시제도의 출발이 대학별 고사에서 시작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신입생의 선발은 대학 측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대학이 주도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고등학교와 학생들을 대학입시에 종속시키는 데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거의 없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명분으로 고교 내신 성적을 전형요소로 채택한 경우에도, 고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의 전공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단지 고등학교 성적을 일정비율로 대입전형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이 학교교육에 보다 집중하게 만드는 것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교-대학의 연계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여는 국가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통합교과형 시험을 표방한 수능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과목별로 치러진 이전의

2) 이종재(1996),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적 논리, 교육정책 논리와 최적선택, 한림과학원 편.

3) 이종승(2003), 대학입시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3학년도 학회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교육학회.

학력고사에서도 특정계열, 특정학과와 고교의 이수과목 및 학력고사 과목을 연계하여 선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없이 공통시험 성적의 총량에 기초한 서열위주의 학생선발이 지배적이었다.

셋째, 2002 대입제도에서 대학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적격자의 개념이 등장하여 수시모집에서는 시험성적 중심의 총량제 접근 대신 다양한 전형요소를 고려하여 선발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의 대입제도 아래서도 정시모집은 기존의 총량제적 접근을 유지하여 일선학교와 학부모의 대입준비 행태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기 적성 보유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전형에서도, 해당 특기와 향후 전공과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특기자 선발이 향후 대학교육을 위한 적격자(타당도) 측면에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

다.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

1)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지도 문제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탐색능력을 계발하여 장차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 이후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도입한 것은 학생들이 개인의 소질과 진로를 염두에 둔 교육과정 이수를 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이라는 형식적 측면보다 평가의 타당도, 신뢰도, 현실적합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 공정성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인 '적성과 진로탐색 능력'을 높여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의 이해득실에 대한 고려가 학교교육과정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계획은 무시된 채 선택과정이 제공, 운영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현행 대입준비는 학생의 진로 선택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교사의 56.2%, 학부모 52.4%, 학생 52.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택할 때 적성이나 장차 전공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80%에 이르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선택과목 제도로 인해 초래되는 학교현장의 실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과목선택은 본인의 적성과 향후 전공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대입준비 단계에서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고등학교의 교과목 구성과 수능시험 사이에 간극이 있고, 고등학교의 교수 및 평가의 수준이 수능시험에 미치지 못하여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가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는 2008대입제도 개선안의 추진배경에서 '내신준비는 학교에서', '수능준비는 학원에서' 라는 풍조를 언급한 적이 있을 만큼 내신과 수능의 관계는 학교교사나 학부모 모두에게 이중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의 문제

대학특성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측면에서 학생선발의 난맥상은 90년대 후반에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학부제 중심으로 학생선발과 대학운영이 되어 온 것과 관련이 깊다. 학부제 중심의 학생선발은 입학 후 학생의 진로선택권을 넓혀 주고 기존의 학과중심 폐쇄주의를 지양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하였지만 중등교육단계에서 유예해 온 진로탐색을 대학이후까지 연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적격자 선발의 측면에서 볼 때, 자의적인 학부제 운영은 교차지원의 허용과 맞물려 이공계 대학교육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에서 이공계열 입학예정자에게 수능시험의 수리 가형과 나형 응시자를 구분하지 않고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수능의 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쉬운 생물을 선택한 학생과 물리를 선택한 학생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리하여 상당수 고등학교와 대학 지망자들은 물리나 화학 등의 기초를 꼭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할 계획이라도 물리 대신 생물을 택하며, 이런 결과 이공계 대학교수들로부터 신입생의 학력저하 및 기초능력 부족이라는 불평이 유난히 더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이다.

현행 학부제 중심의 학생선발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인문분야에서도 현실화 하고 있다. 가령, 중국어 전공희망자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진학할 때 현행의 어문학부 단위의 학생선발에서는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들었는지, 수능시험에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보았는지가 고려되지 않는다. 어문학부 지원자에게 공통으로 요구된 과목들의 성적 총점에 기초한 정원 내 서열이 중요할 뿐이기 때문이다. 입학 후 교양과정을 마치고 전공 배정을 받는 단계에서도 이 학생이 중국어 기초 과정을 들었는지 다른 언어를 들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고등학교는커녕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기초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학생도 교양과목의 평점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중국어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학입학전형의 핵심은 대학교육에 적합한 자질과 실력을 갖춘 학생을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지만 지원자 경쟁률이나 정원의 안정적 확보 등이 당면 관심사가 되면서 적격자 선발 문제는 뒷

전으로 밀리게 된다. 그런 점에서 현행 학부제 중심의 학생선발 제도는 대학교육의 적격자 확보 측면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3) 입학전형 다양화의 현실과 문제

다양한 입학전형에 관한 논의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문제는 대학입학 적격자의 핵심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숙고 없이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를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학입학전형의 목적과 목표를 벗어날 수 있다(박승한 외, 2004).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는 대학의 특성화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필수적인 자질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학입학적격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입시제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특별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의 특기와 모집단위의 특성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고교-대학의 교육적 연계성을 배제한 채 전형방식의 다양화 자체에 만족하는 경향이 크다. 가령, 현행 수시모집의 특별전형 가운데에



대학입학전형의 핵심은 대학교육에 적합한 자질과 실력을 갖춘 학생을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지만 지원자 경쟁률이나 정원의 안정적 확보 등이 당면 관심사가 되면서 적격자 선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그런 점에서 현행 학부제 중심의 학생선발 제도는 대학교육의 적격자 확보 측면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는 외국어능력 우수자, 봉사활동 우수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반적인 학력조건이 비슷하거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학생이라면 비학구적 분야에서 남다른 자질과 가능성을 보여준 학생을 뽑는 것이 개인과 대학 모두에게 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필수자질은 우수한 외국어 능력이라기보다 의학공부에 필요한 지적 기초와 인성적 바탕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입전형을 다양화 할 때 최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원칙은 선발의 타당도, 즉 해당 분야 대학공부를 감당하기에 적합한지에 두어야 하며, 모집단위에 맞는 적성과 준비도를 소홀히 한 채 '다름'에만 주목하여 학생을 뽑는 것은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에도 역행할 수 있다.



3. 결론: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당면 과제

바람직한 대입전형제도의 원칙과 우리나라 대입전형 실태 분석을 기초로 고교-대학 연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입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이에 상응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한 입학제도란 무엇보다 모집영역(전공)별 적격자를 뽑기 위한 기준의 타당성, 입학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적절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드는 일은 단지 시험점수의 비중과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수학생 혹은 실력(merits)의 개념에 대한 고민과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시험 점수라는 단일 잣대 외에 여러 경험과정과 다양한 종류의 성취결과, 잠재가능성, 조건의 불리함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형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다. 선발경쟁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같은 모집단위 안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전형요소를 적용하여 동일한 기준을 향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서 출발 조건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원자의 성취도가 함의하는 바를 개별적 조건에 비추어 재해석 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는 미리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시의 비율을 넘어서고 있는 수시모집의 목적과 범위를 제한하여 예외성과 개별성이 중시되는 수시모집에서는 특별전형을, 정시모집에서는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정시모집을 기초로 정원배정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교-대학 연계성의 강화는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양자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대학입시가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와 동떨어진 채 추진되면 학교교육이 공동화 되고 사교육에 의존하므로 자원의 낭비와 사회적 형평성 시비를 낳게 된다. 대학의 입장에서, 고교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대입선발방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 교육의 적격자 내지 우수학생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대학이 안정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활동과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학의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는 학생을 가려 뽑는 것이 고등학교와 대학 모두 학문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학습 영역이 전공영역(모집단위)별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인식 위에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처치가 필요하다. 고교는 대학이 요구하는 선수

과목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진로계획에 맞는 교과제공에 힘써야 하며, 대학은 학생들의 진학예정 학과나 계열을 중심으로 고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적절성과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양자는 서로의 교육과정을 조율하고 대입전형방식을 함께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에 비춰서 대입전형제도는 특정 검사점수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자료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총평관의 개념을 도입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형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다. 선발경쟁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같은 모집단위 안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전형요소를 적용하여 동일한 기준을 향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 양적 평가 외에 질적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입시경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민감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평가의 주관성을 가능한 한 배제할 수 있는 평가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질적 평가를 실시할 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질적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입학사정 전문 인력의 확보에 힘써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질적 평가의 비중 확대를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출제 난이도,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에 실시된 검사의 성격과 출제, 실시 방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 7차 교육과정의 내용에 맞추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 환산 체제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평가학적 문제와 더불어 내신 성적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실시 목적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고교 내신과목과 수능 시험과목과의 연계방안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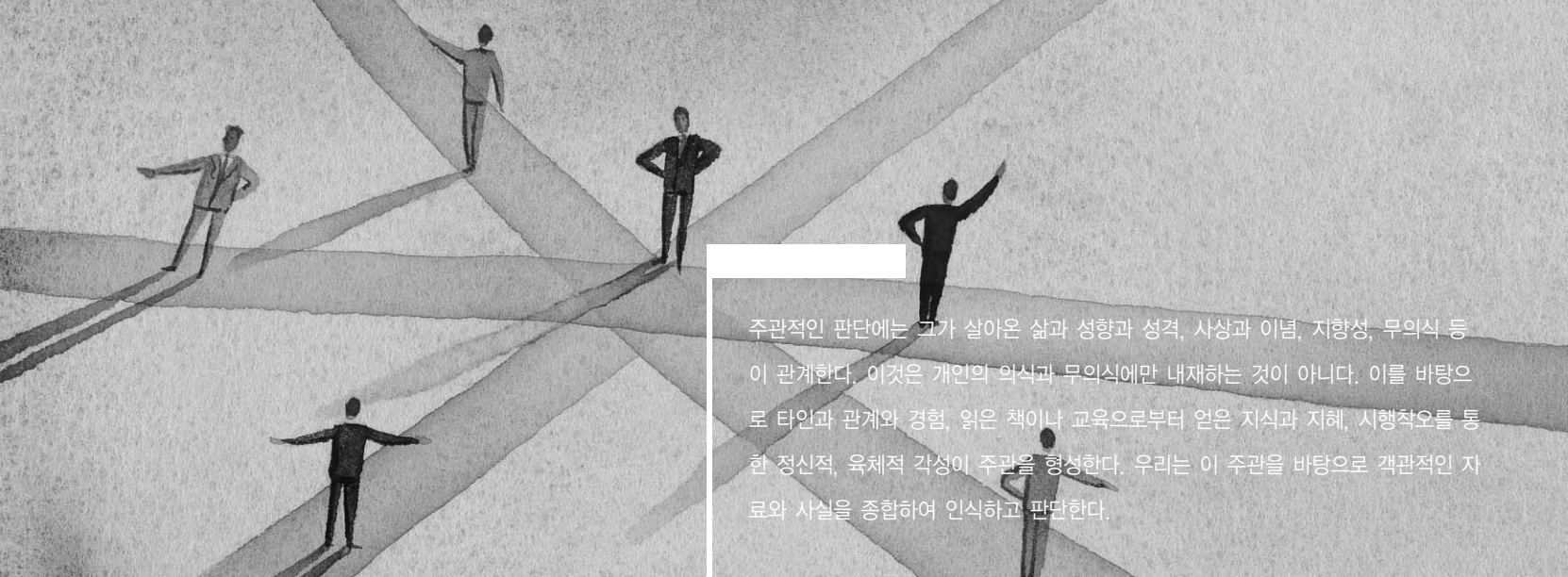


학생의 눈에서 본 2008 입시제도

| 글.고대호 광주 대동고등학교 3학년 || zalot007@hanmail.net

2008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새 입시제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막연한 불안감' 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수능 대박을 노릴 수 없으며 내신, 수능 대비에 논술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고3 수험생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다. 여기에 재수생도 새 입시제도 하에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고3 현역을 한층 주눅 들게 하고 있다. 사실 동기만을 놓고 본다면 이번 입시제도는 이상적인 학생 선발 제도이다.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독서를 많이 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비판할 측면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새 입시제도로 인해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까지 지탄받고 있다. 이제 새 입시제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내신, 수능, 논술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려고 한다.

2008 입시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의 신경전에서 만들어졌다. 교육부의 최대 과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사교육의 원천으로 수능을 지목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결책으로 EBS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못했다. 강사의 인지도, 강의력, 열정 등에서 유료 사이트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 첫 번째 시도가 별 소득을 얻지 못하자 교육부는 표준점수, 난이도 조정 문제와 결부시켜 수능을 등급제로 만들었다. 그러자 대학은 수능 9등급제는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교육부는 그 보완책으로 비교 내신제를 제시하지만 대학은 고교 평준화가 안 된 시점에서 비교 내신제도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21세기 교육 이념에 맞추어서 대학별고사(논술)가 시행되게 되었다.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 몇 가지 조항을 달았다. 영어 제시문을 내지 말고, 단답형 문제나 암기지식 문제를 못 내게 하는 것 등이다. 대신 교과목을 통합하여 문제를 내는 통합논술 쪽으로 출제 방향을 제시 했다. 그 결



주관적인 판단에는 그가 살아온 삶과 성향과 성격, 사상과 이념, 지향성, 무의식 등이 관계한다. 이것은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에만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와 경험, 읽은 책이나 교육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지혜, 시행착오를 통한 정신적, 육체적 각성이 주관을 형성한다. 우리는 이 주관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종합하여 인식하고 판단한다.

과 감독-교육부, 연출-주요대학, 주연-수험생 의 2008 입시제도가 우리 앞에 그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우선 내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신등급제는 떨어진 수능의 변별력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내신 등급제는 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대학이 내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각 대학은 '공교육의 정상화', '학교 내신에 중점을 두어' 등의 말을 통해 내신을 적극 활용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내신 실질 반영률이나 학생 모집 방침 등을 살펴보면 대학이 내신 활용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일단 2008 입시에서 내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동점자를 줄이고 표준점수를 높이기 위해 중간?기말고사를 어렵게 낸다. 그러나 한정된 범위에서 시험 출제를 어렵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출제자들은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을 문제화 시킨다. 이러한 출제 방식은 학생들의 열린 사고를 가로막고 학생들을 암기식 공부로 역행하게 한다.

또한 내신 등급제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학생을 웃고 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의 모교를 예로 들자면 작년의 수학 시험은 매우 어려웠다. 평균이 29점으로 나왔으며 선생님들은 표준점수가 높은 것에 만족을 표하셨다. 문제는 시험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문제를 모두 찍은 학생이 공부한 학생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본인 책임이다. 문제를 찍은 학생 또한 비난 할 수 없다. 그러나 열심히 시험에 대비한 학생이 모두 찍은 학생보다 성적이 더 안 좋게 나왔을 때 느낄 허탈감, 자괴감 등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편 작년 운

리 시험은 너무 평이 했다. 평균은 80점대 초반을 기록했다. 필자의 친구 갑은 윤리 과목을 중간고사에서는 96점, 기말고사에서는 100점을 맞았다. 친구 을은 중간고사에서는 100점 기말고사에서는 96점을 맞았다. 둘 다 한 개씩 틀렸으나 기말고사 고득점자 우선 원칙에 따라 갑은 1등급 막차를 탔고 을은 2등급이 되었다. 1개 틀리고도 2등급을 맞은 것이다. 대학에서는 표준점수를 등급과 함께 고려한다고 했지만 1등급과 2등급의 의미 차이는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신 등급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상위 1~4%까지 차이는 미미한데 4%와 5%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점이다.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21세기에 부응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논술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불만은 이해는 하지만 무의미하다.



이제 트라이앵글의 두 번째 축인 수능에 대해서 알아보자. 새 입시제도 하에서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면접을 제외하고 학생부+논술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전체의 20% 정도이다. 학생 수로는 전체의 14% 정도

만이 논술을 보고 대학에 들어온다. 바꿔 말하면 수험생중 86%는 논술을 보지 않고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설사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에 수시로 합격한다고 해도 대학에서는 최저학력제도를 도입하여 수능을 학생을 선발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등급제가 되어 변별력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수능은 전국의 수험생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전체 공부 시간의 60%를 수능 대비에 쓰고 그보다 낮은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전체 공부 시간의 80~100%를 수능 대비에 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논술 만능주의에 빠져 논술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까지 논술 열풍에 휩쓸려 주도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이 든다.

최근 몇 년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나면 항상 뉴스에서는 ‘올해도 변별력 조절 실패’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지난 2007 입시제도까지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했던 단어는 표준점수 였다. 원점수가 같아도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표준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 예를 들어 작년 수능 시험에서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가장 높았던 사회탐구1 과목은 윤리로 81점이었다. 표준 점수가 가장 낮았던 과목은 법과 사회로 67점이었다. 같은 50점을 맞아도 표준점수는 14점 차이가 난 것이다. 이는 당락을 결정하고도 남을 점수이다. 교육부는 수 년 동안 과목간의 난이도 조절을 통하여 수험생의 손해를 막으려 했으나 매년 실패했고 결국에는 수능을 등급제로 만들어 표준점수를 없앴다. 하지만 필자는 수능의 과목 간 변별력 시비를

잠재울 방법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수능의 문제은행화이다. 현재까지 수능은 출제위원들이 합숙해가며 단기간에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제까지 출제 방식은 보안상의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 수능이 문제은행화 된다면 상시출제를 통해 장기간에 양질의 문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적절히 섞여 난이도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필기시험에서 문제은행 방식을 채택하는 운전면허 시험은 변별력 시비가 거의 없다. 난이도가 검증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의 문제 은행화가 과목 간 난이도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논술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이다. 학생들은 왜 하필이면 우리부터 논술이 강조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해 볼 때 논술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 제도이다. 20세기의 학력고사와 수학능력시험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나 주입식 교육, 획일화 된 교육방식 등 폐해도 존재 한다.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21세기에 부응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논술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불만은 이해는 가지만 무의미하다.

논술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한 사람이 쓴 글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사고의 깊이, 삶의 철학 등이 모두 녹아 있기 때문이다. 논술의 장점 중 다른 하나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21세기가 원하는 인재형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논술은 학생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여 사고의 폭을 넓혀 준다. 실제로 논술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인터넷, 논술 대회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이 많아 졌다는 사실은 논술이 가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논술에도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이란 논술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얼마 전 ‘개천의 용이 사라진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 적이 있었다. 과거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개천의 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개천의 용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불행히도 논술은 이러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도시에서 살며 학원에서 사교육으로 논술을 배운 아이들은 틀에 박힌 사고 밖에 하지 못하고 농촌에서 살며 자연과 함께 뛰어 놀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논술은 교육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농촌의 교육 시설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이다. 애초에 논술 교육 자체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과 대도시의 학생들이 비교가 되겠는가?

또한 창의적이어야 할 논술이 획일화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논술의 획일화는 자극적이고 피상적인 대중문화에 길들여진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하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학생들을 끌어주어야 할 학교와 학원에게도 책임이 있다. 2008 통합 논술을 학교에서 준비하려면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일선 선생님들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2008 논술의 방향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대부분의 학교는 논술 교육을 버거워한다. 학원에서는 정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학원 강사는 논술 전문가로 둔갑하여 저마다 2008 입시를 전망한다. 문제는 학원에서 하는 논술 교육의 대부분이, 글이 획일화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학원에서 논술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어색하지만 저마다 다른 근거를 가지고 다른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수업이 시작되면 강사는 달변으로 자신이 생각 하는 논리로 학생들을 설득한다. 상대적으로 논거가 빈약한 학생들은 강사가 내세우는 논리에 설복 당한다. 수업이 끝날 때 즈음 되면 학생들은 무비판 적으로 강사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생각인 양 여긴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논술 답안지는 유사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21세기에 논술은 필수적이며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논술에 대한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해 보려고 한다. 첫째는 토론 문화 조성이다. 말은 할수록 쓰는 법이다. 토론을 통한 논리적 의견 전개는 글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제대로 된 토론을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자신의 논리의 허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을 찾으며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의견에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다. 자신의 주장에 자신을 가지고 독창적 태도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속담인데 바꾸어 말하면 산으로 가는 배라니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인가?

사실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은 2008 입시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많은 입시 전문가 또한 조심스레 새로운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대의 예시문항, 연세대의 다면 사고형 논술 모의고사 또한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해 본 것이지 그것이 시험장의 논술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하루하루 노력하며 발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방향으로 입시가 바뀌더라도 승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력은 절대 배반 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KEDI Main Page



KEDI Cyber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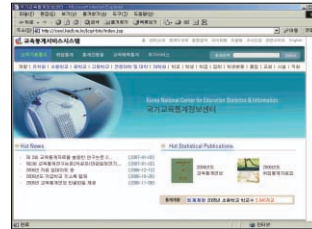
KEDI 기관안내

담 당 : 02-3460-0411 • fax 3460-0151 • webmaster@kedi.re.kr

SUB SITE



학점은행센터
<https://edubank.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http://cesi.kedi.re.kr>



전자도서관
<http://askkedi.kedi.re.kr>



방송통신고등학교
<http://www.cyber.hs.kr>



학교평가
<http://eval.kedi.re.kr>



평생교육센터
<http://ncle.kedi.re.kr>



영재교육연구원
<http://gifted.kedi.re.kr>



ER&D Network 교육연구개발
<http://ernd.kedi.re.kr>



ER&D Network 교육정책포럼
<http://mailzine.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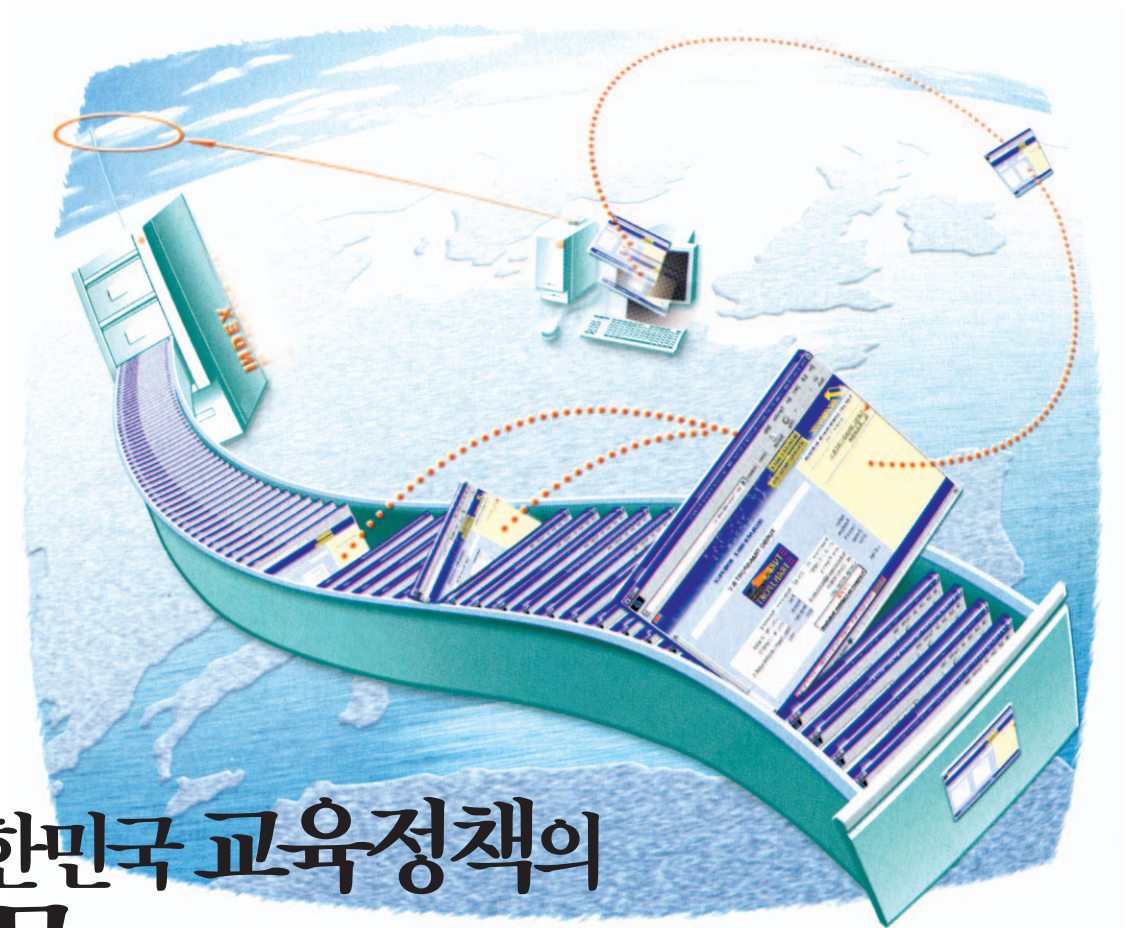
교육정책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http://edumac.kedi.re.kr>



교육안전망지원센터
<http://safe.kedi.re.kr>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큰문이 열립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정책 포털사이트-교육정책정보센터!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사업의 하나로 지금 문을 새롭게 활짝 엽니다.
올바른 교육정책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정보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정책
의 미래로 들어오십시오.

다양하고 엄선된 정책정보를 검색하고 원문을 보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교육정책과 관련된 자료들을 통합검색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적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동향들을 소개합니다
교육현안 및 정책연구결과, 동향 등에 대한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문제,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판단·연구·결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교육 쟁점에 대한 토론의 장이 펼쳐집니다
교육현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견해와 여론 조사결과를 소개합니다.
또한 교육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공동체적 관심을 유도하고 대안적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